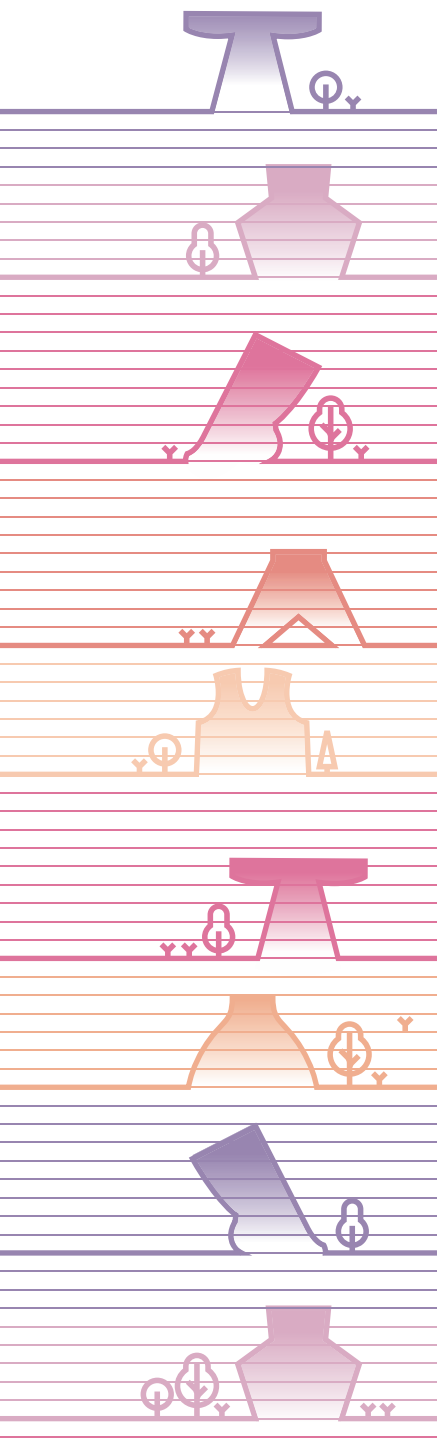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B552668-000003-10

2022 한복 백서

HANBOK REPORT 2022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2022 한복 백서

HANBOK REPORT 2022

2022 한복 백서

HANBOK REPORT 2022

CONTENTS

‘한복’으로 기억하는 2022년	8
📌 국가무형문화유산이 된 ‘한복생활’	8
📌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hanbok한복	11
📌 해외 ‘한복의 날’ 지정	14
I. 한복 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	15
1. 서울시·경기도	16
• 서울시 강남구	16
• 서울시 중구	21
• 서울시 종로구	26
• 경기도 고양시	42
• 경기도 파주시	44
• 이밖에 서울과 경기도의 눈여겨봐야 할 한복 관련 활동	46
2. 강원도·충청도	47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47
• 충청남도 아산시	48
• 이밖에 강원도와 충청도의 눈여겨봐야 할 한복 관련 활동	54
3. 경상도	55
• 경상북도 상주시	55
• 부산광역시	63
• 경상남도 밀양시	70
• 이밖에 경상도의 눈여겨봐야 할 한복 관련 활동	71
4. 전라도	73
• 전라북도 익산시	73
• 전라북도 전주시	80

CONTENTS

• 전라남도 곡성군	85
• 전라남도 남원시	89
• 전라남도 순천시	92
• 이밖에 전라도의 눈여겨봐야 할 한복 관련 활동	93
2022년도 한복 관련 사업	94
특 집 한복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	105
1. 일본의 전통 복식 ‘기모노着物’	105
2.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식 ‘바틱Batik’	150
3. 노르웨이의 전통 복식 ‘부나드Bunad’	157
II. 법과 정책 그리고 관계 기관	163
1. 조례로 성장·발전하는 한복	164
2. 한복의 발전을 이끄는 기관들	167
III. 2022년 한복 종사자가 진단한 한복 산업계의 동향	173
1. 산업체 현황	175
2. 한복 산업계의 내외부 동력	179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한복 산업	185
4. 한복 산업의 미래 전망	189
5.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	204
IV. 국민에게 듣는 한복 보호와 활성화 방법	205
1. 한복에 관한 관심도와 경험 여부	207

2. 한복에 관한 생각과 이미지	213
3. 한복 문화 경험 여부	221
4. 한복 보호와 발전 방향	225
5. 한복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228
6. 국민이 제안한다!	234
V. 한복 전문 교육과 연구	235
1. 대학의 한복교육 현황	237
2. 공공기관에서의 한복교육	245
3. 학계의 한복 연구 성과	249
4. 한복교육과 연구의 방향성	252
VI. 2022년 언론이 주목한 한복	253
1. 국내 언론이 바라본 한복	254
2. 해외 언론이 바라본 한복	268
3. 종이에 새겨진 한복	271
부록	273

‘한복’으로 기억하는 2022년

- ☞ 국가무형문화유산이 된 ‘한복생활’
- ☞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hanbok 한복
- ☞ 해외 ‘한복의 날’ 지정

2022년, 바쁘게 돌아간 대한민국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수많은 키워드가 있었다. 이 중 ‘한복’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견인할 성장 동력으로써, 역사와 문화는 물론 경제, 국제 교류, 지속가능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했다. ‘한복’의 시각으로 바라본 2022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 해 동안 중요하게 언급된 세 가지 소식을 소개한다.

☞ 국가무형문화유산이 된 ‘한복생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2022년 7월 20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선물 같은 일이 찾아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규정에 의거, 우리 민족의 전통 의생활이 ‘한복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이다.

본래 문화재청은 2022년 3월, ‘한복입기’라는 이름으로 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복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한복이 지닌 역사와 성격, 그리고 한복을 입고 향유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출처:문화재청)

하는 사람들의 문화 등을 모두 포괄하는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이 고려돼, ‘한복생활’이라는 명칭으로 최종 등재가 결정됐다.

그렇다면 ‘한복생활’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바지·저고리’ 또는 ‘치마·저고리’처럼 윗도리와 아랫도리가 나뉘어 있고, 고름으로 여며 입는 형태의 옷을 예절과 격식이 필요한 의례·관습·놀이 등에 따라 예법에 맞게 갖추 입는 ‘문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내려왔고, 명절은 물론 돌잔치·결혼식·상장례·제례 등 일생의례 때 입는다는 특징도 지닌다. 점점 한복 입을 일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이지만, 예禮를 갖추 입는다는 근간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전승되고 있다.

‘한복’의 구성요소와 변천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옷을 입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저, 우리와 직접적인 혈통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신석기인들이 가공한 가죽이나 직물로 간단한 의복을 만들어 입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뿐이다.

완성된 형태의 저고리와 바지가 등장한 것은 청동기시대 스키타이계 복장에서부터라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2부 구조로 이루어진 우리 민족의 복식은 시대에 따라 여러 영향을 받아 가며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도, 기본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다. 저고리와 바지·치마가 한복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 것이다.



무용총의 악무도(출처: 우리역사넷)

우리의 의생활 변화는 뜻하지 않게 개항과 함께 찾아왔다. 제일 먼저 1895년, 육군의 정복을 시작으로 경찰, 재판관 등 관리들의 복장이 서양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서양인과의 접촉이 늘면서, 일반인들의 평상복까지 점차 서양식으로 대체됐다.

그래서 현재 한복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됐다. 한복의 구성과 갓춤 역시 간소화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한복의 정신까지 잊혔을 리 없다. 지금도 여전히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물질적·정신적 문화로써 국민 모두에게 널리 향유되고 있다. 한복에 한민족의 공통된 역사·문화·정체성이 담긴 덕분일 터다.

제도적 뒷받침을 기대하며

한복이 갖는 역사·문화적 중요성에 비해, 한복의 전통 계승과 보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더딘 편이다. 한복 장려를 위한 조례 및 규칙이 있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여서, 전국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못한다. 더욱이 ‘한복 착용 권장’, ‘한복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음’, ‘한복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 육성을 할 수 있음’ 등의 조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미지수다. 2022년 ‘한복생활’이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문화재기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분류됐고, ‘한복생활’ 전승 지원에 관한 제도 역시 아직 세워지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한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한복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가 ‘한복’과 ‘한복입기’라는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호하고, 나아가 한국의 중요한 무형자산을 후대에 올곧이 전하는 발판임이 분명한 까닭이다. 만약 여기에 제도적 장치가 더해진다면? 분명 한복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hanbok ^{한복}

옥스퍼드 영어사전 수록의 의미

2022년, ‘hanbok ^{한복}’이란 단어가 국내외 언론에 유독 자주 오르내렸다. 발단은 역시나 한복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2021년 9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과 인지도가 큰) 옥스퍼드 영어사전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에 ‘hanbok’을 비롯한 26개의 한글 단어가 등재된 사실이 1년이나 지난 2022년에 재조명됐다.

1976년부터 2020년까지 ‘김치’, ‘태권도’, ‘온돌’ 등 한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21개의 단어가 올랐고, 2021년에는 ‘hanbok’을 포함해 26개가 추가로 수록됐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 중 6개(kimbap·konglish·skinship·trot·K-, comb·K-drama)를 제외한 41개 단어가 서비스 중이다.

※ 부록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한글 단어’ 참고

- 1976~2020년 수록: 고추장(gochujang), 김치(kimchi), 막걸리(makkoli), 비빔밥(bibimbap), 소주(soju), 양반(yangban), 온돌(ondol), 한글(Hangul) 등 21개 단어
- 2021년 수록: K-드라마(K-drama), PC방(PC bang), 대박(daebak), 먹방(mukbang), 삼겹살(samgyeopsal), 오빠(oppa), 치맥(chimaek), 한복(hanbok) 등 26개 단어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제작은 허버트 콜리지 [Herbert Coleridge, 1830~1861년](#) 외 2명이 기존에 발행된 사전의 결함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1884년부터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128권의 분책이 만들어졌고, 1928년에 총 10권으로 구성된 첫 완성본을 발행했다. 이후 1989년, 총 20권으로 된 제2판이 출판됐으며, 2000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손쉽게 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옥스퍼드 영한사전(Oxford Advanced Learner’s English-Korean Dictionary)이 나온 것은 2009년의 일이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hanbok’ 검색하기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수록된 단어의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출처의 인용문을 통해 어원은 물론 단어가 어떻게 변했고,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OED 인터넷 사이트(<https://www.oed.com/?tl=true>)에 들어가서, 검색란에 ‘hanbok’ 혹은 ‘Hanbok’이라 입력하면, 결과화면 상단에 검색한 단어명과 품사가 나오고, 그 아래로 왼쪽부터 ‘요약 Factsheet’, ‘의미 및 용례 Meaning & use’, ‘어원 Etymology’, ‘발음 Pronunciation’, ‘양식 Forms’, ‘빈도 Frequency’ 섹션이 순서대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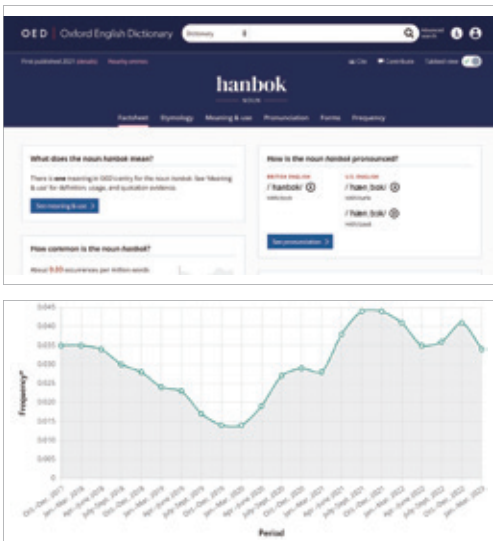
인다. 하나씩 누르면 각 섹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hanbok’이라는 영어 어휘가 언제 처음으로 쓰였는지, 인용문을 오래된 순으로 나열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hanbok’이 현대(영어) 문어체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를 그래프(2017년~현재)로 표현해 한복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OED는 ‘hanbok’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anbok의 정의

긴팔 재킷 또는 블라우스와 허리가 높게 올라오는 여성용 스커트 또는 품이 넉넉한 남성용 바지로 구성된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대개 공식적인 자리 또는 행사 때 착용한다(A traditional Korean costume consisting of a long-sleeved jacket or blouse and a long, high-waisted skirt for women or loose-fitting trousers for men, typically worn on formal or ceremonial occasions).

‘hanbok’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Washington Post』의 1952년 10월 5일 자 기사를 보면, “부산의 한국 여성들은 낮과 밤 모두 전통 의복인 ‘한복’을 입는데, 옷감이 격식의 정도를



‘hanbok’ 검색 결과화면(출처:옥스퍼드 영어사전 온라인 사이트)

결정하고 착용자의 개성을 나타낸다.”라고 했고, 호주의 『The Courier-Mail』 1991년 6월 19일 자 신문에도 “다양한 색깔의 민족의상인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라는 표현이 실렸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A traditional Korean costume)이라는 사실을 인용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 1952 In Pusan, Korean women wear the national costume, the ‘hanbok’, for both daytime and evening, the fabric determining the degree of formality and achieving individuality for the wearer. (Washington Post 5 October 1s/1)
- 1991 It was the women from Korea in their multicolored national Hanboks who dazzled the spectators. (Courier-Mail (Brisbane) (Nexis) 19 June)
- 2018 I could take out the hanbok my birth father and his wife had bought for our family in Korea and maybe even wear them sometime. (N. Chung, All you can ever Know 217)

● 해외 ‘한복의 날’ 지정

2022년 5월 25일, 바다 건너 미국에서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애리조나 주의회에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하는 상·하원 공동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기사였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10월 21일, 메사시의 ‘아시아나 마켓’과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한복의 날’ 선포와 함께 기념행사가 열렸다.



2022년 애리조나주 메사시 한복의 날 지정 기념사진

미국에서 한복의 날을 제정한 것은 사실 애리조나가 처음은 아니다. 2021년 4월 4일 뉴저지주의 테너플라이에서 10월 21일을 ‘Korean Hanbok Day’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뉴저지주 클로스터(2021.08.10.), 콜로라도주 오로라시(2021.10.11.) 등지에서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한복의 날’ 행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한복의 날(10월 21일)’이 끼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정해, 일주일간 한복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 ‘한복문화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의 전국규모의 행사다. 2022년도에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한복이 기념일을 가지게 된 지 벌써 20여년이 흘렀다. 이제 약관 弱冠이 된 ‘한복의 날’은 그 젊음을 내뿜으며, 국내를 넘어 세계의 ‘한복의 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다.



2022년 한복문화주간(사전 행사, 고양 스타필드)

1

한복 문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

1. 서울시·경기도
2. 강원도·충청도
3. 경상도
4. 전라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
2022년도 한복 관련 사업

2022년,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하고 한복 산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졌다.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와 관련 기관 및 뜻있는 단체들이 한해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지역별로 대분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세분해서 정리한 후 한복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의 전국적인 움직임을 글과 사진에 담아 전한다.

1. 서울시·경기도

서울시 강남구

2022년 8월 25일(목)부터 8월 28일(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복상점’이 열렸다. ‘한복상점’은 한복 유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한복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한복업체들의 판매 부스와 기획전시관, 사업홍보관, 체험관 등으로 꾸며졌다. ‘한복상점’의 목표는 한복의 생활화다. 옷은 입음으로써 그 가치가 이어지고 문화를 나눌 수 있는



‘2022 한복상점’ 포스터



‘2022 한복상점’ 전경

까닭이다. 2022년, 다섯 번째로 선보인 ‘한복상점’에는 전국 74개의 한복 관련 업체가 참여했고 총 30,339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행사장인 D2홀은 물론 코엑스 전체, 그리고 인근 지하철역까지 한복을 입고 있거나 한복이 담긴 가방을 든 사람들로 북적였다.

01 유통은 소통: 현장에서의 만남

① 기획전시관

- 소개: ‘바람결에 스며든 푸른 이야기’를 주제로 쪽빛 원단으로 디자인된 한복 28점 전시. 예술감독 서영희, 참여 작가 11명*

* 김민정(한복린), 김영진(차이 김영진), 김인자(당초문 김인자 한복), 김지원(웃짓는원), 김혜순(김혜순 한복), 문쌍후(조윤숙한복연구실), 박선옥(기로에), 송혜미(서담화), 이혜미(사임당by이혜미), 이혜순(담연), 김진이(동양화 작가)

- 일시: 2022.08.25.~28. 10:00~19:00
- 장소: 코엑스 D2홀
- 내용: 신라시대 향가의 하나로, 삼국유사에 실린 ‘헌화가獻花歌’를 모티브로 푸른 동해의 파도를 떠올리도록 기획한 전시

② 한복 판매관

- 소개: 전통한복과 생활한복, 그리고 신발, 가방 등 소품 판매
- 일시: 2022.08.25.~28. 10:00~19:00
- 장소: 코엑스 D2홀
- 내용: 전국 74개 업체 참여. 한복 소비 촉진을 위해 30~80% 가격 할인

2022년 한복상점 참여 업체							
1	가야워(GAYA WIE)	20	리우앤비우	39	실과바늘	58	(주)케이빔
2	가의한복	21	말총갑	40	아름방, 아르미	59	지음공방
3	갤러리K	22	명쌈	41	아린	60	초의
4	경여공방	23	모로뷰	42	아토	61	침선공방 고운빔
5	곱디고운	24	몽상부띠끄	43	아흔(주)	62	통영누비 해수점
6	공간, 공감	25	바이아띠	44	옷재	63	트웰브재뉴어리
7	규화한복	26	복춘자락	45	옹기(나봄)	64	티엠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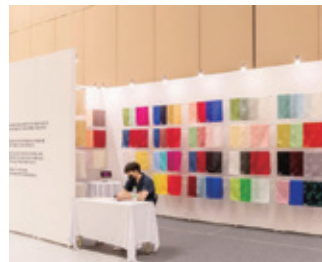
8	그라엘(GRAILE)	27	비담초우리옷	46	요즘이엔	65	하을량
9	끌루(Klloo)	28	사임당BY이혜미	47	우리옷 일상속으로	66	한복공방 란
10	나라샤	29	생활의정성을만나다	48	유시은베넷저고리	67	한복문
11	나비 house	30	설리화	49	유현화한복	68	한복스튜디오 헤온
12	난니네놀이터	31	소미경 SOMIKYUNG	50	이루리라	69	한복신
13	다래원한복	32	소애한복	51	이서	70	한복아울렛
14	다시곰	33	송화 BY Jeong	52	제스카키	71	한아람한복
15	다함한복	34	수수한	53	조은아한복	72	허사랑
16	단하주단	35	순수한복	54	(주)돌실나이	73	현경과 재봉틀
17	도연 한국의상	36	스튜디오 티(studio T)	55	(주)리슬	74	혜음
18	돈화문나뉘한복	37	시와	56	(주)생성공간여백	-	
19	두시한복	38	시지엔 이	57	주식회사 차이킴		



한복 판매관



한복교복·한복근무복 전시관



한복 소재 전시관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전시관

④ 체험관

- 소개: 한복을 입어보고, 한복 관련 소품을 만들거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체험 서비스 운영
- 일시: 2022.08.25.~28. 10:00~19:00
- 장소: 코엑스 D2홀
- 내용: 한복 바르게 입기, 한복 엽서 색칠하기, 향낭 모빌 만들기, 당의 만들기,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과 함께하는 포토존



체험관 ‘향낭 모빌 만들기’



체험관 ‘송가인과 함께하는 포토존’

02 유통은 소통: 온라인에서의 만남

① 라이브 방송

- 소개: 송가인이 안내하는 ‘한복상점’ 라이브 방송
- 일시: 2022.08.25.
- 장소: 온라인 한복상점



유튜브 ‘2022 한복상점 한복 홍보대사 송가인과 함께하는 라이브방송’

③ 사업홍보관

-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복 관련 사업을 소개하는 공간
- 일시: 2022.08.25.~28. 10:00~19:00
- 장소: 코엑스 D2홀
- 내용: 총 3개 관으로 구성(한복교복과 한복근무복 홍보 전시관, 한복 소재의 색상과 촉감을 느껴볼 수 있는 소재관, ‘한복디자인프로젝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공모전 전시관)

구분	내용
한복교복·한복근무복 전시관	한복문화가 학교와 일터로 확산하는 원동력 마련
한복소재 전시관	한복에 쓰이는 보존 가치가 있거나 활용도가 높은 원단과 장식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 수상작 전시관	한복의 재해석이 가능한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한복디자인프로젝트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작품 전시

- 내용: 2022년 한복 홍보대사로 임명된 가수 송가인이 ‘한복상점’을 방문해서 다양한 한복을 둘러보며 현장 분위기 전달

② 온라인 쇼핑 라이브

- 소개: 네이버와 함께한 쇼핑 라이브. 총 5,384명이 접속
- 일시: 2022.08.26.
- 장소: 온라인 한복상점 <https://kcdf.or.kr/hanbokexpo/main>
- 내용: 현장에 직접 오지 않고, 한복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

※ ‘온라인 한복상점’은 오프라인 ‘한복상점’이 종료된 후에도 12월 1일까지 진행.
총 96개 업체가 참여했고, 128,358명이 사이트 방문

03 공예와 함께한 한복상점

- 소개: ‘공예트렌드페어’ 연계 한복상점 행사 개최
- 일시: 2022.12.08.~11.
- 장소: 코엑스 C홀, I85
- 내용: 매년 12월에 열리는 ‘공예트렌드페어’에 참여해, ‘한복상점’을 열고 6개 한복업체(꼬마크 by 돌실나이, 남강실크, 사임당 by 이혜미, 소미경 SOMIKYUNG, 아름방, 입춘)가 소비자들과 만나는 자리 마련. 구매금액별 선물 증정 이벤트 진행



공예트렌드페어 연계 ‘한복상점’

서울시 중구

10월 21일은 한복의 의미와 가치를 떠올리고 우리 전통 복식의 소중함을 기리는 ‘한복의 날’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복문화주간(한복의 날이 포함된 일주일간)’이 국내외에서 펼쳐진다. 2022년에는 17개 국가, 36개 도시에서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열렸고, 355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며 1백만여 명(온·오프라인 통합)이 방문했다. 한복을 바르게 알리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전하며 일상에서 한복 입는 문화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시작된 이 행사가 2022년 올해로 벌써 26번째다. 2022년 ‘한복문화주간’은 10월 17일(월)에서 23일(일)까지 ‘한복 입고 한 보 앞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에서는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1~5층에서 개최됐다. 이 기간 동안 한복 전시와 체험활동, 패션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7.18~8.8)’을 통해 선정했다.

** 하이커그라운드[Hikrground]는 K-POP 체험과 미디어아트 관람을 할 수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홍보관이다.



01 한복문화주간 본행사

① 전시

- 소개: (가) 2022년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어린이 한복 전시, (나) 세계를 이끈 K-콘텐츠 ‘한복’ 전시
- 일시: 2022.10.17.~23. 10:00~19:00
- 장소: 하이커그라운드 1~5층
- 내용:

구분		전시 콘텐츠
어린이 한복	과거	한복 명장의 색동이 돋보이는 어린이 전통 한복
	현재	현대적으로 해석된 다양한 색상의 어린이 한복
	미래	1세대 피규어 작가와 한복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한복 입은 피규어
K-콘텐츠 한복	영화 속 한복	전세계가 열광한 넷플릭스 킹덤 속 한복
	한복 일러스트	우리 고유의 한복을 섬세하게 그림으로 표현한 일러스트



전시 '어린이 한복', 왼쪽부터 과거, 현재, 미래



전시 'K-콘텐츠 한복(킹덤 한복)'

전시 'K-콘텐츠 한복(한복 일러스트)'

② 체험과 이벤트

- 소개: 한복 체험(전통놀이, 전통 매듭과 키팅 만들기, 피규어 색칠하기, 고름 매기, 한복네컷, 한복 대여 케이팝 챌린지)과 이벤트(스탬프 투어) 운영

- 일시: 2022.10.17.~23. 10:00~19:00

- 장소: 하이커그라운드 1~5층

- 내용:

구분		활동	
체험	전통놀이 체험	-	산가지, 팽이, 실뜨기, 공기, 고누
	전통 매듭 팔찌&키링 만들기	사전접수	전통 매듭 팔찌&키링 만들기 ※ 평일 70명, 토요일 100명 한정
	피규어 색칠하기	사전접수	피규어 색칠 체험 ※ 1일 25명 한정
	고름 매기	현장접수	한복 웃고름을 직접 매보는 체험
	한복네컷	현장접수	포토큐브를 활용한 인생네컷 촬영
	한복 대여	현장접수	한복 입고 케이팝 챌린지 체험
이벤트	스탬프 투어	현장접수	하이커그라운드 전 층을 돌며 스탬프를 찍어오면 선물 증정



체험 '전통놀이'



체험 '전통 매듭 팔찌와 키팅 만들기'

체험 '피규어 색칠하기'

체험 '고름 매기'



체험 '한복네컷'

체험 '한복 대여'

이벤트 '스탬프 투어'

02 한복문화주간 연계 행사

① 표창장 수여

- 소개: 한복문화 확산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한복 관계자들에게 ‘한복문화진흥 유공 및 감사장’ 수여
- 일시: 2022.10.21. 19:30~20:00
- 장소: 하이커그라운드 4층 네트워크 라운지
- 내용: 유공표창: 공로상(조효숙, 가천대 석좌교수), 올해의 한복인상(황선태, 한복문 대표), 신진 한복인상(황이슬, 리슬 대표) / 감사장: 가수 송가인·오마이걸·비비지, 방송인 박경림, 신세계 프라퍼티, 하나은행, 컬처리오&네오엔터티엑스, 마크모크, 디자이너 지노, 유티버 굴러라 구르님, 나스첸카, 국립합창단, 아메바



‘한복문화진흥 유공표창 및 감사장’ 수여



② 패션쇼와 K팝 공연

- 소개: 한복의 날을 축하하는 패션쇼와 공연
- 일시: 2022.10.21. 18:30~20:30
- 장소: 하이커그라운드 1층 야외 광장
- 내용: 화려한 배경으로 3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복 런웨이와 아메바컬쳐 케이팝 공연 진행



한복 패션쇼

③ 학술대회(한복학회)

- 소개: 한복을 바라보는 학계의 시각과 연구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 마련
- 일시: 2022.10.22 10:00~14:30
- 장소: 코리아나 호텔 7층 로얄룸
- 내용: ‘한복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제발표 4편, 논문발표 1편, 포스터 발표 9편

구분	주제	발표자
주제발표	‘한복의 날’,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준비	윤양노(의류학과 교수, 중부대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한복생활의 확장 사례	최연우(전통의상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전통을 담은 패션한복	장현주(의류학과 교수, 제주대학교)
논문발표	우리 옷, 문화를 일구다	김남희(대표, 돌실나이)
	요실금 증상 유형과 제품 속성 연구	유천·차수정(패션의류학과 교수, 목포대학교)
	조선전기 『악학궤범』의 여기(女妓) 흑장삼(黑長衫) 복원	김이숙·최연우(전통의상학과 교수, 단국대학교)
포스터 발표	강릉 단오 제복(祭服)을 응용한 현대 여성복 개발	황지영·권진·김다은·김예림(강릉원주대학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한국복식 디자인 분석	이정은·장민정(의류산업학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인형용 소형 한복 금박의 현황과 방향	최정(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KBS 대하 사극 의상 비교 연구 - 대왕세종(2008), 정도전(2014), 태종 이방원(2021)의 태종 이방원을 중심으로	신자영·장민정(의류산업학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프리다칼로 작품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제작	정은이·김경희(의류산업학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한복 치마의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실태 연구	정현주(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라이브 커머스와 왕홍의 특성이 중국 여성의 외모관심도 및 화장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사람·김경희(교육학과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정창원 무악장속에 사용된 문양염에 관한 연구	이정은(부산대학교)

서울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주최하고 종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종로한복축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행사다. 매년 가을 종로구 일대에서 이틀간 진행되는데, 2022년도에는 10월 8일과 9일에 광화문광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관광객은 물론, 한복 동아리 회원들과 자발적으로 종로한복 홍보단으로 활동한 종로구 소재 대학생들로 행사장이 북적였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중 공연이 9개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체험 8개, 연계 전시 6개 순이었다.

* 주최: 종로구, 주관: 종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관광공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2 종로한복축제 포스터

01 공연프로그램

① 북의 판타지

- 소개: 종로구와 안성, 정읍의 공연, 진도의 북춤 무용단이 펼치는 웅장한 북소리 공연. 2022 ‘종로한복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 연출

- 일시: 2022.10.08. 18:30, 20:00

- 장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 내용: (웃다리 풍물판굿) 오채질 굿, 옛타령, 부포놀이, 오방진굿, 수타 수타 수타타, 정읍 설장구, 12발 상모 등 다양한 장르의 연희를 재해석한 공연, (남사당놀이) 풍물놀이, 소고놀이, 버나놀이, 열두발놀이 등을 선보이는 공연, (진도 북춤) 자진모리, 굿거리, 동살풀이 및 사자탈춤과 함께 구성된 공연



북의 판타지

※ 공연단 총 98명: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정읍 시립 농악단, 무가향 몸짓 강은영 북춤연구회 무용단

② 한복 패션쇼 ‘종로, 한복, 색과의 동행’

- 소개: ‘색동’을 주제로 한복의 전통성과 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한복패션쇼 개최
- 일시: 2022.10.08. 19:15~20:00
- 장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주 무대
- 내용: 오방색인 검정(흑)·흰색(백)·파랑(청)·노랑(황)·빨강(적)을 한복으로 표현해, 한복이 가진 다양한 색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총망라. 이 외에도 한복과 함께 9개국-몽골, 독일, 브루나이, 헝가리,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파나마, 폴란드, 나이지리아-의 전통의상을 선보여, 국제 교류의 초석 마련. 디자이너 이혜미(사임당by이혜미) 참여



종로, 한복, 색과의 동행

③ 강강술래

- 소개: 강강술래는 한복을 입고 모두가 하나가 돼 즐기는 우리나라 전통연희이자 ‘종로한복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 공연. 현장에서 손에 손을 잡고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우며 둥근 원을 그리는 장관 연출
- 일시: 2022.10.08. 20:45~21:05
- 장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주 무대
- 내용: 문지기놀이, 남생이놀이, 손치기놀이, 덕석몰이 공연 등

※ 공연단: 국가무형문화재 제 8호 강강술래 예능 보유자 김종심, 박종숙과 이수자 / 성균관대학교, 국민대학교 무용 전공 학생



강강술래

④ 한복 뽐내기 대회

- 소개: 한복을 즐겨 입고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한복의 맵시를 자랑할 수 있는 ‘한복 뽐내기 대회’ 개최. 일반부와 어린이부는 9월 19일에 사전 대면 심사를 마쳤고, 10월 9일에는 커플부와 외국인부의 심사와 시상식 진행
- 일시: 2022.10.09. 14:00~17:00



한복 뽐내기 대회

- 장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주 무대
- 내용: 총 30명 수상(으뜸상 4명, 버금상 3명, 맵시상 3명, 함께상 12명)

⑤ 2022 고하노라

- 소개: 성균관 유생들이 임금님께 뜻을 전하는 ‘유소문화’를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계승해, 청년과 공직자가 소통한 무대
- 일시: 2022.10.09. 17:00~18:00
- 장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광장’에서 시작해 ‘놀이마당 주 무대’로 이동
- 내용: 올해의 상소문 주제는 ‘VR 방언체험: 한글의 꽃, 방언’이었고,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유생들에게 ‘비답’을 전하는 퍼포먼스 연출

※ 공연단: 성균관대학교 유생문화기획단 ‘청량’ 학생 약 200명

구성	주제	내용
1부	소반	소반을 주제로 한 플래시몹 - ‘이곳에 고하노라’ 플래시몹 진행
	입궐	입궐하기 전의 과정을 표현한 퍼포먼스 - ‘입궐’ 노래에 맞추어 플래시몹 진행
2부	비답의례	임금님 대신 공직자가 내리는 비답의례 - 소두 3명의 요약 낭독, 성균관대학교 신동렬 총장의 축사
3부	피날레	<2022 고하노라> 준비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상영, 비답이 내려온 것을 기뻐하는 2022 고하노라 참가자들의 무대



2022 고하노라

⑥ 종로한복 예술제

- 소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종로구민으로 이루어진 종로구립예술단이 ‘종로한복축제’ 개최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선보인 공연

- 일시: 2022.10.09. 18:15~19:10
- 장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주 무대
- 내용 ※ 공연단: 종로구립합창단,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종로구립궁중무용단, 종로구립어르신합창단

시간	공연	내용
18:15~18:30	종로구립합창단	코랄 랩소디 애국가, 서사가 여 8호실
18:30~18:45	종로구립소년소녀합창단	Under the sea, 한강수타령
18:45~18:55	종로구립궁중무용단	춘앵전, 학무
18:55~19:10	종로구립어르신합창단	보리피리, 남촌



종로한복 예술제

- ⑦ 축하공연 ‘〈향음〉 성균관대학교 무용과’
 - 소개: 2022 종로한복축제의 개막을 축하하며, 아름다운 국악 선율에 맞춘 무용수들의 군무가 돋보인 ‘향음’
 - 일시: 2022.10.08. 15:30, 17:30 / 10.09. 13:30, 15:30
 - 장소: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주 무대
 - 내용: 13명의 무용수가 박으로 펼치는 다채로운 춤사위 공연

※ 공연단 지도: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한국무용전공 전은자(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



축하공연 ‘향음’



- ⑧ 거리공연 ‘태권도’
 - 소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공연
 - 일시: 2022.10.08. 14:30, 16:30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2022 서울시 태권도 상설공연)의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 시범과 송판 격파 퍼포먼스



거리공연 ‘태권도’



- ⑨ 거리공연 ‘마술쇼’
 - 소개: ‘종로한복축제’를 찾아준 관광객과 하나 되는 마술쇼
 - 일시: 2022.10.08. 14:30, 16:30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마술사 이형우의 마술 공연



거리공연 ‘마술쇼’



02 전시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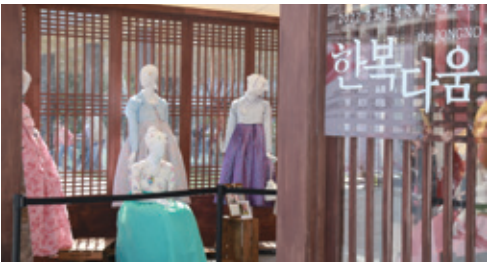
① 종로를 빛낼 젊은 한복인

- 소개: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복’으로 보여준 전시
- 일시: (전시 기간) 2022.10.08.~09.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종로를 거점으로 창업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종로의 신진 청년 한복 디자이너의 작품을 알리는 계기 마련

※ 참여 업체: 금의재, 노리한복, 모란나비

② 한복 입은 풍경

- 소개: 2016년부터 매해 진행한 ‘종로 한복사진 공모전’과 연계해, 그간의 공모 사진 당선작들을 한데 모은 특별전
- 일시: (전시 기간) 2022.10.01.~10.09.
- 장소: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
- 내용: 종로 한복 사진 공모전 역대 당선작 총 49점 전시. 한복 사진과 그 안에 담긴 시민들의 추억을 나누는 세대 공감의 자리로 기획



종로를 빛낼 젊은 한복인



한복 입은 풍경

03 체험프로그램

① 한복체험

- 소개: ‘종로한복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전통 한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직접 입어보며 느낄 수 있도록 현장 대여 한복체험 부스 운영
- 일시: 2022.10.08.~09.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을 골라 입고 하루는 보내는 기회를 제공해, 한복문화 확산과 입기 활성화 촉진 ※ 참여 업체: 초연한복, 케이스타



한복체험

② 한복놀이터와 전통놀이 라운지

- 소개: 활쏘기, 고누,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일시: 2022.10.08. 12:00~18:00

구분	내용	참여자
국궁 활쏘기 체험	전통 국궁 활쏘기 자세를 배우고, 전통 과녁에 직접 활을 쏘는 체험	158명
필러비즈 컵받침 만들기	알록달록 색색의 필러비즈를 이용해 전통 문양 도안의 컵받침 만들기	148명
오방색 매듭 팔찌 만들기	오방색(흰색, 검은색,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색실 매듭 팔찌 만들기	263명
생쪽매듭 키링 만들기	기쁨과 환희의 뜻을 지닌 전통 생쪽매듭을 이용해 나만의 키링 만들기	215명
전통놀이 라운지	전통 놀이 지도사와 함께하는 협동제기, 대형윷놀이, 비석치기, 투호 등 신나는 전통 놀이 체험	180명



전통놀이 '투호'



생 매듭 키링 만들기



오방색 매듭 팔찌 만들기

③ 시민참여 프로그램 ‘고운 옷, 우리 한복 이야기’

- 소개: 종로한복홍보단 누비라(Nubi-ra)와 함께 한복 고름의 올바른 매듭법을 배우고 한복을 짓는 과정 중 ‘금박’ 찍기 체험 진행
- 일시: 2022.10.08.~09. 12:00~18:00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2022 종로한복홍보단 누비라(Nubi-ra) 4기 운영. 총 270명 참여

※ 자문: 조경숙(서울시무형문화재 제 11호 침선장 이수자)

프로그램	내용
향대 금박 키팅 만들기	한복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금박을 전통 방식으로 직접 찍어 금박 향대 키팅 만들기
소원을 들어주는 고름 매기	올바르게 고름을 매는 방법을 익히고, 고름을 소원 나무에 걸어보기
종로한복축제와 함께하는 추억 4컷	고름 바르게 매기 체험 후 종로한복축제 특별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는 이벤트



고운 옷, 우리 한복 이야기



종로한복 홍보단 누비라(Nubi-ra) 4기

‘누비라(Nubi-ra)’는 문화예술과 축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로 구성된 종로한복 홍보단이다. 1·2차 모집을 통해 총 96명이 선발됐고 운영팀, 콘텐츠제작팀, 통·번역팀, 현장지원팀, 촬영팀으로 나뉘어 5월부터 11월까지 활동했다.



④ 시민참여 프로그램 한복동아리 ‘복동이’

- 소개: 한복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종로 한복동아리
- 일시: 2022.10.08.~09. 12:00~18:00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복동이’에서 만든 다양한 소품을 전시하고 한복 입어보기 체험 서비스 제공



복동이 운영 소품 전시 부스

구분	프로그램	내용
놀이	한복 입어보기 체험	한복 입고 기념사진 촬영
곤룡포	노리개 키팅 전시	오래된 장신구로 만든 업사이클링 노리개 키팅 전시
호롱잡화점	한복 업사이클링 잡화 전시	버려진 한복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방과 파우치 등 생활소품 전시

한복동아리 ‘복동이’

한복과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모인 동아리다. 공개 모집으로 11팀 72명이 선발돼, 축제 기간 중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시와 체험 부스를 열었다.



⑤ 관내대학 협업 프로그램 ‘<배화여자대학교> 전통 문양 체험’

- 소개: 전통 문양을 이용한 세 가지 체험프로그램과 한 건의 이벤트 제공
- 일시: 2022.10.08.~09. 12:00~18:00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배화여자대학교(문화관광산업연구원, 한복문화콘텐츠과, 메이커스페이스)가 운영한 전통문양 머그컵 만들기, 전통문양 리본핀 만들기, 슈링클스 전통 장신구 만들기 체험과 한복 과거시험(이벤트) 운영. 총 85명 참여



배화여자대학교의 전통 문양 체험



종로한복길 '유생길'



⑥ 관내대학 협업 프로그램 '성균관대학교 청량' 2022 고하노라'

- 소개: 공연프로그램 '2022 고하노라' 연계 프로그램
- 일시: 2022.10.09. 12:00~18:00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상소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상소나무 프로그램 진행. 성균관대학교 유생 문화기획단 '청량' 기획·운영



성균관대학교 청량

⑦ 종로한복길 '유생길'

- 소개: 전통 유생복을 입고, 유생의 마음으로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역사 프로그램
- 일시: 2022.10.08. 14:00~17:00
- 장소: 종로구 일대
- 내용: 성균관에서 광화문까지 해설사와 함께 옛 유생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문화 해설 프로그램으로 총 16명이 참가. 돌레길협동조합 운영, 성균관대학교 캠퍼스타운 협력

※ 코스: 서울문묘→성균관→대명거리→박석고개→경모궁지→종묘(서순라길)→피맛골→종각→청계천→광화문광장

⑧ KT지정 기탁사업

- 소개: 소외계층 아동과 노인들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지원
- 일시: 2022.10.08.~09.
- 장소: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 내용: 문화 소외계층에게 무료 한복 입기 체험, 한복 사진 촬영, 전통 놀이 체험, 공연 관람 등을 제공. 총 294명이 혜택을 받아 종로한복축제에 참여

04 기획·연계프로그램

① 종로 한복 문화발전 방향 토론회

- 소개: 현대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한복입기 대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
- 일시: 2022.02.11. 15:00
- 장소: 청운문학도서관
- 내용: 종로구청과 종로문화재단 관계자, 한복 전문가, 한복 디자이너,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분야별 의견을 듣고 향후 발전 방향 논의



종로 한복 문화발전 방향 토론회

※ 토론회 참석자: (종로구청) 김오현 전[前] 문화관광국장, 차승철 전[前] 문화과장, (종로문화재단) 운영민 전[前] 대표이사, (전문가) 김영수 예술감독, 김문자 한복고증연구소장, 이혜미 사임당by이혜미 대표, 김리을 리을 대표, 이승주 다시곰 대표, 이강희 대학 연합 한복동아리 '곤룡포' 회원

② 종로한복길

- 소개: 한복 입고 걷기 좋은 종로의 길을 지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종로를 여행하는 ‘종로한복길’ 프로그램을 운영
- 일시: 2022.08.~10.
- 참여: 총 263명
- 내용: 해설사와 함께 종로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탐방하며 지역의 아름다움을 재발견

프로그램	운영 코스
뚜벅뚜벅 종로한복길	서순라·원서동길, 부암·청운·서촌길, 북촌·삼청동길, 혜화·명륜길
부모아이 함께 행복한 종로 한바퀴	북촌길, 인왕산길, 부암·청운동길, 궁담길
유생의 길	서울문묘→광화문



종로한복길 ‘뚜벅뚜벅 종로한복길’



종로한복길 ‘부모아이 함께 행복한 종로 한바퀴’



종로한복길 ‘유생의 길’

05 연계 전시프로그램

① 조각조각 이어 붙여 그리는 희망

- 소개: 주민 참여형 친환경 주제 전시
- 일시: (전시 기간) 2022.08.17.~09.05.
- 장소: 종로 도시갤러리(홍인지문공원 전시관)
- 내용: 창신동 주민 10명이 버려진 폐원단을 재활용해 ‘여의주 무늬 보자기’ 등의 작품을 제작해 전시. 시민 작가 김명선 외 9명 참여

※ 협력: 종로구 혁신계획 협치 사업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문화특특> 실행그룹, 창신소통공작소 주민협의회 씨앗



조각조각 이어 붙여 그리는 희망

② 찬란히 빛나다: Shine Bright

- 소개: 한복으로 작품세계를 구축해가는 신진 작가에게 다양한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종로구의 대학과 연계한 전시회
- 일시: (전시 기간) 2022.08.17.~09.05.
- 장소: 종로 도시갤러리(익선공감 전시관)
- 내용: 하찌(김은정) 작가의 ‘누드톤’을 가진 다양한 한복 원단을 사용해 한복의 다양한 가능성을 선보인 전시 ※ 협력: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찬란히 빛나다: Shine Bright

③ 배화여자대학교 ‘삶이 지어내는 의례복식’

- 소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여러 통과의례 때 갖춰 입었던 의례복 전시
- 일시: (전시 기간) 2022.08.24.~12.13.
- 장소: 배화여자대학교 전통문화전시실(도서관 2층)
- 내용: 전시를 관람하는 각자가 자신이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할 삶의 여정을 그려볼 수 있도록 구성. 특히, 한복 디자이너 이리자가 딸을 위해 지었던 일생 의례복을 한자리에서 선보인 전시. 총 891명이 관람
※ 협력: 배화여자대학교(문화관광산업연구원,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



배화여자대학교 ‘삶이 지어내는 의례복식’

④ 배화여자대학교 ‘한복, 내일을 건다’

- 소개: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학과와 학생들이 전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한복 전시
- 일시: (전시 기간) 2022.10.06.~10.14.
- 장소: 전통문화공간 무계원
- 내용: 차세대 한복 디자이너가 제안하는 젠더리스, 하이틴, 펑크, 판타스틱, 로맨스 스타일의 다채로운 한복을 통해 다가올 한복의 미래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과 2학년 길민경 외 24명이 작가로 참여. 총 264명이 전시 관람

※ 협력: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과



배화여자대학교 ‘한복, 내일을 건다’

⑤ 배화여자대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보고 듣는 한복 인문학’

- 소개: 전문가에게 듣는 우리 한복문화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
- 일시: 2022.08.29. / 10.06 / 10.13.
- 장소: 종로구청 다목적실
- 내용: ‘한복디자이너 이리자의 옷 이야기’, ‘보자기로 보는 한국인의 미의식’, ‘요즘사람 요즘한복’, ‘한복-문화공정 논란 알아보기’, ‘한국인의 장신구’, ‘예를 갖추어 입는 옷-왕실 혼례복’을 주제로 한 강연. 강연에 참여한 지역민 총 79명



배화여자대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보고 듣는 한복 인문학’

※ 협력: 배화여자대학교(혁신지원사업단, 문화관광산업연구원)

⑥ 종로구 문화과 협력 프로그램 ‘종로한복사진 공모전’

- 소개: 한복이 낳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공모전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한복은 튀고 있었지’
- 일시: (공모 기간) 2022.06.27.~08.05.
- 장소: 종로구 일대
- 내용: ‘우리 옷 한복과 동네 추억이 함께 담긴 사진’이 공모전의 주제.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포착한 사진을 통해 한복문화를 공유하고 계승하는 계기 마련. 수상작 총 37점



대상 <종로 튼튼이_경희궁> 정원경



최우수상 <시계 토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_종로 예지동> 김승희



최우수상 <콩이와 추억 만들기_북촌> 김상수

경기도 고양시

추석을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복문화주간’의 사전행사가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에서 먼저 열렸다. 규모는 본행사보다 작았지만, 한복구매와 전시 관람, 여러 체험 코너까지 준비됐고, 피규어 전시와 반려견 한복 판매 등 독특한 기획으로 눈길을 끌었다.

- 소개: 미리 만나보는 ‘한복문화주간’
- 일시: 2022.09.01.~12. 10:00~22:00
- 장소: 스타필드 고양 1층 센트럴 아트리움
- 내용: 10월에 열린 ‘한복문화주간’ 본행사와 마찬가지로 어린이한복과 피규어는 물론 성인 남녀의 다양한 한복과 반려견 한복 전시. 전통놀이, 꽃신 만들기, 피규어 색칠하기 등의 체험활동 진행

구분		내용
전시	피규어	피규어 X 한복
	한복	한복 전시
		어린이 한복 전시
		반려견 한복 전시
체험	전통놀이 체험	한가위 전통놀이(산가지, 팽이, 실뜨기, 공기, 고누)
	만들기 체험	전통 꽃신(화혜) 만들기
	색칠하기 체험	3D 프린팅 피규어 색칠하기
		한복 민화 엽서 색칠하기
찾아가는 한복상점		한복업체 6곳 참여
기타		포토존(명장 한복 전시형 포토존, 한복 대여 진행)



스타필드 ‘한복문화주간’ 사전행사(출처:신세계프라퍼티)



한복문화주간 사전 행사 ‘어린이한복’ 전시



한복문화주간 사전 행사 ‘피규어’ 전시



한복문화주간 사전 행사 ‘반려견 한복’ 전시



한복문화주간 사전 행사 ‘찾아가는 한복 상점’



한복문화주간 사전 행사 ‘3D 프린팅 피규어 색칠하기’ 체험



한복문화주간 사전 행사 ‘한복 민화 엽서 색칠하기’ 체험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파주는 조선시대 중기 유학자인 율곡 이이 栗谷 李珣, 1536~1584년 의 묘소와 율곡의 덕망을 기리기 위해 1615년에 세워진 ‘자운서원 紫雲書院’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파주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는 1987년에 시작된 ‘율곡문화제’다. 2022년 제23회 ‘율곡문화제’는 10월 8일에서 9일까지 열렸는데, 문화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한복패션쇼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해당 패션쇼의 주제는 ‘한복의 아름다움을 율곡에서 뽐내다’로, 파주의 지역적 특색과 한복을 연계해 진행됐다.



제32회 율곡문화제 ‘한복패션쇼’ 포스터

‘한복의 아름다움을 율곡에서 뽐내다’ 한복 패션쇼 구성

- **풍류의 향연:** 조선시대 사람들이 현대에 풍류를 즐긴다는 구상으로 힙합, 마샬아츠트릭킹, 태권도, 그리고 한국무용을 콜라보한 현대적인 퍼포먼스
- **조선시대 전통복식:** 면복, 적의, 혼례복, 자적원삼, 노의, 녹원삼, 당의 등 궁중 복식 재현. 조선시대 한량과 예인인 기생의 퍼포먼스
- **파주 선현의 전통복식:** 윤관장군 부부, 신사임당 부부, 율곡 이이, 우계 성혼, 황희정승 부부, 허준 선생과 의녀를 주제로 시대별 한복 재현
- **파주 설화(시인 최경창의 사랑 이야기) 한국무용:**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도 불리는 시인 최경창과 기생 홍랑의 사랑 이야기를 표현한 퍼포먼스
- **전통복식의 현대화:** 한복을 드레스로 재구성해, ‘한복 자락에 율곡의 가을 바람을 담다’라는 주제로 무대구성



조선시대 전통복식



풍류의 향연



파주 선현의 전통복식



파주 설화 한국무용



전통복식의 현대화

이밖에 서울과 경기도의 눈여겨봐야 할 한복 관련 활동

- **서울시 성동구** 서울새활용플라자 대기기획관 자원순환과: 6·1 지방선거 직후 수거한 현수막으로 한복 제작
- **서울시 용산구** 용산공예관: ‘한복문화주간’에 맞춰 명주 브로치 만들기, 아기 꽃신 만들기, 망수 팔찌 만들기 등 공예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종로구** 문화재청 문화정책국 무형문화재과: 6월 2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장애인이 편하게 입는 한복을 주제로 ‘함께 한복 입기 이야기 한마당 장애인 편’ 개최
- **서울시 종로구** 디지털조선일보와 프로모션그룹대가: 10월 5일 광화문광장 개장을 기념해, 코리어나호텔 벽면 전광판에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한복 패션쇼’ 영상 송출
- **서울시 중구** 전통자수문화예술협동조합: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인 4월 28일에 ‘전통 한복 퍼레이드’ 개최
- **경기도 남양주시** 보육정책과: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어린이비전센터, 별내동 장난감도서관,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화도읍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설맞이 영유아 한복 무료 나눔 행사’ 개최
- **경기도 부천시** 한문화진흥협회와 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조직위원회: 2월 15일에 세계 20여 개국의 주한 대사 및 외교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법고창신* 한복패션쇼 개최
- **경기도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용인시문예회관 처인홀에서 서울발레시어터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 공연. 기존의 작품과 달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안무와 한국 춤이 추가된 버전

* 법고창신[法古創新]이란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해 낸다.’라는 뜻의 고사성어



문화재청의 ‘함께 한복 입기 이야기 한마당 장애인 편’



용인문화재단의 ‘호두까기 인형’ 공연

2. 강원도·충청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와 강릉문화원은 문화재청이 공모한 ‘문화재 야행 夜行 사업’에 선정, 2016년부터 매년 ‘강릉대도호부관아’ 일대에서 ‘강릉문화재야행’ 축제를 펼치고 있다. 강릉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강릉문화재야행’은 옛 전통을 동시대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강릉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다. 그리고 규방 예술은 강릉이 자랑하는 전통 지역 문화 중 하나다. 특히 기하학적인 세련된 무늬는 강릉의 특징으로, 한복의 품격을 높이는 자수에 더해져 지역적 독창성을 발하고 있다. ‘오색달빛 한복패션쇼’*는 강릉을 대표하는 축제와 규방 문화가 만난 프로그램으로 2022년 9월 29일, ‘강릉문화재야행’ 행사의 하나로 개최됐다. 전 국민의 한복 입기를 독려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자 한복의 아름다움과 강릉 자수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 모델 5명과 성인 모델 22명이 한복 패션쇼 무대에서 활약



강릉문화재야행 포스터



시민모델이 활약한 ‘오색달빛 한복패션쇼’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는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한복일상, 일생한복’을 2022년도의 핵심 키워드로 정하고, ‘한복문화를 일상 문화로 향유할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한다.’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외암마을 ‘짚풀문화제’와 연계한 전통 혼례, 조선시대 ‘평생도’를 모티브로 한 주민참여형 한복패션쇼, 현충사와 연계한 ‘무관복식 전시’ 등 한복문화와 아산지역의 관광 자원을 잇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획했다. 행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외암마을, 저잣거리,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 등지에서 펼쳐졌다.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사업

지역 중심의 한복문화 확산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전남 곡성, 전북 남원, 경남 밀양, 부산, 충남 아산, 전북 익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과 통합됐다.

① 한복상설체험관 ‘한복상회’

- 소개: 한복상설체험관 설치, 운영
- 일시: 2022.05.~10.
- ※ 주말과 연휴 이용이 원칙. 단, 단체 사전 예약 시 평일에도 체험 가능
- 장소: 외암마을 저잣거리
- 내용: 한복을 입고 SNS 인증 시 기념품 제공.
총 1,620명 이용



외암마을 한복체험관 포스터

② 외암마을 상류층가옥 혼례청 ‘특별한 일상’

- 소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통 혼례 식당
- 일시: 2022.06.17.~10.23. 11:00~17:00
- 장소: 상류층가옥
- 내용: 신랑과 신부가 입는 전통 혼례복을 갖춰두고, 사전 예약한 사람들에게 전통 혼례식을 치러주는 프로그램. 500여 명 참여

③ 찾아가는 한복교육과 체험 ‘색동저고리’

- 소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과 외국인 대상 한복 체험교육
- 일시: 2022.05.~10.(총 8회)
- 장소: 관내 학교와 돌봄시설 등
- 참여: 순천향대학교 문화예술교육연구소 예술강사와 협업해 진행한 프로그램. 420여 명 수업 참여



한복 체험교육 프로그램 ‘색동저고리’ 참여자

④ 주민 한복 입는 날 ‘원데이 한복’

- 소개: 한복 입고, 한복한 일상 보내기 프로그램
- ※ 외암마을 보존회, 운영사무실, 해설사, 아산시 문화유산과 관계자들은 상시 한복근무복 착용
- 일시: (관계자) 2022.06.~10., (주민) 2022.6.22.~25., 10.21.~23.
- 장소: 외암마을 전체
- 내용: 1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한복을 입고 하루를 보내는 행사

⑤ 한복교육 세미나 ‘전통한복과 중국복식 비교’

- 소개: 한복의 역사와 문화를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소개한 강연
- 일시: 2022.07.27. 13:30~17:30
- 장소: 온양민속박물관 세미나실
- 내용: 한복과 중국의 한푸, 치파오 비교. 영화 파친코 속 한복 이야기. 60여 명 강연 참여



세미나 ‘전통한복과 중국복식 비교’

※ 협력: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 공자아카데미, 온양민속박물관

⑥ 한복 패션쇼 ‘외암마을 잔칫날’

- 소개: 지역 주민을 모델로 선발해 진행한 참여형 한복 패션쇼
- 일시: 2022.10.22. 14:00~18:00
- 장소: 외암마을 논두렁 특설무대
- 내용: 조선시대 ‘평생도’를 모티브로 과거급제, 전통혼례, 회혼례*를 주제로 기획. 시민 모델 35명 참여. 패션쇼 현장 관람객 1,000여 명

* 회혼례[回婚禮] 부부가 결혼 후 60년을 맞아 자녀의 번성함과 다복함을 기념하는 날



한복 패션쇼 ‘외암마을 잔칫날’



⑦ 무관 복식 전시

- 소개: 이순신 장군의 고장, 아산시의 특징을 살린 무관들의 복식 전시
- 일시: 2022.10.15.~16. 11:00~18:00
- 장소: 현충사 이순신 고택 앞마당
- 내용: 아산 현충사 ‘달빛 야행’* 연계 행사로 진행. 관광객 1,000여 명 관람

* 달빛 야행: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엄이 깃든 현충사에서 아름다운 가을밤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축제. 공연, 전시,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와 아산시 주최, 아산문화재단 주관



무관 복식 전시(축제 ‘달빛 야행’ 연계)

⑧ 한복 사진 공모전 ‘한복 평생도’

- 소개: 조선시대 ‘평생도’를 모티브로 기획한 한복 사진 전시
- 전시 기간: 2022.10.21.~23.
- 장소: 외암마을 민속관 놀이마당 일대, 온라인 전시 병행
- 내용: 평상시 또는 특별한 날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공모(돌잔치, 성년례, 전통 혼례, 회갑연 등). 수상자 총 49명



한복 사진 공모전 ‘한복 평생도’



⑨ 공연·체험 ‘온양별시’

- 소개: 온양의 인재를 뽑는 주민참여형 공연
- 일시: 2022.10.21. 13:30, 16:00(2회)
- 장소: 외암마을 민속마당 주 무대
- 내용: 조선시대 왕들이 온양 온천 행궁 때 진행한 별시를 모티브로 기획한 행사

※ 온양별시 응시자: 송남초등학교 3학년 25명, 아산시 관내 읍면동별 어르신 50명



공연·체험 ‘온양별시’

⑩ 한복 연계 전시 ‘전통 한옥에서 함께하는 민화’

- 소개: 섬유 디자이너와 협력 진행한 전시
- 일시: 2022.10.22.~23. 11:00~18:00
- 장소: 외암마을 민속관 상류층가옥과 정자
- 내용: 전통 가옥에 한복 천을 전시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전통 민화의 매력을 동시에 선보인 자리. 관광객 500여 명이 전시장 방문



한복 연계 전시 ‘전통 한옥에서 함께하는 민화’

⑩ 한복 공예체험 ‘한복 어울림’

- 소개: 한복에 어울리는 공예 소품 만들기
- 일시: 2022.10.22.~23. 11:00~18:00
- 장소: 외암마을 민속관 상류층가옥 마당
- 내용: 지역축제 ‘짚풀문화제’*와 연계해 진행한 소품(모시 천 컵 받침, 한복 비단 머리 끈과 머리핀) 만들기 프로그램. 350여 명 참여

* 짚풀문화제: 매년 10월 짚신과 이엉 엮기, 벼 베기, 장승 만들기, 연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와 국악 공연이 펼쳐지는 외암마을 축제



한복 공예체험 ‘한복 어울림’

이밖에 강원도와 충청도의 눈여겨봐야 할 한복 관련 활동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원주시협의회: 11월 17일에 강원감영에서 전통 한복 입기 캠페인 개최
- 세종특별자치시

한음오페라단: 세종시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한복의 삶’ 공연으로, 조은아 한복과 유혜리 무용단이 협력단체로 참여. 한국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노래와 춤 그리고 전통 한복이 융합된 무대. 특히 2부에서 기본 한복과 함께 궁중 복식이었던 당의, 혼례복, 대례복 등을 갖춰 입은 한복 전문 모델의 워킹으로 무대 장식
-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재단 공연기획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22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 공연(공주문예회관). 한복의 패턴을 변형한 의상이 돋보인 무대



한음오페라단 ‘한복의 삶’ 공연



공주문예회관 ‘내 이름은 사방지’ 공연



3. 경상도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에는 2021년 4월에 문을 연, 경북문화재단 산하의 ‘한국한복진흥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한복진흥원은 한복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설립된 한복 전문 공공기관으로, ‘전통의 계승과 보전’, ‘창의와 혁신’, ‘협업과 소통’을 기관의 핵심 가치로 두고, 해당 지역 내 한복 문화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북도는 한국한복진흥원을 중심으로 한복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2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에 전주시와 함께 선정돼, 한복 제작을 위한 시설 개선과 한복인들의 역량 강화, 한복 문화확산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 시키고 있다.

01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

①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사

2022년도 하반기, 경상북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됐다. 한국한복진흥원 2층의 약 161평을 창작소 공간으로 지정하고 2023년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를 벌여 ‘한복샘플제작소’, ‘한복창업개발소’, ‘한복패턴제작소’, ‘재단실’, ‘그래픽영상실’, ‘라이브커머스 촬영스튜디오’를 마련했다.

※ 경상북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홈페이지 <http://www.gbhms.or.kr/index>



한복샘플제작소



라이브커머스 촬영스튜디오

②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자라나는 세대에게 한복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 일은 한복의 앞날을 밝히는 ‘지역 한복 문화 창작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한국한복진흥원에서는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을 이끌 강사 2명과 보조강사 6명을 선발했다. 강사들은 전문강사 워크숍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시범 교육을 진행해 교수법과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등을 점검한 후 본격적인 수업에 나섰다. 경상북도 전역의 63개교, 150학급, 3,236명의 초·중·고 학생이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에 참여했고, 한복의 역사와 가치를 알고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경상북도 한국한복진흥원의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02 한복문화주간 사업

2022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한복진흥원 일원에서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있었다. 한복을 주제로 한 공연, 한복 상점, 이벤트, 그리고 체험과 교육이 펼쳐졌다. 온·오프라인 합산 약 1,400명이 함께 했고, 행사 소식을 알리는 언론보도가 60건에 달했다.

① 공연 ‘한복해프닝쇼’

- 소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운영
- 일시: 2022.10.17.~21.



한국한복진흥원 ‘한복문화주간’ 포스터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 옥상정원

- 내용: 공연 관람자 284명

구분	10.17.	10.18.	10.19.	10.20.	10.21.
장르	밴드, 발론쇼 대중음악	마술, 오페라 대중음악	마술, 버블	현대 무용	대중음악
출연진	편한 메아리 곰매직, 애플트리	애플트리, 인간토 이해웅	김민석	아나키스트	멜로잉 밴드



한복해프닝쇼



한복 입을 결심

② 교육 ‘한복 입을 결심’

- 소개: 한복인 및 한복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한복문화 산업 관련 강좌로, 9개의 주제로 진행
- 일시: 2022.10.17.~21.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 세미나실
- 내용: 강연 참여자 186명

구분	강의 주제와 강연자
10.17.	• 나의 브랜드를 고객에게 알리는 색깔있는 마케팅: 퍼즈유어셀프 대표 고명진 • 성공하는 클라우드 펀딩의 A to Z: 프로젝트 기억 대표 강태구
10.18.	• 경북의 전통섬유, 안동포: 하비스토리 대표 배진희
10.19.	• 한복과 디지털미디어 시대: 조선대학교 미술학 박사 이이남 • 한복, 그 아름다움의 가치성: 대경대학교 K-모델연기과/모델과 교수 주연희
10.20	• 전통한복과 최근 패션 전시 동향: 경북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박옥미 • 명화로 이해하는 복식(한복): 사비나 미술관장 이명옥
10.21.	• 결국, 한복이다(한복러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실현 노하우): 전통문화프로젝트그룹 한복여행가 단장 권미루 • 마음의 멋과 옷의 멋: (주)예문관 대표이사 박성진

③ 체험 ‘한복 탐구’

- 소개: 입고, 만지고, 즐기며 배우는 한복 체험
- 일시: 2022.10.17.~21.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 홍보 전시관 로비
- 내용: 284명 체험 참여



체험 ‘한복 탐구’

구분	10.17.	10.18.	10.19.	10.20.	10.21.
활동	• 한복 엽서 꾸미기 • 직조 놀이 • 한복 입고 사진찍기(즉석 인화)	• 한복 엽서 꾸미기 • 직조 놀이 • 한복 입고 사진찍기(즉석 인화)	• 한복 엽서 꾸미기 • 직조 놀이 • 한복 입고 사진찍기(즉석 인화)	• 한복 엽서 꾸미기 • 직조 놀이 • 한복 입고 사진찍기(즉석 인화) •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나만의 한복 찾기	• 한복 엽서 꾸미기 • 직조 놀이 • 한복 입고 사진찍기(즉석 인화) • 퍼스널컬러를 활용한 나만의 한복 찾기

④ 한복상점 ‘한복 사러 왔습니다. 고고마켓(古GO Market)’

- 소개: 입주기업과 함께 운영한 한복 플리마켓(Flea Market)
- 일시: 2022.10.17.~21.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 홍보전시관 로비
- 내용: 전통한복, 생활한복, 한복인형, 전통한복을 활용한 무대의상, 명주스카프, 명주가방, 배내옷, 모빌, 누에고치, 실크 볼, 뽕잎 분말 판매. 284명 마켓 이용



한복 사러 왔습니다. 고고마켓

03 신(新) 한복쟁이 발굴프로젝트 사업

‘신(新) 한복쟁이 발굴프로젝트’는(현역·예비) 한복 디자이너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 기술 개발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신진 디자이너 양성, 한국한복진흥원 입주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한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강의가 이어졌다.

① 한복 진로 캠프

- 소개: 경상북도 소재 대학의 한복(패션) 학과 학생, 또는 전문교육 기관 소속의 만 39세 이하 예비 한복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
- 일시: 2022.09.16.~17.(1박 2일)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
- 내용: 한복 산업계의 동향과 시장분석, 그리고 전통 섬유 제품과의 융복합 추진. 생산지시서 작성, 실무 기술 연습, 창업과 아이템 선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짜인 전문교육 운영. 예비 한복인 15명 참여



‘한복 진로 캠프’ 포스터

날짜	활동 내용	
9월 16일 (금요일)	1일 차 한복 산업 현장 학습	• 종로지역 한복 원단 시장 견학 • DDP 패션센터 현장 견학 • 경복궁, 인사동, 삼청동 중 탐방 • 원단, 부자재, 제작업체 탐방
9월 17일 (토요일)	2일 차 한복 제작 실무	• 조별 스타일 컨셉(오리지널, 모더니즘) 발표 • 컬러 맵, 디자인 맵, 패브릭 맵 구성 • 전문가 총평



‘한복 진로 캠프’ 한복 산업 현장 학습



‘한복 진로 캠프’ 한복 제작 실무

② 전통산업 입주기업 모집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소개: 한국한복진흥원 입주기업*의 전문성 강화 지원 프로그램
- 일시: 2022.10.~12.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
- 내용: 한복 창업 브랜드의 전략 수립부터 상품 기획과 물량 관리 방법, 마케팅 노하우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교육 실시. 또한 한복 소재와 패턴, 문양, 자수, 장식 등 한복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복 패션디자인 산업 발전을 지원. 입주기업이 생산한 한복은 성과 전시회를 열어 경북인들에게 홍보 진행



‘전통산업 입주기업’ 모집 포스터

* 한국한복진흥원 내 한복창작소 입주기업을 추가로 모집해, 총 4개 업체가 선정. 기존 입주 업체 5곳에 4곳이 더해져, 총 9개 업체가 한국한복진흥원에서 활동 중

경영 컨설팅	강의명	횟수	기간	수강인원
	나만의 한복 브랜드 기획하기(사업계획서 작성)	11회	10.04.~12.08.	10명
	전시 기획의 이해와 활용	14회	11.25.~11.29.	40명
	온라인 경영(상세페이지 제작)	15회	12.14.~12.23.	8기업
공간과 장비 지원	(공간) 사무공간, 작업실 및 공용시설 등 각종 특화시설 무상대관			
	(장비) 재봉틀, 인터넷 및 통신설비, 디지털 콘텐츠 장비 무상대여, 입주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장비 시스템 구축			
	(네트워킹) 입주기업 간담회 등 네트워킹 운영, 한복 창업부터 글로벌 지원까지 기업 성장환경 촉진			
	(기타) 한복 콘텐츠 분야 최신 정보 및 각종 지원사업 상시 안내			

③ 한복 제작 교육

- 소개: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한복을 알고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한복 제작 교육 진행
- 일시: 2022.09.20.~11.20.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

강의명	횟수	기간	수강인원
장인이 알려주는 한복 만들기	8회	09.20.~10.13.	10명
나 한복, 너 한복	12회	10.11.~11.18.	10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천연염색	12회	10.15.~11.20.	10명
전통문화 이해와 바느질	6회	10.08.~11.12.	10명

04 2022 전통복식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소개: 상주 명주, 안동 삼베, 영주 인견 등 전통 섬유와 한복 업계의 육성을 목적으로 기획
- 일시: 2022.02.~12.(11개월간)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
- 내용: 한복근무복과 일상 한복,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고 사업종료 시점인 12월에 한국한복진흥원 메인 전시홀에서 성과공유 전시회 개최



한복근무복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



‘일상 한복 개발 디자이너 모집’ 포스터

- 한복근무복 디자인 공모전: 한복근무복 착용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시제품 전시회를 열어 경북도청과 경북문화재단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부산디자인위크’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에도 참가해 한복근무복의 우수성 홍보. 출품작 46벌 중 12벌을 선정해 시상
- 일상 한복 개발 디자이너 모집 : 경상북도에 사업장을 둔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총 5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해 경상북도만의 전통과 정신을 표현할 수 있고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일상 한복을 디자이너당 3벌씩, 총 15벌 개발 ※ 2022년에 개발한 일상 한복은 2023년 ‘온라인 한복상점’에 입점, 판매

한복근무복 수상작



최우수 '경복의 정체성'

우리만의 당의라인

한복, 문화의 품격을 드높이다

한복의 모더니즘

지속가능한 한복근무복

일상 한복 디자이너별 완성작



금림(경주)

대승원(경주)

인우(안동)

한시(상주)

함소농업법인(영주)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사업에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사)부산섬유판산업연합회와 함께 5월부터 11월 까지 한복 관련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부산에 모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한복’을 매개로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부산시는 한복을 접하는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상시 체험교육을 운영했고, 한복문화주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개발해 진행했다.

2022년 부산광역시의 슬로건은 ‘한복 품은 부산’이다. 부산만이 가진 한복문화와 한복 스타일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함이다. 본 슬로건의 핵심 디자인은 축제에 활용하는 장식용 끈에(세부 사업별로 특징을 살린) 한복의 여러 이미지를 조합해서 개발했다.



(부산) 2022 한복문화주간 사업별 포스터

05 한복한 네트워킹 데이

- 소개: 한복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복한 창업 콘서트’ 개최
- 일시: 2022.06.08.
- 장소: 한국한복진흥원(현장과 온라인 동시 진행)
- 내용: 한복 업체 대표*를 초대해 이들의 노하우를 듣고 자유롭게 질의 응답하는 자리 마련. 현장 참여자 71명, 온라인 실시간 참여자 178명

* 강연자: 마케팅분야 신봉국(알브이핀 대표), 한복 분야 백다하미(다함한복 대표)



‘한복한 네트워킹 데이’ 강연자 신봉국



‘한복한 네트워킹 데이’ 강연자 백다하미

01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일반 사업

① 한복 트레일 홍보영상

- 소개: 부산의 의미있는 역사 공간과 대표 관광지에서 부산의 한복문화와 한복 스타일을 알리는 주제의 홍보영상 촬영
- 일시: 2022.09.~12.
- 장소: (촬영지) 범어사, 영화의 전당, 부산임시수도기념관, 광안리해수욕장, 문화공감 수정,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감천문화마을, 다대포해수욕장 등
- 내용: ‘오! 한복한 부산’이라는 제목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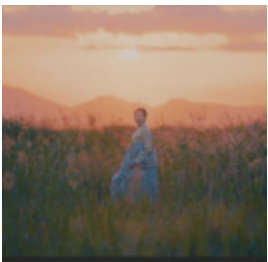
* 채널: 부산한복문화지역거점지원, 부산튜브, 한복진흥센터, 분우리웃, VISIT BUSAN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임시수도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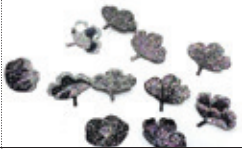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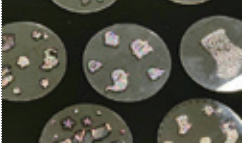
다대포해수욕장

② 한복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 소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메이커스페이스(부산패브릭메이커 랩)에서 한복과 침선 소품 1일 강좌 진행
- 일시: 2022.09.~10.
- 장소: 부산패브릭메이커 랩(4주 특강-창의복합룸, 1일 강좌-창의융합룸)
- 내용: 강의 참여자 총 299명

일시	프로그램명	내용	사진
4주 특강			
9~10월(총 4회)	불로침 배게 만들기	손바느질로 4주 동안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불로침 베게 제작	
9~10월(총 4회)	곰 인형 두루마기 만들기	전통한복 만들기 방식으로 곰 인형 옷을 지어 고품격 전통문화 상품을 완성	
9월(총 4회)	배자 만들기	전통 배자를 활용해 현대 의복과도 잘 어울리는 배자 만들기	
10월(총 4회)	곰 인형 당의 만들기	전통한복 만들기 방식으로 곰 인형 옷을 지어 고품격 전통문화 상품을 완성	
10월(총 4회)	민화 화중지왕 모란꽃 그리기	동양화 기법으로 완성하는 부귀의 상징 모란꽃 액자 만들기	

10월(총 3회)	맞깃배자 만들기	맞깃이 달린 전통 배자 제작	
1일 강좌와 한복 특강			
2022.09.05.	한복 앞치마 만들기	공업용 재봉틀로 액주름이 멋스럽게 들어간 원피스형 먼 앞치마 제작	
2022.09.14.	민화 연꽃 비단부채 만들기	연꽃을 민화 기법으로 그려서 전통 비단부채 만들기	
2022.09.16.	한복 여성 조끼 만들기	한복 원단에 고름을 달아 성인용 여성 조끼 만들기	
2022.09.23.	전통 매듭 마스크 줄 만들기	전통 매듭을 활용한 마스크 줄 만들기	
2022.09.28.	모란 막대형 방향제 만들기	주름지로 전통 꽃 모란이 장식된 막대형 방향제 제작	
2022.10.04.	배씨, 머리띠 핀 만들기	한복에 어울리는 배씨 머리띠와 핀 만들기	
2022.10.07.	한복 어른 조끼 만들기	한복 원단에 고름을 달아 간단한 성인 조끼 만들기	
2022.10.12.	도화 목걸이 만들기	비단 조각을 손바느질로 이은 복숭아 모양의 펜던트를 만들고, 매듭 끈을 꿰어 목걸이로 제작	
2022.10.13.	한복 속바지 만들기	한복 치마 속에 입을 인견 레이스 속바지 만들기	

2022.10.14.	미니 색동 복주머니 만들기	색동 원단과 비단 조각으로 두 가지 미니 복주머니 만들기	
2022.10.17.	자개 공예 꽃 브로치 만들기	나전을 이용해 꽃 모양의 브로치 제작	
2022.10.18.	토시 만들기	한복 원단으로 한복에 착용할 토시 제작	
2022.10.19.	민화 복숭아 비단부채 만들기	민화 기법으로 장수의 상징인 복숭아꽃을 그리고, 부채로 만들어 완성	
2022.10.24.	자개 공예 버선 컵받침 만들기	배경에 따라 자개의 색깔이 변하는 버선 모양의 투명 컵받침 만들기	
2022.10.26.	양단 앞치마 만들기	양단으로 품격 있는 앞치마 제작	
2022.10.11.	문광희 교수님 특강 '한복과 패션의 시각'	한복의 국제적 이슈에 대한 우리의 대처, 프리미엄 패션 콘텐츠가 되기 위한 전략 강의	
2022.10.27.	금기숙 교수님 특강 '한복의 조형미, 현재와 미래'	한복의 조형적 아름다움과 위상을 살펴보고 한복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강의	
-	곰 인형 한복 당의 교안 제작 (우리말, 영어)	고품격 전통문화 교안을 개발해, 온라인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말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제작	

③ 한복 전시회

(가) 1부 '꽃으로 다가온 한복'

- 소개: 혼례문화와 혼례복을 주제로, 네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전시. 부산의 전통 혼례복,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혼례복, 과감하고 예술적인 감각의 혼례복, 혼례에 쓰이는 소품까지 다양하게 출품

- 일시: 2022.09.01.~18.

- 장소: 부산패션비즈센터 1층 전시실

- 내용 ※ 부산시의 소통 캐릭터인 '부기'가 전시 개막식에 참여

첫 번째 이야기 '전통 혼례복'_단령, 활옷과 1960년대 이후의 다양한 예복 ▶



2022 한복전시회 1부 '꽃으로 다가온 한복' 온라인 전시 영상



◀ 두 번째 이야기 '시대가 사랑하는 단아한 혼례복'_양장지로 만든 부드럽고 은은한 색감의,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전통한복



세 번째 이야기 '소품에 담긴 상징과 실용성의 가치'_장수와 길상, 다복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혼례 소품 ▼



◀ 네 번째 이야기 '예술로 승화한 궁극의 미'_한복의 풍성한 실루엣과 장식성, 화려한 색 조합으로 제작한 다양하고 독창적인 혼례복과 예복





전시행사에 '부산 품은 부기' 방문



모두 한복하세요~

(나) 2부 '방령에 멋을 더하다'

- 소개: 다양한 방령의 형태와 그에 담긴 이야기가 펼쳐진 전시. 방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 마련
- 일시: 2022.09.22.~10.08.
- 장소: 부산패션비즈센터 1층 전시실
- 내용: 조선시대 중후기 출토 유물을 참고해 고증한 방령의, 방령포, 심의 등 출품. '한복 입어보기 체험존' 설치 운영



'방령에 멋을 더하다' 전시 모습



전시행사 '한복 입어보기 체험'

02 '한복문화주간' 연계 사업

① 한복하고 놀자 in 패패부산

- 소개: 부산 최대 섬유 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한복을 전시하고 한복 입기 및 만들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일시: 2022.10.20.~22.

- 장소: 벡스코 제1전시장 2·3홀

- 내용: 30개 한복업체 참여, 10,074명 관람

구분	내용
한복 전시 존	전통한복 소재와 다양한 양장지로 제작한 은은한 색감의 웨딩 한복
한복 입어보기 체험 존	신한복, 궁중 한복, 삼국시대 한복 등 다양한 우리 옷 입어보기
한복 상점 존	부산을 대표하는 한복 업체가 부산의 매력을 담은 한복 판매
한복 소품 만들기 존	한복과 어울리는 소품 만들기_파리꽃 브로치, 귀주머니, 도토리 모빌, 색동 버선 향주머니, 복숭아 3색 키링, 은사양단 복주머니 ※ 현장 접수

② 한복하고 놀자 in 부산진성

- 소개: 부산진성은 임진왜란 때 부산진鎭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부산광역시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유산. 이 역사성 깊은 장소에서 궁중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는 행사 개최. 어린이들이 조선통신사가 돼 행진하는 등 한복을 입고 부산진성을 둘러보는 특별한 경험 제공
- 일시: 2022.10.19.~23.
- 장소: 부산진성 한복문화관
- 내용: 궁중 한복인 '적의' 착용 방법 소개, 어린이 조선통신사 행렬, 전통한복과 신한복 입어보기와 전통 놀이 체험. 관광객 약 450명 참여



'적의' 착용 방법



어린이 조선통신사 행렬



전통한복 입어보기



전통 놀이 체험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는 2021년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사업에 연속 선정됐다. 밀양시가 내세운 2022년도의 핵심 가치는 ‘이음’이었다. 관광을 잇고, 세대를 잇고, 생활을 이어, 인물과 문화까지 아우르겠다는 밀양시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음’을 주제로 한복 체험과 패션쇼, 토크 콘서트, 한복 전시, 한복 리폼 교실 등이 밀양의 대표 관광지인 영남루를 거점으로 다채롭게 펼쳐졌고, 밀양만의 독특한 한복문화를 지역민은 물론 밀양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알렸다. 또한 밀양의 예술인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

※ 한복문화 거점도시 밀양시 홍보영상 <https://youtu.be/jv119OrWLoM>



밀양시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이음	밀양아리랑 삼색 투어	‘한복 여행+전통 공연+한식’을 모두 경험하는 투어 프로그램 - 코스: 밀양역-금시당-월연정-영남루-고택 09.24/10.22./11.11. 진행, 90명 참여
	입어보자 한복! 찍어보자 구석구석!	한복 체험 연계 SNS 인증샷 이벤트
세대이음	시민과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만든 한복 패션쇼 - 시민 모델 모집 및 선발: 08.19.~09.03. - 시민 모델 워킹 교육: 09.17.~10.22. - 한복 패션쇼 개막: 10.23. - 시민 모델 30명 활약, 약 1,000명 관람
	한복 복식 체험	- 관광객과 시민 대상 전통 복식 체험 2022.08.19.~20./09.22.~25. 매주 토·일, 3,507명 참여
	한복 바로 입기 도전!	SNS를 활용한 가족과 단체 챌린지
생활이음	우리 옷 한복 입기 활성화	(밀양시청)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한복근무복 입고 출근하기
	한복리폼 교실	- 오래된 한복을 재활용하여 생활복으로 리폼, 28명 참여 1기 교육: 2022.07.06.~09.07. 09:30~12:30 2기 교육: 2022.08.06.~09.14. 14:00~16:00
인물이음	해설이 있는 한복전시관	역사 속 밀양의 한복과 규방 공예 전시
문화이음	한복 토크콘서트	한복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공연과 함께하는 한복 이야기	밀양의 대표 공연과 연계해, 한복문화와 전통문화 향유



시민과 함께하는 한복 패션쇼



밀양시 ‘한복문화주간’

이밖에 경상도의 눈여겨봐야 할 한복 관련 활동

- 경상북도** 메타버스과학국 메타버스혁신과: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가치를 내걸고, 한글·한식·한옥과 함께 한복의 빅데이터를 구축해 메타버스 한류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김해서부문화센터 서부문화팀: 7월 9일 김해서부문화센터에서 가족 인형극인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극단 봄연출) 공연. 재단과 가위질, 바느질, 다림질 등 한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배넛저고리, 돌복, 혼례복, 상복 등 다양한 한복을 소개하는 인형극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소개

주인공은 평생 옷을 짓고 살아온 한복 가게 할머니. 가갯세를 내지 못해 조수인 고양이, 쥐들과 함께 걱정하던 중, 큰 상금이 걸린 한복 경연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 할머니의 평생소원이자 소중한 추억이 담긴 혼례복을 만들기로 하는데...

- **경상남도 진주시** 종합민원실: 향토산업인 실크 산업과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11월 30일 자발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국제쿨산업전(K-ICE 2022)’에서 한국환경산업협회의 새활용 한복 전시
- **부산광역시 동구** 동구구청 2030기획단 미래전략사업팀: 3월 15일에서 5월 6일까지, 재봉틀공방 ‘소잉 스페이스(Sewing Space) 틀’*에서 ‘한복·재봉틀 교육프로그램’ 개강. 수업은 초급(4회)과 중급(8회)으로 나뉘며, 기본 재봉틀 조작법에서부터 의복 제작까지 다양한 커리큘럼 마련

* 소잉 스페이스 틀: 래추고[來追古]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부산진성 동문 쪽 재봉틀거리(자성로103번길 16)에 있던 오래된 여관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설



김해문화재단의 가족 인형극 ‘연두저고리와 다홍치마’



소잉 스페이스 틀에서 진행되는 ‘한복·재봉틀 교육프로그램’



4. 전라도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사업에 선정돼 8월부터 11월까지, 약 3달 동안 한복과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를 벌였다. 행사는 미륵사지와 국립익산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졌고, 총 20,409명이 모여 한복을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유적지구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이 있는 백제 왕도다. 우리나라 4대 고도 중 하나로, 삼국시대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다. 익산시는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지역의 특색을 살려 ‘백제 옷’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입어왔는지, 그리고 그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재미있고 독특한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알렸다.



익산시 ‘한복문화주간’ 포스터

01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일반 사업

① 한복 영상 공모전

- 소개: 한복 문화 활성화를 위해 익산에서 한복을 입고 촬영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 일시: (공모일) 2022.09.19.~09.29.
- 장소: 온라인 접수
- 내용: 수상작 10편을 뽑아, 20~100만 원의 상금을 차등 수여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 유튜브에 영상 공개



‘한복 영상 공모전’ 포스터

	구분	영상 작품명
장편 부문	최우수상	어진 왕비, 익산 납시오
	우수상	익산 구룡마을 대나무 숲길
	장려상	한복에 판소리 실어 익산을 돌아 서동축제에서 만나요
	입상	궁궐의 정원처럼
단편 부문	우수상	나만 알고 싶은 익산
	우수상	아기 동자의 외출
	장려상	좌충우돌 결혼일기
	장려상	정대감 금마 나들이
	장려상	한복 입고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장려상	백제 한복 디퓨저 만들기



「어진왕비, 익산 납시오」
익산문화관광재단
2022 한복문화주간
영상콘텐츠 공모전 1위
최우수상 수상작

- 내용: 매마수 한복 입기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 한복 일러스트레이터 흑요석(우나영) 작가와 협업해 ‘백조 왕자, 백제 공주’ 한복문화주간 홍보 포스터 제작



매마수 한복입기 홍보 동영상



흑요석 협업 ‘백조 왕자, 백제 공주’

② 품나놀다(품다, 나다, 놀다) 전시와 전시 연계 체험

- 소개: 생명 탄생의 의미와 소중함을 전하는 어린이 한복과 소품 전시
- 일시: 2022.10.07.~10.30.
- 장소: 국립익산박물관 기획 전시실
- 내용: 태교, 임신, 출산, 첫돌과 관련된 한복 및 전통 섬유 공예품 전시. 16명의 작가가 107건의 작품 출품. 5,051명의 관람객 방문. 전시 연계 체험활동(바람 주머니와 땡기 만들기) 운영



전시 ‘품나놀다’



전시 ‘품나놀다’ 연계 체험프로그램

③ ‘매마수’ 한복 입기 캠페인 및 홍보영상 제작

- 소개: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한 영상물 제작
- 일시: 2022.8.~11.
- 장소: 익산문화관광재단, 익산 미륵사지 일원

④ 한복 사진관

- 소개: 한복 문화를 경험하고 익산을 알리는 ‘사진관(셀프 포토부스)’ 설치
- 일시: 2022.10.08.~10.30. 주말 운영, 10:00~16:00
- 장소: 국립익산박물관 1층 로비
- 내용: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한복과 소품 대여. 약 600명 이용



한복 사진관

02 ‘한복문화주간’ 연계 행사

① 한복 명사 초청 콘서트

- 소개: 전문가에게 듣는 ‘백제의 장신구, 머리 장식부터 목걸이까지’ 강연
- 일시: 2022.10.22. 10:30~14:00
- 장소: 국립익산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지하 세미나실

- 내용: 총 347명(현장 37명, 온라인 조회 310명) 참여

구분	내용
강연1	장신구에 스민 백제의 아름다움(발표 이한상, 토론 오선희)
강연2	익산 백제와당의 원류와 아름다움(발표 유창중, 토론 이광표)
토크콘서트	미륵사지 한복 패션쇼 ‘백조왕자, 백제공주’ 어떻게 감상할까요?

② 한복 패션쇼

- 소개: ‘백조왕자, 백제공주’, 익산 백제 시기의 무왕과 사택왕후를 모티브로 한 백제 복식 패션쇼. 원광디지털대학교 개교 20주년 한복 패션쇼 연계
- 일시: 2022.10.22. 16:00~17:00
- 장소: 미륵사지 일원
- 내용: 채시라, 알리, 류태준 외 전문모델 27명과 익산 시민 모델 70명 활약. 현장 참여자 약 12,000명, 온라인 접속자 565명



한복 패션쇼



'한복 패션쇼' 포스터

구분	내용
1막	익산 백제의 미래를 암시하는 백제의 대표적 역사 인물소개
2막	서동과 사택 가문에 관한 역사적 사실, 무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배경 암시
3막	무왕 재위 기간 익산 천도를 위한 역경, 그리고 미륵사를 세워 백성의 안위와 깨달음을 기원한 의식 소개
4막	고대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예술했을 꽃피운 백제문화가 미래 익산을 통해 부활, 2022년 10월 22일 무왕의 천도 프로젝트가 완성됨을 상징하는 피날레

③ 한복과 명상

- 소개: 한복을 입고 미륵사지 일원에서 진행된 명상 프로그램
- 일시: 2022.10.23. 10:00, 13:00, 16:00
- 장소: 미륵사지 일원
- 내용: 싱잉볼 명상 체험. 총 43명 참여



④ 탑돌이 체험

- 소개: 탑을 돌며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
- 일시: 2022.10.23. 11:00, 14:00, 17:00
- 장소: 미륵사지 일원
- 내용: 보자기를 든 육법공양자*와 함께 미륵사지 석탑을 도는 체험프로그램

* 육법공양[六法供養]: 향, 등, 꽃, 과일, 차, 쌀을 부처님께 바치는 의식



탑돌이 체험



⑤ 전통 보자기와 현대 보자기 아트 체험

- 소개: 관광객들이 전통 매듭을 배우고 익히는 보자기 아트 체험
- 일시: 2022.10.23. 10:00, 11:00, 13:20, 14:00, 15:20, 16:20
- 장소: 미륵사지 일원
- 내용: 매듭법으로 보자기 만들기. 총 75명 참여(사전 접수 43명, 현장 접수 32명)

03 부대 행사

① 익산, 아름다운 순례길

- 소개: 8종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 일시: 2022.10.22.~10.23. 10:00~18:00
- 장소: 미륵사지 일원
- 내용: 총 539명 참여

주제	내용
4대 종교 스피드 퀴즈	• 익산의 4대 종교를 문화다양성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퀴즈 프로그램 • 익산과 4대 종교 중 하나를 택해 주제와 관련된 스피드 퀴즈 진행
전통 민속놀이	• 전통 민속놀이 상시 운영 • 300초 안에 임무를 수행하는 릴레이 형 프로그램
한복 체험	•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통해 다양한 한복을 골라 입고, 순례길을 즐기는 체험프로그램
한복 맛 쿠키 만들기	•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다양한 색깔의 크림으로 한복 모양 쿠키를 꾸미고 먹어보는 체험프로그램
미륵사지 석탑, 워터볼 만들기	• 익산의 보석과 미륵사지 석탑을 주제로 워터볼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백제무왕, 왕관 만들기	• 한복에 잘 어울리는 백제 머리 장식으로 금관을 꾸미고 써보는 백제 이해 향상 프로그램
전통 과자, 쌀강정 만들기	• 우리나라의 주식재료인 쌀을 재료로 다양한 색을 입히고 뭉쳐 쌀강정을 만들어 보는 체험프로그램
전통차 체험	• 익산에서 재배한 유기농 국화로 우린 국화차와 쌀쌀한 날씨에 맞는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미륵사지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전통차 체험프로그램



익산, 아름다운 순례길 '전통 민속놀이'



익산, 아름다운 순례길 '백제무왕, 왕관 만들기'

② 세계유산에서 펼쳐지는 국악 힐링 콘서트

- 소개: 미륵사지 연못 일원에서 세계유산과 어울리는 퓨전국악 콘서트 개최
- 일시: 2022.10.22. 15:00, 17:00 / 2022.10.23. 12:00, 15:00
- 장소: 미륵사지 연못
- 내용: 국악밴드 '예술이 꽃피우다'의 공연으로 '쑥대머리', '시대를 초월한 마음' 등 연주



국악 힐링 콘서트



③ 익산학 연구 '지역학 시민 특강'

- 소개: **익산의 백제 유산** 활동지를 활용한 지역학 시민 특강과 미륵사지 탐방
- 일시: 2022.10.22.~10.23. 11:30, 14:00, 15:00
- 장소: 미륵사지 일원
- 내용: 총 77명 참여

내용
하나. 인사와 소개
• 간략한 사업 소개 및 진행 강사 인사
• 『익산의 백제 유산』 활동지 제공
둘. 익산의 재발견-미륵사지 이야기
※ '미륵사지' 이해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 세계유산이란?
• 세계유산 미륵사지(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청동합 등)
• 미륵사지가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이유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는 ‘4한^韓’의 도시로 일컬어진다. ‘4한’의 ‘한’은 한복·한지·한식·한옥을 가리킨다. 4한이라는 말에서, 한복이 전주시의 중요한 문화자산이고, 전주시민들이 얼마나 한복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 전주시는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에 경상북도와 함께 선정됐다. ‘한복창작소’ 개소로, 한복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복인과 비한복인을 연결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전주시의 의미있는 행보가 앞으로도 기대된다.

01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

①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공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한국전통문화전당’ 내 창작소는 1층·2층·5층에 약 275평의 규모로 조성됐다. 한복 온·오프라인 스토어와 스타트업 생산자를 위한 ‘한복 팝업스토어’, 한복 관련 전시·공연·체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한복놀이터’, 한복 제작 기술 교육 및 예비한복인 양성을 위



전주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한 ‘침선방’, 한복의 신소재를 연구하고 한복 제작을 돕는 ‘한복 창업 개발소’, 디자인을 도식화하는 ‘한복 패턴 제작소’, 한복 디자인 및 상품을 3D 카드 형식으로 변환하는 ‘그래픽 영상실’, 영상과 화보 촬영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촬영 스튜디오’를 갖췄다.

※ 전주시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홈페이지 <http://www.jhccs.or.kr>



②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한복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8명의 강사를 선발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옷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뜻깊은 교육을 수행했다. 2022년도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참여자는 전주시 내 50개교, 151학급, 3,509명에 달했다.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은 전문 교수법 훈련을 받은 강사팀이 초·중·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학급 단위 교육이다. 학생들은 한복에 관한 이론 수업을 들은 후, 한복을 갖춰 입고 학년별로 개발된 체험활동을 즐겼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내가 가진 비석과 똑같은 한복 그림이 있는 비석을 쓰러트리는 ‘비석치기’, 초등학교 고학년은 옷을 던지고 한복 문제를 풀어야 전진할 수 있는 ‘옷놀이’, 중고생은 한복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리는 ‘한복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한복을 친근하게 느끼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한복문화 교육’ 현장과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그린 그림

02 한복문화주간 사업

① 가족과 함께하는 한복문화 교육

- 소개: 침선 장인에게 직접 배워보는 한복 이야기
- 일시: 2022.10.22.~23. 3회 운영
-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
- 내용: 가족과 함께 한복의 역사와 특징 등을 배우고 직접 한복을 입어보는 프로그램.
총 44명 참여



가족과 함께하는 한복문화 교육

② 한복 포토존 ‘입고찍고’

- 소개: 한복과 어울리는, 한복 소재를 사용한 포토존 설치
- 일시: 2022.10.17.~23.
-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
- 내용: 한복을 입고 멋진 배경과 함께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마련.
행사장 방문객을 위한 사진 인화 서비스 제공



한복 포토존 ‘입고찍고’



③ 한복한판

- 소개: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즐기는 프로그램 운영
- 일시: 2022.10.22.~23.
-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 무대
- 내용: 한복패션쇼 시작 전 무대를 활용해 전통 놀이 대회 진행



한복 입고 전통 놀이를 즐기는 ‘한복한판’



④ 드라마 한복 체험과 브로치 만들기

- 소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한복 입기 체험과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제공
- 일시: 2022.10.17.~23.
-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
- 내용: 드라마나 영화 속 궁중 한복, 혼례 한복 등 일반인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각종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및 전통 주머니 모양의 브로치를 만들어 보는 활동



드라마 한복 체험



브로치 만들기

⑤ 한복 무대 프로그램 ‘한복한 마당’

- 소개: 일상 한복을 주제로 기획한 공연형 패션쇼와 한복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콘서트 개최
- 일시: 2022.10.22. 한복 콘서트 15:00, 한복 패션쇼 19:00
-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앞마당 특설무대
- 내용: 전주의 젊은 한복 디자이너 ‘황이슬’의 한복 패션쇼와 ‘고니밴드’, ‘김성수모던재즈 트리오’의 음악 콘서트



한복 무대 프로그램 ‘한복한 마당’



⑥ 한복 무료 대여

- 소개: 다양한 한복을 입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한복 대여 프로그램 운영
- 일시: 2022.10.22. 13:00~21:00
- 장소: 한국전통문화전당 1층 소름 예정 공간
- 내용: 한복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한복을 무료로 대여. 총 78명 이용



한복 무료 대여



03 세 살 한복 여든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창작소 선정 이전부터 ‘한복 원복’ 확산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들이 유년기부터 한복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다. 한창 성장하는, 활동성이 큰 어린이들에게 움직이기 편하고, 친 자연소재로 만들어진 한복 원복을 입히는 것은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어려서부터 한복을 친숙하게 접한 어린이들이 20년 후, 우리 사회의 한복문화 확산을 주도할 강력한 힘이 되길 기대한다. 한복 원복은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해, 하복 1종(상, 하의) 50벌과 동복(상, 하의, 두루마기) 1종 50벌을 개발한 뒤, 전주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무료로 보급했다.



‘세 살 한복 여든까지’ 한복 원복 보급

- 하복: 목 부분을 당코 깃 모양, 소매 끝을 삼색(완전성 상징) 색동으로 디자인
- 동복: 바지 소재를 코르덴으로 해서 따뜻한 느낌으로 제작
- 두루마기: 전통적인 형태로 만들되, 누빔으로 방한 효과 증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은 2022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 지역 중 하나로,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째 연속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한복에 대한 열기가 전국에서도 높은 편이다. 2022년도 곡성의 ‘한복문화주간’ 주제는 ‘곡성, 한복을 입다’였다. 곡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과 레저문화센터에서 지역 행사인 ‘장미축제’, ‘심청어린이대축제’와 연계해 ‘한복 입은 곡성’을 그리며, 다채로운 한복 전시, 체험, 교육, 이벤트 등을 벌였다.



곡성군 ‘한복문화주간’ 포스터

① 한복문화거리 조성

- 소개: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
- 일시: 2022.05.21.~06.26.
- 장소: 곡성군 내 거리
- 내용: 한복 전시회, 한복 무료 대여소, 한복 전통 놀이 체험관, 한복 포토존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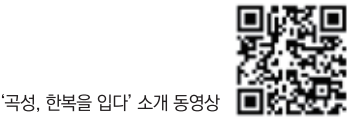
한복문화거리 조성

② 한복 전시회 ‘한복 시대를 느끼다’

- 소개: 시대별, 테마별 한복 전시
- 일시: 2022.05.21.~06.26.
- 장소: 섬진강기차마을 입구



한복 전시회 ‘한복 시대를 느끼다’



‘곡성, 한복을 입다’ 소개 동영상

- 내용: 시대별 저고리, 속곳, 철릭 원피스 등 전통한복에서부터 신한복까지 한복의 변천사를 소개한 자리. 관람객 3,200여 명 ※ 광주대 안명숙 교수작품

③ 한복 전시회 '장미꽃 한복을 품은 정원'

- 소개: 온실 속에서 선보이는 한복
- 일시: 2022.10.15.~30.
- 장소: 섬진강기차마을 장미 유리 온실
- 참여: 곡성의 특색을 담은 장미꽃 한복을 온실에 전시, 포토존 마련. 관람객 40,000여 명



한복 전시회 '장미꽃 한복을 품은 정원'

④ 한복 인형 전시회

- 소개: 한복을 입은 인형 전시
- 일시: 2022.05.21.~06.26.
- 장소: 가정역 곡성아트빌리지
- 내용: 전통한복, 신한복을 입은 미니어처 인형을 소개하는 자리. 관람객 1,500여 명



한복 인형 전시회

⑤ 한복 무료 대여소 운영

- 소개: 곡성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 정문 입구에 한복 무료 대여소 설치
- 일시: 2022.05.21.~06.26., 10.15.~30.
- 장소: 섬진강기차마을 입구



한복 무료 대여소

- 내용: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한복을 무료로 빌려주는 프로그램. 기간 중 한복을 입으면 섬진강기차마을 무료입장

⑥ 한복 패션쇼

- 소개: 한복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는 패션쇼로 3가지 주제로 구성(전통 한복, 장미 한복, 웨딩 한복)
- 일시: 2022.05.28.~29. / 10.29.
- 장소: 섬진강기차마을
- 내용: (5월) 전통한복과 한복을 현대적 재해석한 장미한복, 웨딩 한복의 런웨이. 광주여자대학교 학생 22명이 모델로 활약, (10월) 어린이 한복 모델의 런웨이



한복 패션쇼

⑦ 한복로드 함께 거닐다

- 소개: 심청황후 행차 공연과 함께 펼쳐진 한복 퍼레이드
- 일시: 2022.05.28.~29. 13:00 시작
- 장소: 섬진강기차마을
- 내용: 한복을 입고 황후가 된 효녀 심청이와 함께 곡성군 일대를 행진. 행사 참여자 총 240여 명(공연단 50명, 한복 퍼레이드 참가자 40명, 일반 관광객 150여 명)



심청황후 공연과 한복 퍼레이드



⑧ 찾아가는 한복체험 ‘한복입고 인생샷’

- 소개: 한복을 입고 사진도 무료로 찍는 이벤트
- 일시: 2022.09.24.
- 장소: 옥과면 옥과초등학교 운동장
- 내용: 한복 착용에 긍정적인 인식과 친밀감을 높이고자 진행. 앵삼, 당의, 도포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종류의 한복 대여



한복입고 인생샷

⑨ 한복 아카데미

- 소개: 한복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일시: 2022.07.~09. 12회
- 장소: 레저문화센터
- 내용: 한복 인형, 장신구, 조각보 등을 제작해 10월 17일부터 30일까지 섬진강기차마을 저잣거리에 전시. 수강생 15명



한복 아카데미

전라남도 남원시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남원시가 정한 2022년도의 주제는 ‘한복도시 남원, 꽃을 입다’로, 꽃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한복에 비유해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남원시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과 연계된 ‘꽃’ 같은 한복, 남원에서 한복을 만나고 느끼는 경험이 뜻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원시 '한복문화주간' 포스터



남원시 한복문화주간(광한루)

① (꽃을 심다) 한복 리폼 프로그램 ‘한복의 기억 새로운 ∞ 무한대’

- 소개: 입고 보는 한복을 넘어, 추억과 세대를 이어주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한복 리폼 프로그램
- 일시: 2022.09.02.~10.22.
- 장소: 예원루
- 내용: 사전 신청을 통해 40명을 선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락치마·손목 파우치·앞치마·가방·반려견 한복 중 한 가지로 리폼. 소중한 사연이 담긴 한복의 현대적 변용



‘꽃을 심다’ 한복 리폼 참가자 모집 포스터

② (꽃이 되다) 한복과 아름다운 장신구

- 소개: 한복 입은 모습을 더욱 빛나게 하는 머리 장식 프로그램 운영
- 일시: 2022.09.17.~10.23. 10:00~11:30, 13:30~16:30
- 장소: 화인당

- 내용: 사전 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복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을 정하고 장신구로 화려함을 더하는 체험. 참여자는 광한루 무료입장(132명)



‘꽃이 되다’ 머리장식 사례1



‘꽃이 되다’ 머리장식 사례2



‘꽃이 되다’ 머리장식 사례3

- ③ (꽃을 보다) 한복문화 공연
 - 소개: 한복과 공연의 만남으로 매력적인 볼거리 제공
 - 장소: 예루원 앞마당
 - 내용: 공연자 전원이 한복을 갖춰 입고 등장한 국악 음악회

일정	공연명	공연자
10.21.	衣飮[의음] 잇다	남원시립국악단
10.22.	K댄스 한복을 입다	팀 에이치 외
	우리 옷, 소리의 맛을 입다	국립민속국악원
10.23.	K댄스 한복을 입다	남원국악예술고, POPCON, TAGG



‘꽃을 보다’ 한복문화 공연 衣飮 의음 잇다



‘꽃잎이 날리다’ 퍼포먼스

- ④ (꽃잎이 날리다) 퍼포먼스
 - 소개: 남원시의 스토리 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참여형 퍼포먼스 행사
 - 일시: 2022.10.15.~16., 10.22.~23.(4일간)
 - 장소: 광한루와 남원에촌 일원

- 내용: ‘흥부네 혼사준비’, ‘예촌 the 사랑’ 두 가지로 진행. 웃음을 통해 한복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관광객들을 오랫동안 남원시에 머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 돌발퀴즈와 게임, 선물 증정 이벤트 운영. 관람객 약 600명

⑤ (꽃 사이를 걷다) 한복 전시회

- 소개: 한복에 표현된 꽃을 주제로 전통 한복과 현대 한복을 선보인 전시
- 일시: 2022.10.18.~11.13.
- 장소: 화인당 2층 ‘호호’
- 내용: 백화포 白花袍라고 불렀던 전통 혼례복인 활옷, 김연아와 협업해 제작된 모란과 연꽃을 수놓은 패션 한복 등 다섯 작품 출품. 꽃이 가득한 한복에 화려한 화관 머리 장식을 더하고, 궁중 혼례에 사용한 궁중 인문보자기와 고가구를 함께 전시



‘꽃 사이를 걷다’ 한복 전시회

⑥ (꽃을 찍다) 한복 사진 공모전

- 소개: ‘세대 간 한복을 매개로 소통하기’를 목표로 기획된 사진 공모전
- 일시: (공모일) 2022.07.20.~10.23.
- 장소: 인스타그램, 네이버 온라인 접수
- 내용: 남원을 배경으로 한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사진 발굴. ‘한복 도시 남원’의 인지도 향상



(꽃을 찍다) 한복 사진 공모전 수상작

주제	내용	가점 조건
남원 배경 한복 사진	• (공모전 시작 이후 촬영된) 남원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개인 SNS ‘좋아요’ 22건 이상일 경우
남원을 배경으로 찍은 오래된 사진을 찾고, 사진 속 같은 장소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 조부모, 부모 또는 친구와 찍은 과거 사진과 최근 같은 장소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두 장 모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일 경우 사진 속 인물들의 동작이 같을 경우 두 사진 속 인물의 나이 차가 50세가 넘는 경우
시간여행 합성사진	• 남원에서 촬영된 과거의 사진과 요즘 촬영한 사진을 합성해 한 장으로 완성된 사진	인스타에 게시한 사진일 경우

전라남도 순천시

우리나라 순천시와 일본의 기타큐슈시 北九州市는 ‘2021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돼, 1년간 문화예술 교류사업을 벌였다. 문화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다. 순천시는 한국과 일본이 전통 복식 문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한복 패션쇼 in 기타큐슈’는 21년도의 후속 사업으로, 양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일본에 알리고 그 감동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한복 패션쇼 in 기타큐슈

- 소개: (일본 측) 기타큐슈 전통의상 전문가, 지역 음악가가 참여한 일본 전통 혼례 의상 퍼포먼스와 전통악기 공연, (한국 측) 순천의 김혜순 한복 명장이 제작한 궁중 복식과 일상 한복 40여 벌을 활용한 패션쇼 연출. 한국 모델 22명과 일본 모델 21명이 한복을 입고 등장
- 일시: 사업 진행 2022.01.~12. / 패션쇼 행사 2022.11.17. 18:30
- 장소: 기타큐슈 쿠로사키히비신홀



일본 전통 혼례 의상 퍼포먼스



한국 한복 패션쇼

이밖에 전라도의 눈여겨보아야 할 한복 관련 활동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공유센터*: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여 가능한 ‘한복공유방’ 운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드라이크리닝 후 반납이 원칙

* 광주광역시 민간 위탁운영

전라북도 전주시 버스정책과: 추석을 맞아 9월 10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사들이 생활한복을 입고 운행하는 ‘한복데이’ 실시. 전주시 내 버스 기사 중 180여 명(약 23%)이 동참

전라북도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전주시가 제작한 웹툰 ‘전주이가민박全州李家民宿’이 7월 6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중국 최대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快看’에 연재. 전주에 여행을 온 중국 여성이 한국 남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전주시의 문화자산인 한옥마을은 물론 객리단길, 전주향교와 같은 관광명소와 전주비빔밥, 전주콩나물국밥 등 등장

전라북도 전주시 일자리민생경제과: 5월 24일, 전라북도 주최로 30년 넘게 지역을 지킨 우수 소상공업체를 지원하는 ‘천년명가 육성 사업’에 전주시에 위치한 ‘여밌선한복’ 선정

※ 천년명사로 선정된 업체는 ‘경영지원(업체별 최대 20백만원)’, ‘홍보지원(방송사 연계 업체별 TV 홍보영상 제작·송출)’, ‘마케팅 지원(인증서 및 인증현판 제공, 주변 관광지 연계 관광상품화)’, ‘멘토링 지원(전담 멘토 매칭)’, ‘금융지원(특례보증 100백만원, 이차보전 지원(2~3%))’의 혜택 수여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2월 23일, 전주시의 ‘신애자한복’을 ‘백년가게’로 선정

※ 백년가게로 선정된 업체는 ‘시설개선(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등)’, ‘판로지원(기획전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0.4%p)’ 등의 혜택 수여



전주시 제작 웹툰 ‘전주이가민박’



2022년도 한복 관련 사업

1.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한복의 생산, 전시, 판매, 체험 기능을 두루 갖추고, 한복인(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의 활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융합형 공간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첫해인 2022

년도에는 사업계획서와 현장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국전통문화전당’과 경상북도의 ‘한국한복진흥원’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가) 한복 창작소 공간 건립에 착수했고 (나) 한복인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으며 (다) 한복교복과 한복근무복 도입, (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한복문화 교육(50개 학교, 150회 이상)을 수행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로고

2. 한복 문화 지역 거점지원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한 한복문화콘텐츠 육성을 통해 한복문화 향유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6개 지자체를 ‘한복 문화 지역 거점’으로 선정했다. 이 중 4개 지자체(전남 곡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밀양시, 부산광역시)는 연속 지원, 2개 지자체(충남 아산시, 전북 익산시)는 신규 지원 지역이다.

3. 한복 해외교류

한국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외공간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한복 문화를 바로 알리고자 한복꾸러미와 교구를 제공했고,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지원했으며, 해외 대학에 강사를 파견해 한복 교육을 진행했다.

- 한복꾸러미 전시와 체험 교구 지원: 주브라질 한국문화원,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홍보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주홍콩 한국문화원,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주폴란드 한국문화원, 주헝가리 한국문화원, 주아프리카공화국 한국문화원,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문화원

- <한복문화주간> 연계 행사지원: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전시, 패션쇼, 국악 공연, 판매점), 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패션쇼, 한복 체험), 주인도 한국문화원(전시, 체험, 교육, 강연)

- <한복문화주간> 연계 한복 전문교육 제공: 영국왕립자수학교, 프랑스 라로셀 세종학당, 미국 드렉셀대학교



한복꾸러미 전시와 체험 교구 지원
(주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문화원)



<한복문화주간> 연계 행사지원(주튀르키예 한국문화원)



한복 전문교육 제공(미국 드렉셀대학교)

4. 2022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한복디자인 프로젝트’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가능한 한복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한복의 새로운 디자인 시도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공고 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한복은 화보촬영과 도록 제작, 전시(22년 8월, 한복상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소개됐다.

2022년 공모주제는 ‘일상 속 한복: 덧입는 옷으로서 한복의 현대화’였다. 경력 5년 이하의 젊은 디자이너 1백여 명이 지원해서 10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중 대상을 받은 디자이너는 한복근무복 개발에도 참여했다.



대상 고수경 ‘신과 만난 인간, 만신’

- 대상 1명(고수경-신과 만난 인간, 만신), • 최우수상 1명(박지원-무와 나비), • 우수상 2명(김서영-메기 효과, 신지아-자청비와 세경본풀이), • 장려상 6명(민준영-오롯하다, 이윤형-고봉준령을 넘어서, 이지연-첩첩산중:첩첩산중에 부는 바람, 정소진-싸이고 쌓이다, 정아라-들꽃, 차예진-피어오르리라)

5. 한복근무복(2022년 운송 및 여가서비스직)과 한복교복

한복근무복은 한복 일상화 실현을 위한 최적의 전략 중 하나다. 2022년에는 운송과 여가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한복근무복이 만들어졌다. 경력 5년 이상의 한복 디자이너 5인이 심사를 거쳐 선정됐고, 여기에 ‘2022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대상 수상자 1인을 더해 총 6명의 디자이너가 운송 및 여가서비스직 분야의 한복근무복 100종을 개발했다.

- 중견 디자이너 5인(15종 이상): 권혜진(한복스튜디오 헤은), 정혜진(송화by정), 이서정(시지엔이), 이해미(사임당by이해미), 김혜진(혜움)
- 신진 디자이너 1인(6종 이상): 고수경(“한복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대상 수상자)

중고생 대상의 한복교복 사업도 꾸준한 성과를 거뒀다. 2020년과 2021년도에 한복교복을 도입한 22개 학교의 지원을 계속 이어나갔다. 2022년에는 새로운 한복교복 디자인 89종을 개발했고, 참여 학교를 추가로 모집해 2개교(노비파스음악중교, 온양한울중학교)의 한복교복 도입이 결정됐다.



2022 한복교복 디자인 개발



2022 한복근무복 도록



2022 한복근무복



‘2022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DFAA) 기능성 의류 분야 우수상(Merit Award)’을 수상한 한복근무복



2022 한복교복 디자인 개발과 보급

6. ‘일생의례’ 전통한복 제작과 소재 개발

한복을 생활화하는 것만큼이나 전통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 2022년에는 ‘일생의례’를 주제로 전통한복 이수자, 경력 10년 이상의 한복 디자이너가 참여해 전통한복 10종을 개발했다. ‘일생의례’란 인생의 전환점에서 치르는 중요한 의례를 일컫는데, 이번에는 남녀의 성인식에 해당하는 ‘관례’와 ‘계례’, 결혼식인 ‘혼례’, 장수를 축하하는 ‘수연례’, 조상을 기리는 ‘제례’를 위한 전통한복을 만들었다. 해당 한복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과 SNS(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영상 ‘2022 전통한복 개발 지원 전통한복, 일생의례’



2022 전통한복 개발 지원 전통한복, 일생의례

‘일생의례’ 전통한복



계례(여성)·관례복(남성)을 위한 예복



혼례를 위한 예복1



혼례를 위한 예복2



수연례를 위한 예복



제례를 위한 예복

한복 창작자들의 제작 여건을 개선하고 수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통한복 원단 10종도 개발됐다. 직물 설계 단계부터 창작자 수요를 반영해 ‘수요 맞춤형 소재 양산’이라는 차별화된 시도를 기반으로 한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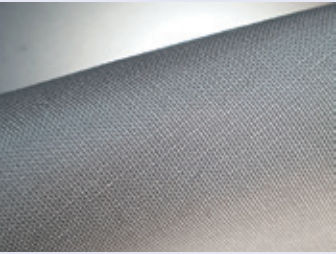
2022년 전통한복 원단 개발



수복만초문진주사



도류불수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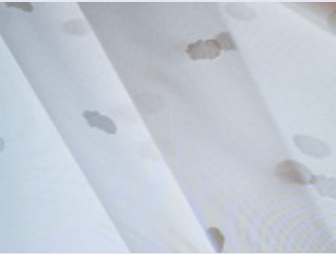
명주



화문오죽항라



연화문직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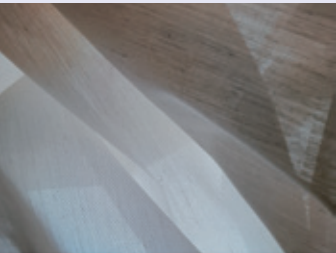
수복문(새문)주



화문자카드



매병학문직금단



신新 춘포



이화적문금단



2022 전통한복 원단 개발

7. 한복 교육과 연구사업

한복 교육은 한복의 미래와 직결된다. 한복 분야에서 활동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대학교 한복 전문교육’ 사업을 통해 한복인을 꿈꾸는 8개교(고려대학교·국민대학교·배화여자대학교·서울대학교·서울여자대학교·안동대학교·청주대학교·한남대학교)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한복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콘텐츠 2종*을 개발해 한복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



2022 한복교육보급 한복 퀴즈대회 우승자는 누구? 1~3편

초등학생 ‘한복 문화교육’ 학습자료 개발과 보급



저학년용 동영상



고학년용 동영상



고름매기 교구

연구자료도 2건 발간됐다. 하나는 그간의 교육 성과를 정리하고 발전 전략을 세운『교육보급 사업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보고서, 다른 하나는 2016년부터 2021까지의 한복 산업과 문화 동향을 살핀『2021 한복백서』다.



2021 한복백서



2022 한복교육 보급사업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22년 ‘대학교 한복 전문교육’ 사업의 세부 내용

선정 대학	교육명	참고
고려대학교	한국 전통복식의 이해와 활용 한복의 복식과 미	
국민대학교	한복소품공예 실습 실용한복의 이해 <K-배자>	
배화여자대학교	한국복식문화세미나 여자 혼례복 디자인 인형한복구성	
서울대학교	한복과 K-컬처	
서울여자대학교	한국복식디자인	
안동대학교	한복융합제품 설계 한복현장실습	
청주대학교	한복브랜드와 함께하는 캡스톤디자인	
한남대학교	한복, 근대를 만나다	

8. 한복분야 온라인 유통지원

현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스마트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급격한 변화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춰, 한복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한복분야 온라인 유통지원’을 벌였다. 온라인 유통숍 입점 16개 업체, 클라우드 펀딩 15개 업체, 사진 촬영 14개 업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온라인 유통숍 입점 지원 업체				클라우드 펀딩 지원 업체				사진 촬영 지원 업체			
1	박은주 전통한복	9	가인 컴퍼니	1	한아리아	9	아란스토리	1	돈화문 나뉘한복	8	공작소짓다
2	더 영현	10	아흔 주식회사	2	타타	10	아씨예찬	2	(주)로켓 웍스	9	(주)오르디자인 하우스
3	생성공간 여백	11	심콩사	3	끌루(kloo)	11	주식회사 케이빔	3	단하주단	10	소연한복
4	(주)입고	12	우리옷 일상속으로	4	한복 스튜디오 헤온	12	제스카키 (하녹)	4	유현화 한복	11	프로젝트팀 ‘꽃 신’
5	단장한복 인형	13	레트로맨스	5	요즘 이엔	13	(주)돌실나이	5	소미경	12	옷재
6	송화 by Jeong	14	가외한복	6	더봄한복	14	트웰브 재뉴어리	6	사임당 by이혜미	13	희복
7	다함한복	15	한복마을 사회적협동 조합	7	몽상 부띠끄	15	에트왈	7	루비앤 케이	14	북촌자락
8	주식회사 다래원	16	아리랑주단	8	스튜디오티	-	-	-	-	-	-



펀딩 커뮤니티 ‘텀블벅’(https://tumblrbug.com)’



‘한복스튜디오 헤온’ 클라우드 펀딩 메인 이미지

9. 한복마름방 운영 ‘2022년 공간과 시설 확충’

‘한복마름방’은 서울시 종로구 안국빌딩 8층(한복진흥센터 내)에 있는 한복 창작 공간이다. 한복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제작 기술을 배우며 이를 활용해 신상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조성 초기에는 주로 교육 공간으로 쓰였으나, 2022년에 면적을 70평에서 145평으로 대폭 넓히고, 시설을 개·보수해서 도서·소재실, 영상 강의실, 실습실, 비품실 등을 갖춘 공간으로 거듭났다. 2022년 3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9개월간), 한국복식사와 한복 제작 교육을 진행했다.

※ 한복마름방 <https://hanbokedu.kcdf.kr>



한복마름방



10. 한복입는 문화 홍보

한복 진흥을 위한 국가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고, 일상에서 한복 입기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행사와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2022년에는 한복 홍보대사로 가수 송가인과 대학생팀(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학과)을 위촉했고, ‘매마수 「한복입기 좋은 날」 캠페인’을 벌였다. 인플루언서 ‘조선여자 모나’와의 협업 영상, 광장시장 홍보영상 등 총 47건의 동영상도 만들어졌다.

‘대국민 한복 이모티콘 공모전’도 한복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누구나 하루에 한 번쯤은 누르게 되는 이모티콘. 일상을 한복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수상작은 카카오톡에 무료로 배포됐다. 이외에도 온라인 뉴스레터를 8건(총 661개의 콘텐츠 생성) 발행했고, 언론에 1,450건 한복 관련 기사가 실렸으며, SNS 채널 방문자와 구독자 수가 44만여 명에 이르렀다.



동영상 'KCDF×광장시장에서 만나는 힙한 전통한복!'



한복 이모티콘



동영상 'KCDF×광장시장에서 만나는 힙한 전통한복!'

특 집

한복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

1. 일본의 전통 복식 ‘기모노 着物’
2. 인도네시아의 전통 복식 ‘바틱 Batik’
3. 노르웨이의 전통 복식 ‘부나드 Bunad’

세계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고, 민족마다 자기 정체성을 지닌 전통 복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로 삶의 방식이 바뀌면서 현대화된 형태와 디자인의 의류가 일상복이 됐고, 최근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등장한 초연결·초융합 기술은 민족 간, 지역 간 경계를 허물었다. 이런 통합의 시대 변화 속에서 한복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의 전통 복식을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가치를 높이는 적극적인 보호책과 활성화 지원이 따라야 한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의 복식 문화를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복의 계승 방향과 미래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 보자.

한복의 눈으로 세계를 보다 ①
일본의 전통복식, ‘기모노 着物’,

글자 그대로 입을 것을 뜻하는 ‘기모노 着物’, 그리고 개항을 겪으면서 ‘한복’처럼 ‘양복’과 대비되는 ‘일본의 옷’이라는 뜻을 지닌 ‘와후쿠 和服’.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일본의 전통 복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1

법률 속 일본 기모노의 위치

문화재가 아니라 직업능력의 하나로 관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기모노를 「문화재보호법 文化財保護法」으로 지켜야 할, 개별 ‘문화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기모노를 산업과 연결해, 직업능력의 하나로써, 「직업능력개발촉진법시행규칙(1969년 공포, 2023년 개정 및 시행) 職業能力開發促進法施行規則」에 따라 관리한다. 여기에는 중학교 졸업자 대상의 직업훈련에서부터 연수 지도자까지,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최소 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고, 등급별 자격증 제도도 마련돼 있다. 단계별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 이론과 실기로 나뉘어 세분됐다는 점에서, 기모노 산업 현장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초대 우타가와 유타카쿠니(初代歌川豊国), 풍류 음력 12월(風流十二月 極月), 시카고미술관

01 교육 과정

① 중학교 졸업 후의 보통 직업훈련(재봉) ※ 일본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총 9년이다.

과정		이론 수업	실기 수업
기모노의 바느질과 입는 법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	1,000시간	① 피복 개론 ② 기모노 개론 ③ 피복 과학 ④ 입는 방법	① 부분 바느질 실습 ② 옷감 처리 실습 ③ 수선 실습 ④ 입는 방법 실습
		350시간	

② 1급 기능사 준비 코스

대상: 보통 직업훈련 또는 특정 전문과정의 직업훈련을 수료했거나, 이와 동등한 기술 및 이에 관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과정		이론 수업	기타	
기모노과 [和裁科]	1,000시간	① 피복 개론 ② 기모노 제작법 ③ 재료 ④ 기모노 일반 ④ 복식 미학 일반 ⑤ 안전 위생	14시간	면접지도

③ 전문과정의 고도 직업훈련

대상: 일본 기모노의 기획, 설계, 제작과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

과정		이론 수업	실기 수업
기모노 기술과 [和裁技術科]	315시간	① 기모노 제작론 ② 기모노 디자인론 ③ 기모노 깎취 입기의 미학 ④ 미용론 ⑤ 염색론 ⑥ 경제론 ⑦ 설계 및 제도	① 기모노 제작 실습 ② 기모노 디자인 실습 ③ 기모노 깎취 입기 실습 ④ 미용 실습 ⑤ 염색 실습 ⑥ 설계 및 제도 실습
		540시간	

④ 연수 지도원의 기술 역량 강화 교육

대상: 연수 교육자, 최소 12시간 학습

과정	이론 수업		실기 수업
기모노과 [和裁科]	기초	① 바느질 지식 ② 바느질 법 ③ 안전위생	① 기모노 바느질 ② 기모노 입기
	전공	① 바느질공정 ② 기모노의 종류 ③ 바느질 법 ④ 복식사 ⑤ 복식론 ⑥ 복식 과학 ⑦ 복식 미학	

02 국가 기술 자격 시험

国家検定

令和5年度

技能検定



受検申請受付期間
(都道府県実施)

前期 4/3月 ~ 4/14金

後期 10/2月 ~ 10/13金

未来への一步 確かな証

일본 국가 기술검정 자격시험 안내 광고

① <1급과 2급 기능검정 시험>의 과목과 그 범위 ※ 1급과 2급의 시험과목 동일

검정 직종	학과시험	실기시험
기모노 바느질	① 기모노 제작법 재단 방법, 바느질 순서와 방법, 치수 재기, 기계와 도구 사용법 ② 재료 기모노의 재료와 특징, 용도 ③ 기모노 일반 기모노의 종류와 특징, 손질과 보관법, 직물의 종류와 용도, 염색 안료의 종류와 특징, 일본 산업 규격으로 정한 섬유 용어 ④ 기모노 갓츠의 미학 일반 색채와 입는 법 ⑤ 안전 위생 안전과 위생에 대한 지식	① 기모노 제작 작업 ② 치수 재기 ③ 재단하기 ④ 손바느질 또는 재봉틀을 이용한 바느질 작업 ⑤ 마무리 작업

② <3급 기능검정 시험>의 과목과 그 범위

검정 직종	학과시험	실기시험
기모노 바느질	① 기모노 제작법 재단 방법, 바느질 순서와 방법, 치수 재기, 기계와 도구 사용법 ② 재료 기모노의 재료와 특징, 용도 ③ 기모노 일반 기모노의 종류와 특징, 손질과 보관법, 직물의 종류와 용도 ④ 기모노 갓츠의 미학 일반 색채와 입는 법 ⑤ 안전 위생 안전과 위생에 대한 지식	① 기모노 제작 작업 ② 재단하기 ③ 손바느질 또는 재봉틀을 이용한 바느질 작업 ④ 마무리 작업

2 일상에서의 축제, 11월 15일 ‘기모노의 날 着物の日’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

기모노의 날은 어떻게 제정된 것일까?

기모노의 날은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기념일이 아니다. 교토에 위치한 사단법인 ‘전일본기모노진흥회 社団法人全日本きもの振興会’에서 ‘시치고산(753)* 날에 가족이 기모노를 입고 외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교토시산업관광국 京都市産業観光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966년부터 11월 15일을 기모노의 날로 제정했다.

* 시치고산(753)이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기 위해 11월 15일, 3살·5살·7살이 된 아이를 데리고 신사를 방문하는 풍속. 이날은 아이가 장수하게 해준다는 ‘치토세 아메[千歳糖果]’라는 사탕을 먹는다.

그렇다면 전일본기모노진흥회에서는 왜 기모노 입는 날을 제안한 것일까? 계기는 1964년 열린 도쿄 올림픽이었다. 일본을 방문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일본의 전통 복식은 기모노라고 알고 있는데, 왜 보이지 않냐.’라며 의아해했다고 한다. 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무리 짓고 신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자, 기모노를 입고 신사를 방문하는 시치고산 일인 11월 15일을 기모노 기념일로 삼게 된 것이다. 11월 15일, ‘기모노의 날’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민간에서까지, 특히 기모노 관련 협



시치고산 날 기모노를 입은 아이들(출처: photoAC)



치토세 아메(출처: photoAC)

회와 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어느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전국의 행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각지에서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한다. 이들의 목표는 ‘기모노의 날’, 일본 거리를 기모노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기모노의 날은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다.



기모노의 날 2022년 포스터

전일본기모노진흥회 全日本きもの振興会 kimomonohi.org

교토시 시모교구 시조도리무로초 히가시이리하코야호코초 78(京都市下京区 四条通室町東入函谷鋒町78)

가) 설립과 역할

직물 생산자, 기모노 재단사, 기모노 도소매상, 염색 가공업체 등 기모노 관련 업계의 합의로, 1966년에 발족한 단체다. 1969년 통상산업성[현재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후, 2013년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오랫동안 기모노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알리고, 다음 세대로의 계승을 목표로, 전국에서 활동 중이다. 2022년에는 기모노 헌장을 발표했는데, 기모노 산업계의 다짐이 담겼다.

기모노 헌장 きもの憲章

1. 우리는 일본 전통문화의 기본인 「기모노 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2. 우리는 기모노를 사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입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공정하게 임하겠습니다.
3. 우리는 ‘기모노 문화’, ‘기모노 산업’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서로 신뢰하며 협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일본기모노진흥회는 전국에 단체회원과 법인회원을 두고 있다. 단체회원에는 기모노 연맹, 직물 산업 연합회, 공예품 산업 진흥회 등이, 법인회원에는 기모노 전문학교와 학원, 기모노 판매점 등이 속한다. 기모노의 날이 되면, 이들 회원 단체가 전역에서 활발히 축제를 벌일 수 있게끔 전일본기모노진흥회가 지원한다.

나) 활동

- 11월 15일을 ‘기모노의 날’로 정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 기관들의 축제 지원
- 전일본 기모노 여왕 콘테스트 개최
- 언론에 기모노 PR 전개
- 일반인 대상 ‘기모노학’ 세미나 개최
- ‘기모노 문화 검정’ 추진
- 1950년부터 고등학교와 전문대에서 기모노 입기 강연: ‘재단법인 전국고등학교가정과교육진흥회’의 후원을 받아, 지정된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 제공. 상급 수업까지 이수한 후, 일정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 ‘기모노 입기’ 합격증 수여

구분	초급 수업 내용	중급 수업 내용	상급 수업 내용
1회	기모노의 명칭, 속옷에 대해서, 유카타 입는 방법	예복으로 입는 기모노에 대해	기모노 치수
2회	기모노를 아름답게 입는 비법	기모노를 입히는 방법	기모노의 길이
3회	띠에 대해서	기모노와 계절	후리소데 입는 법
4회	기모노의 종류	예복 입히는 방법	일본의 문양
5회	기모노 매너	기모노와 띠의 조화	가문[家文]에 대해
6회	성과 발표	기모노 손질 방법	총복습
7회	-	성과 발표	성과 발표

① 기모노를 입고 근무하자

교토는 기모노 활성화에 앞장서는 도시 중 한 곳이다. 공사 가림 구조물을 기모노 모양으로 만들 정도로 기모노에 진심이다. 기모노의 날이 되면 교토시 공무원들은 기모노를 입고 출근을 한다. 물론 강제가 아니므로, 기모노는 자기 것이거나, 직접 대여한 것을 착용해야 한다.



교토시 후시미 구청(伏見区役所)



기모노 모양의 공사 가림 구조물(출처: photoAC)

② SNS 기모노 콘테스트

직물도매상업조합 京都織物卸商業組合 에서 주최하는 대회다. 우선 기모노를 입고 사진 찍는다. 그리고 응모용 프레임 ‘기모노의 날, 북 표지 앱’에서 촬영한 사진을 합성한 후, ‘#기모노의 날 광고탑’이라는 해시 태그를 붙여, SNS에 올리면 심사를 거쳐 입상자를 선정한다. 응모 사진은 조합의 홈페이지 또는 광고물에 실리니, 경쟁이 치열한 편이고 숨씨 또한 전문가 못지않다.



SNS 기모노 콘테스트 안내 포스터, 2022년

교토직물도매상업조합 京都織物卸商業組合 fashion-kyoto.or.jp

교토시 시모교구 시조도리무로초 히가시이리하코야호코초 78(京都市下京区四条通室町東入函谷鉾町78)

가) 설립과 역할

약칭 ‘KOMS(Kyoto Orisyo Members)’라고 불리는 섬유 도매회사들의 조합이다. 일본 염직 문화의 발전과 풍족한 생활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오사카 통상산업국(현 킨키경제산업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1969년에 설립됐다.

나) 활동

- 13마이리(+三まいり): 13세를 맞이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며, 기모노를 입은 50명에게 아라야마 허공장 법륜사(嵐山虚空藏法輪寺)의 초대권 증정
- 화산* 순행(花傘巡行): 일본 3대 축제인 기온마쓰리 때, 신사의 화산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행사
- 시치고산(七五三) 참배: 3세와 5세 남자아이, 2세와 7세의 여자아이를 교토의 전통 행사인 ‘시치고산 참배’에 초대
- 교토 미스 기모노 콘테스트: 관광 도시 교토를 알리는 홍보대사. 기모노에 관한 기본 지식과 매너를 익힌 후 활동



13마이리



화산 순행



교토 미스 기모노 콘테스트

* 화산[花傘]이란 신사에서 사용하는, 꽃장식이 화려한 거대한 우산을 말한다.

③ 기모노 ‘데바루(バル)’ ※ ‘바루(バル)’는 바(bar)를 뜻한다.

기모노는 옛날, 일본인들의 평상복이었지만 지금은 매일 입고다니기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나 ‘기모노 데바루’ 날만큼은 사람들이 기모노를 일상복처럼 착용하고 거리를 오간다. 이 행사는 매년 봄과 가을에 홋카이도 하코다테 서부지구의 ‘바루 거리’에서 열리는데, 기모노를 무료로 입혀주는 서비스는 물론, 기모노 판매 부스가 설치되고 술 시음회도 열린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중단됐다가 2023년 재개됐다.



기모노 바루 행사(시음회), 2019년(출처: 기모노 바루 공식 페이스북)

④ 기모노 입기 강습

전국기모노학원연합회 全国和装学院連絡会에서는 ‘기모노의 날’을 맞아 매년 기모노 입기 교실을 연다. 현장에 와서 직접 배울 수도 있지만, 온라인 원격으로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전통의 ‘기모노 문화’를 전해주는 매체가 디지털 기술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전국기모노학원연합회 全国和装学院連絡会 zenkokuwasougakuin.org

기후시 마사마치 10초메 8번지 2층(岐阜市真砂町10丁目8番地 2階)

가) 설립과 역할

전국 기모노 입기 학원들의 연합 단체로 누구나 일상에서 기모노를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됐다. 본부 아래 전국 29개 연합회를 뒀다(기모노 제작 학원 17개, 기모노 입기 교실 1개, 전통 매듭 학원 1개, 기모노 관련 협회·단체 10개 / 2023년 홈페이지 기준).

나) 활동

기모노의 날을 기념해, 11월 한 달간 기모노 교실을 연다. 옷을 입는 방법은 물론 예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실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모노 교실 참가 신청서

⑤ 니시진(西陣) CROSS Week

니시진직물공업조합 西陣織工業組合에서 벌이는 행사다. 2022년은 ‘니시진’이라는 이름이 생긴 지 555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고자 11월 11일 ‘니시진의 날’부터 11월 15일 ‘기모노의 날’까지의 5일 동안 <니시진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로 니시진 회관 등에서 ‘니시진 CROSS Week’를 진행했다. ‘니시진 비단 전시회’,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거대한 크기의 ‘베틀 시연’, ‘니시진 555년 기념 기모노 쇼’, ‘니시진 디자인 그랑프리 작품 전시’ 등을 선보였다.



니시진 베틀 시연(출처: 니시진오리 공식 페이스북)

니시진직물공업조합 西陣織工業組合 nishijin.or.jp

교토시 가미교구 호리카와도리 이마데가와미나미이리니시가와(京都市上京区堀川通今出川南入西側)

가) 설립과 역할

니시진[西陣] 직물이란 교토 니시진에서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되는 선염[先染] 직물의 총칭이다. 5~6세기 한반도에서 건너온 진씨(秦氏) 일족이 양잠과 직조 기술을 전해준 데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다. 1976년에 국가의 전통 공예품으로 지정됐다. 니시진직물공업조합은 1938년, 전쟁이 한창인 시기에 설립돼 혼란기에는 직물 가격을 규제하고 폭리를 단속하는 역할을 했고, 지금은 니시진 직물 판매는 물론 니시진 직물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패션쇼, 입고 배우는 교육 활동 등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나) 활동

- 니시진 직물 제작 도구 지원: 니시진 직물의 기술 전승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토시가 실시하고 있는 ‘전통 산업에 대한 도구류 대여 제도의 운영’에 따라 니시진 직물 제작에 필요한 도구류를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대출
- 니시진 기모노 쇼: 니시진직물회관 3층에서 매일 패션쇼 진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는 동영상으로 대체
- 기모노 체험: 기모노, 유타카는 물론 헤이안 시대 귀족 정장까지 150벌 이상의 기모노를 갖추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
- 장인의 시연: 니시진직물회관 2층에서 장인들의 베틀 작업 시연

• 니시진 전통 복식 학원 운영: 1967년에 문을 연, 일본 최초 학교 형태의 기모노 교실. 3개월 과정의 입문 코스로 수강료는 무료



니시진오리 전시



기모노 체험



니시진 전통 복식 학원 수강생들

⑥ 하카다 직물 품평회

2022년 11월 12일과 13일, 이틀간 하카타직물공업조합 博多織工業組合 의 기모노 직물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정원이 있는 일본 전통가옥에서 내각총리대신상·문부 과학대신상·경제산업대신상을 받은 작품까지 두루 관람할 수 있게끔 기획했다.

⑦ 기모노의 날 온라인 심포지움

‘2022년 국산 생사로 만든 기모노’

2022년 11월 9일, 농림수산성 주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양잠은 일본 근대화를 이끈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농가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일본 기모노 산업의 기반인 양잠업과 명주업 종사자들에게 일본 기모노의 매력을 알리고, 기모노 생산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전통을 기반으로 문화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 하겠다.

※ 실시간 Zoom으로 진행(동시 접속 500명 제한). 그러나 참가 신청을 못 한 사람들도 YouTube 라이브로 시청 가능



하카가 직물 품평회(출처: 하타다 직물 공식 페이스북)



2022년 기모노의 날 온라인 심포지움 포스터



하카타직물공업조합 생산품

하카타직물공업조합 博多織工業組合 hakataori.or.jp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하카타구 나라야마치 5번 10호(福岡県福岡市博多区奈良屋町5番10号)

가) 설립과 역할

17세기, 하카타[博多] 직물은 도쿠가와 막부의 현상품이었다. 메이지 시대까지는 제조업자를 12명으로 제한해 품질을 유지했지만, 막부 붕괴 후 자유경쟁 체제로 돌입하면서 질이 떨어지게 됐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1880년 하카타 직물 회사가 설립됐고, 70여 년 뒤인 1956년에는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출자 조합인 하카타직물공업조합이 세워졌다.

나) 활동

• 하카타 직물 DC: 중앙정부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의 지원을 받아 2006년 4월에 개교한 ‘특정 비영리 법인 하카타직물 기능개발 양성학교’의 약자. 하카타 직물의 전통 기술을 잇고, 하카타 직물의 매력을 새롭게 개발하는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 모집인원이 8명인, 소수 전문 교육 기관. 2003년에 중요무형문화재 ‘현상 하카타 직물’ 기술 보유자로 지정된 장인이 교수



하카타 직물 DC 신입생 모집 공고문



하카타 직물 DC 수업 모습

3 민간 자격증 제도

입는 옷에서 품격있는 문화로! ‘기모노 문화 검정 시험’きもの文化検定

전일본기모노진흥회 全日本きもの振興会 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기모노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기모노 입기를 독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기모노 문화 검정 시험’은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데, 5급부터 순차적으로 응시·합격해야 하며, 공식 교본에서 90% 이상 출제가 되는 덕분에 국적, 학력, 나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10명 이상 단체 신청시 웹(Web)으로 시험을 볼 수 있고, 대학·전문대학·고등학교 등에서 50명 이상 신청하면 자기 학교에서 응시 가능하다. 기업체의 경우 시험 장소와 시간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 단체 수험: 회사, 기모노 교실 등 10명 이상일 때, 웹(Web, CBT방식)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응시료 할인
- 학교 수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인가를 얻은 대학, 전문학교, 고등학교 등이 대상. 50명 이상 응시하는 조건으로, 이동 없이 각 학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응시료 할인
- 법인 수험: 장소·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기업의 요구에 맞춰 진행. 단, 5~3급만 응시 가능

① 시험일과 장소

- 일시: 1~2급 시험은 매년 1회 치러지며, 2022년에는 11월 6일에 진행됐다. 5~3급 시험은 웹(Web) 방식으로, 전국 47개 지역 280여 개소에서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
- 장소: (1~2급의 경우) 삿포로, 도쿄, 신주쿠, 나고야, 교토, 오사카, 나라, 히로시마,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대도시 중심으로 열 곳 내외에서 시험칠 수 있다.

② 시험방법과 합격 기준

급수	시험방법	합격 기준
5, 4급	컴퓨터 시험용지에 답하는 CBT 방식 / 사지선다 문제로 60분 동안 100문항 이내 출제 / 5, 4급 문제 동일	5급: 60% 이상 정답자 합격 4급: 70% 이상 정답자 합격
3급	컴퓨터 시험용지에 답하는 CBT 방식 사지선다 문제로 60분 동안 100문항 이내 출제	70% 이상 정답자 합격
준 2급, 2급	여휘 선택, 주관식 문제로 90분 동안 100문항 이내 출제	준 2급: 60% 이상 정답자 합격 2급: 70% 이상 정답자 합격
준 1급, 1급	여휘나 문장을 쓰는 방식으로 90분 동안 100문항 이내 출제	준 1급: 60% 이상 정답자 합격 1급: 70% 이상 정답자 합격

‘기모노 문화 검정시험’의 공식 교본은 2권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식 교본 '기모노의 기본'	
제1장	기모노·띠·소품
제2장	하오리와 코트
제3장	남자 기모노
제4장	어린이 기모노
제5장	기모노의 주요 산지와 특징
제6장	기모노의 역사
제7장	여름, 기모노 소재
제8장	유카타
제9장	기본 코디네이터
제10장	일본의 색
제11장	기모노의 무늬
제12장	문양
제13장	기모노와 갖춤 물품
제14장	기모노의 부분 명칭
제15장	보관과 손질
제16장	아름답게 서고 걷는 법



공식 교본 '기모노의 즐거움'	
제1장	염색과 직조 현장을 찾아서
제2장	염색과 직조 산지
제3장	실과 바탕 천
제4장	일본의 전통 색채
제5장	기모노의 역사와 형태
제6장	바느질과 도구들

③ ‘기모노 문화 검정’ 합격 혜택

카드 형태의 합격 증명서를 받는다. 이 증명서를 보여 주면 기모노 관련 상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은 아니지만, 기모노 문화를 알고, 아끼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담긴 인증서다.



기모노 문화 검정 시험 합격증

‘기모노 입히기’ 강사 자격증

기모노는 혼자 입기 어려운 옷이다. 그래서 기모노를 입혀주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따로 있다. 사단법인 민족의상문화보급협회 民族衣裳文化普及協會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인데, 협회에서 개설한 기모노 관련 수업을 듣고 자격을 취득하면 ‘기모노 교실’을 열 수 있고, 성인식과 결혼식은 물론 사극 영화 촬영장, 기모노 패션쇼 현장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기모노 입히기 강사(출처: photoAC)



후리소데, 에도 시대(출처: 국립도쿄박물관)

기모노 입히기 자격증 대비 강좌 목록(2022년 기준)

강좌명	내용	기간	비용
기모노 기초 강좌 [きもの基礎講座]	• 전국 각지 200여 개 교실에서 운영 • 협회가 인정하는 ‘초급 강사’ 자격 취득 후, 기모노 교실 운영 가능	6개월 (월 4회 2시간씩)	입회금 3,300円 수강료 월 5,500円 유지비 월 500円
기모노 종합 강사 양성 강좌 [KIMONO総合インストラクター養成講座]	• 스스로 입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한 과정 • 초급 강사, 중급 강사가 될 수 있고, 기모노 마스터 카드 제공 • 전국 23개 교실에서 수강 가능	1년 (월 4회 90분씩)	입회금 11,000円 수강료 264,000円
기모노 입히기 양성 강좌, 성인식 후리소데* 실천 코스 [KIMONO着装技術師養成講座 成人式振袖実践コース]	• 관혼상제용 기모노를 입혀주는 기술 훈련 • 후리소데 입히기를 목표로 하는 전문가 코스 • 전국 13개 교실에서 운영	9개월 (월 4회 2시간씩)	입회금 11,000円 수강료 105,490円
기모노 입히기 기술사 양성 강좌 3급 [KIMONO着装技術師養成講座 3級 취득 강좌]	• 기모노와 관계된 일을 하는 분(미용실, 화장 등), 또는 이 일을 직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에게 최적 • 전국 11개 교실에서 운영 • 기모노 착장 기술사 3급[きもの着装技術師3級]	6개월 (월 4회 2시간씩)	입회금 3,300円 수강료 66,000円 인정료 33,000円 유지비 월 500円
기모노 강사 특별 진학 강좌 [きもの講師特別進学講座]	• 상급 사범이 되기 위한 강좌 • 이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	3개월 (월 4회 2시간씩)	입회금 3,300円 수강료 77,000円
기모노 현대 문화 강좌 [きものde和心おもてなし講座]	• 일본을 방문하는 손님과 대화하고 예의를 갖춰 접대하는 방법 • 다양한 업계의 전문 강사가 지도 • 현대 3급[和心おもてなし3級]자격증	1년 (월 3회 90~120분씩)	입회금 11,000円 수강료 297,000円

* 후리소데: ‘흔들리는 소매’라는 뜻의 기모노다. 소매가 100~115cm 정도로 매우 길며, 미혼 여성들의 격식 있는 예복으로 쓰인다.

가) 설립과 역할

사단법인 민족의상문화보급협회는 1977년 문부대신[文部大臣, 교육부장관에 해당]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이다. 일본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사명감 아래 기모노를 제작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패션쇼와 강연회를 열어 기모노의 아름다움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 중국, 베트남, 미국, 미얀마 등지에서 기모노 전시회를 개최해 국제 사회와 교류하고, 수준별·분야별 기모노 교재를 출간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활동

- 여성문화대학: 1983년 1회를 시작으로 기모노 문화를 전하는 무료 강좌를 전국적으로 개설
- 어른들의 기모노 문화제: 기모노를 입고 하루를 즐기는 어른들을 위한 행사. 2022년에는 도쿄에서 열렸는데, 일본 헤이안 시대 전통 복식을 소개하고 중국 비파 연주를 듣는 자리로 연출
- 기모노 제전: 문화청[文化庁,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등이 공동 주최하는 대규모 ‘국민 문화제’로, 지역을 옮겨가며 매년 개최
- 문화청 ‘가족 지역 클럽’ 지원 사업: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기모노를 입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회당 열 가족 한정이며 전국 기모노 교실에서 운영
- 중고생을 위한 기모노 교육과 체험: 학교로 찾아가 유카타 입는 법을 소개하거나, 수학여행지에서 기모노를 입고 친구들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체험 제공



여성문화대학 공고문



기모노 제전



가족 지역 클럽



중고생 유카타 수업



수학여행 기모노 체험

4 기모노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

일본은 2016년부터 기모노의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고, 민족마다 고유의 의상을 가진 까닭에 아직 전통 복식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예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구애됨 없이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기모노 홍보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모노의 유네스코 등재는 2004년에 설립한 공익재단인 ‘교토일본전통복식산업진흥재단 京都和装産業振興財団’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먼저 2016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 추진 선언’으로 그 시작을 알렸고, 그다음 해인 2017년 제안서를 문화청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기모노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등재 포스터



기모노 로고 제작

등재를 위한 사전 작업	
2016년	‘기모노 서밋 IN 도쿄’에서 기모노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 추진을 선언하고, ‘전문가 검토 회의’ 기구 설치
2017년	전문가 검토를 거친 『기모노 문화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산 등록을 위한 제안서(초안)』를 작성한 후, 『일본(기모노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산 등록 실현에 관해』라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청과 경제산업성에 제출



그 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이어졌다. 2022년 현재, 기모노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추진 과정 중 벌인 여러 활동은 기모노를 국내외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등재를 향한 움직임

2018년 5월	• 기모노 로고 마크 제작과 활용 권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위한, 기모노 마크 사용 지침 제공
2018년 9월	• ‘기모노 서밋 in 교토 2018[きものサミットin京都2018]’ 개최: ‘기모노 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를 다섯 가지 협의 주제 중 하나로 채택
2018~2019년	• 등재 추진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 책갈피, 클리어 파일 등 상품 개발
2019년 9월	• ‘교토 생활의 문화×지혜 산업전[京都・くらしの文化×知恵産業展]’ 참가: 교토시권업관[京都市勧業館]에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들에게 기모노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대응 방안 홍보
2019년 10월	•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Top promotion’에서 영문판 브로셔 배포: ‘간사이[関西] 광역 연합회’와 협업해,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톱 프로모션’ 리셉션에서 영어판 전단 배포. 또한 당일에 게이마이키[芸舞妓, 기생들의 무희] 공연을 펼친 후 기념사진 촬영
2019년 11월	• ‘이와테 공예 엑스포[KOUGEI EXPO IN IWATE]’에서 홍보: 이와테 산업문화센터 ‘아피오’에서 개최된 ‘이와테 공예 엑스포’에서 관람객에게 등재 관련 내용 소개
2020년 9월	• 시중 상가에 붙일 광고물 제작: ‘2020 교토 미스 기모노’ 대회에서 모델 4명을 선발해, 2021년 기모노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
2021년 3월	• 도쿄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홍보: 국립교토국제회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유엔범지방지형사법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등재 추진 과정과 성과 소개
2021년 11월	• ‘교토 판매 행사, 교토yell! 프로젝트’ 참가: 도쿄역 서쪽 출입구 광장에서 개최된 판매대전에서 기모노 등재 건에 관해 설명
2022년 3월	• ‘교테 묘우젠 작품전[京手描友禅作品展]’에 부스 설치: 관람객들에게 기모노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준비 사실을 홍보

교토일본전통복식산업진흥재단 京都和装産業振興財団 wasou.or.jp

교토시 시모교구 시조 도리무로초 히가시이리 교토 경제 센터 3층(京都市下京区四条通室町東入京都経済センター3階)

가) 설립과 역할

교토의 기모노 업계가 일본 전통 복식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했다. 일본 문화의 상징인 기모노의 밝은 내일을 위해, 상업 윤리를 확립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활동

- 무로마치 기모노 교실: 기모노를 입고 띠를 매보는 주제별 강좌 개설
- 기모노 수학여행: 수학여행 또는 졸업여행으로 교토를 방문한 중·고생과 대학생에게 기모노를 대여해 주고, 강사가 학생들이 숙박하고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기모노 입는 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 체험료 1인 3천엔
- 기모노 색칠 작품 공모전: 초등학생 대상 공모전. 기모노가 그려진 도안을 멋지게 색칠한 후 재단에 보내면 홈페이지에 게시



기모노 색칠 작품 공모전 응시 페이지

5 기모노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만남

베리어프리! 누구나 즐기는 기모노 문화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입을 수 있는 기모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착용에 어려움이 더 크다. ‘NPO일본기모노문화진흥회 NPO日本きもの文化振興会’에서는 2002년 ‘모든 장애인이 기모노를 입고 환하게 웃는 것’을 목표로 ‘U·D기모노’ 사업에 나섰고, 신체의 불편함이 일본 전통문화 향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모노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담아냈다.

※ 유니버설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 혹은 ‘보편적 디자인’으로 불리며,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유니버설 기모노의 탄생 후 여러 기모노 업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모노를 선보이며 각지에서 판매 중이다. 제작처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위와 아래가 떨어져

있거나 옷을 뒤쪽에서 간단히 여밀 수 있는 형태가 많다. 침대에 누워서,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든 기모노를 문제없이 착용할 수 있다.

‘하야사쿠라 早咲羅 기모노’는 평소 기모노 입기를 좋아하셨던, 편찮으신 할머니를 위해 손주가 개발한 디자인이다. 휠체어에 앉아서 3분 안에 입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기모노로, 2015년에 ‘굿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あきらめていませんか!?
きもの着せしめキャンペーン
2020年東京パラリンピック

車椅子の方でも簡単にきれいに着れます! 着せられます!
UD(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 きもの **〈幸せきもの〉誕生!**
勿論、健常者の方もとってもきれいに着れます。

車椅子の方もさっそうときもので出掛けよう!
七五三・成人式
結婚式・パーティー
美術館・食事会などへ

NPO(特定非営利活動法人・認定平成29年)
主催 日本きもの文化振興会
UDきもの普及プロジェクト

後援 石川県・金沢市・社会福祉協議会 NHK・北陸放送・テレビ金沢・石川テレビ
北国新聞社・北陸中日新聞社

無料 試着会申込券 FAX & TEL (FAXはこのままOK!)
076-237-3630

とき 8月23日(金)・24日(土) AM10:00 ~ PM4:00
ところ 石川県庁19階 展望ロビー 〒920-8203 金沢市鶴月1丁目1番地

お名前	ご連絡先 (電話番号)	
ご住所	ご同伴者 ご家族 () ご友人 ()	施設の方 () その他 ()

유니버설 디자인 기모노 시작 안내 포스터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하야사쿠라 早咲羅 기모노’의 구조와 입는 법

6 기모노 전문 교육

일본의 기모노 전문 교육은 여자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모노를 제작하고 기모노 착용 예법을 익히는 것은 일찍이 20세기 초부터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출을 위해 일본 여성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전국의 대학 중 일본 전통 복식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는 없다. 가정학부 피복학과 또는 생활디자인학과 등에서 서양 복식과 함께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에서의 기모노 교육은 크게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이론 수업과 제작 기술을 익히는 실기 수업으로 나뉘는데, 이론 수업보다 실기 수업의 비중이 큰 편이다. 대학에 따라 기모노 입기 강좌를 편성한 곳도 있다. 그리고 기모노를 가르치는 대부분 대학에서 교직과정과 박물관 학예사 준비를 위한 수업을 운영한다. 기모노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 양성과 함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가정교사가 되거나 기모노를 전시하고 과학적으로 복원하는 연구직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대학이 아닌 복장학원에서 기모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복장학원에서의 교육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학 커리큘럼과는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복장학원이 있어서 대학보다 접근하기 쉬운 편이다.

공립여자대학 共立女子大学

구분	대학	위치	도쿄	개교년	1886년
학부	가정학부	학과	피복학과(被服学科)	홈페이지	https://www.kyoritsu-wu.ac.jp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이치쓰바시 니초메 2번 1호(東京都千代田区一ツ橋二丁目2番1号)				

가) 학교개요

1886년에 설립된 오래된 사립 종합 여자대학교다. 도쿄 도심에 세워진 것은 도시에 모여든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처음에는 직업학교로 시작했지만, 새로운 교육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1949년 대학교를 만들고 곧바로 가정



학부를 설치했다. 현재 가정학부, 문예학부, 국제학부, 간호학부, 비즈니스학부, 건축·디자인학부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연혁	
1896년	공립여자직업학교 창립
1949년	공립여자대학 개교, 가정학부 설치
2004년	가정학부 피복학과에 의류 정보 코스, 섬유 보존·수리 코스, 조형 디자인 코스 설치
2007년	가정학부 피복학과 섬유 보존·수복 코스를 염직 문화재 코스로 개칭

나) 피복학과 소개

피복학과는 1886년 공립여자직업학교가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양복과 일본 전통 복식인 화복(和服)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졸업을 앞둔 전공생들은 ‘피복 조형 실습’, ‘일본 전통 복식 제작 실습 I·II’ 등의 수업으로 익힌 지식과 기술을 응용해(웨딩드레스와 기모노 중 택해서) 졸업작품을 만들고 발표해야 하는데 옷의 제작은 물론 조명과 음악, 무대 디자인까지 모든 것을 학생들이 연출해 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피복학과에는 ‘피복과학 코스’, ‘염직문화재 코스’, ‘패션크리에이션 코스’, ‘패션비즈니스

코스'가 있다. 우선 '피복과학 코스'의 교육 목표는 '의생활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를 과제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다. 의생활과 환경, 건강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과학적인 사고로 그 원인을 규명하며, 과제를 설정해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피복과학 코스 학생들의 관심사는 마이크로플라스틱 섬유, 의류 세탁 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해양 생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에 착안해, 의생활과 환경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또 체온의 항상성으로 대표되는 인체의 생리학적 기능과 쾌적한 의복의 관련성, 천연 섬유의 미세 구조를 닮은 인조 소재의 연구 개발, 3D 프린터를 사용한 차세대 패션 제품의 생산 기술, 가정에서 로봇과 공생하는 방법 등도 주요 연구 주제다.

'염직문화재 코스'는 '미술관·박물관의 학예사 또는 염직 문화재를 다루는 보존처리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국내외의 미술관·박물관과 연계해 염직 문화재 관점에서 바라본 기모노 기획 전시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본교 박물관에서 열린 '스기노 기모노 재패니즈·웨딩전 「일본의 혼례 의상」'의 감수를 맡았고, 2020~2021년도에는 '사회연계에 의한 지속 가능한 화장 和装 교육의 추진'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 순환형 의복을 주제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이런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기모노의 전통 계승은 물론, 새로운 시대의 기모노를 제안하는 액티브 러닝 교육(Active Learning, 능동적 학습)을 실행 중이다.



일본 센다이박물관 의뢰로 '오색 물방울 무늬 진우오리 五色水玉模様陣羽織' * 복원 연구
* 진우오리: 갑옷 위에 입던 비단이나 나사[羅紗, 모직물]로 만든 짧은 겂옷

'패션크리에이션 코스'를 이수한 학생들은 패션 산업계에서 활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패션디자이너가 되려면 패션크리에이션 코스를 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패션비즈니스 코스'의 교육 목표는 '새로운 패션사업을 창출하는 인재 육성'이다. 급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피복학과에서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사회 과제를 이해

하고 지속가능성 SDGs 을 가능케 할 패션 비즈니스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패션 비즈니스 제안이나 폐기물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자원 재활용) 등을 주제로, 친환경적인 패션 사회 구현을 향한 교육계의 의미 있는 행보가 주목된다.

다) 피복학과 교육과정

공립여자대학교 피복학과에서는 양복과 기모노를 만들어내는 제작 기술 전반(패턴, 바느질, 디자인, 염색, 색채학 등)은 물론, 섬유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실험으로 증명해 내는 방법, 과학적인 세탁법과 관리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다. 교과목 편성이 매우 다양해서, 옷을 사는 소비자의 심리, 의류 판매전략, 환경 문제까지 다룬다. 그만큼 졸업생들이 진출한 수 있는 전문 분야의 폭도 넓다. 1~3학년까지는 기초 이론과 실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4학년이 되면 졸업논문과 작품 제작에 몰두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였다.

공립여자대학교 피복학과 교육과정 *기모노 관련 교과목

교과명	학년	교육 내용
기모노 문화론*	1학년	일본 전통 복식의 종류와 특징, TPO, 염색 기법, 기모노 착용과 통과례 등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일본 전통 복식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다.
서양 복식사	1학년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유럽의 복식을 그림 자료와 문서 등을 통해 이해한다.
의류 소비 과학	1학년	의류 구매 시 나타나는 여러 이슈를 소비자의 눈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1)섬유 제품의 품질, (2)소비자 행동 (3)섬유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해 배운다.
의류 재료 과학 I	1학년	대표적인 8종의 섬유, 실, 천의 기본적인 구조와 성질을 알고, 특히 열과 물의 관계에 주목해 특성을 살핀다.
의류기초학	1학년	섬유의 구조와 성질 등 재료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연 과학적 기초 지식을 습득합니다.
의류형태학	1학년	신체 치수 재는 방법, 체형과 패턴의 관계 등에 관한 지식을 쌓는다. 또한 의류 생산 현황과 구조를 이해한다.
피복 디자인 I	1학년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를 배운 후, 「피복 디자인」에 응용해 본다. 근대 디자인이 싹튼 18세기 후반~19세기부터 20세기 모노즈쿠리나 디자인까지 살핀 후,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이해한다.
피복 디자인 II	1학년	나의 디자인 의도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익힌다. 이미지 감성을 표현하는 방법, 패턴 잡지에 대한 지식, 옷걸이 일러스트 그리는 방법 등의 실무능력을 키운다.
피복 조형 기초 실습*	1학년	입체 구성(양복)과 평면 구성(일본 전통 복식)의 기술을 모두 학습한다. 기초 기술인 기계 봉제, 손 봉제, 재단, 다리미 기술 등을 익힌다.
피복 조형 실습 I	1학년	인체의 특성을 고려한 패턴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의류 설계와 봉제 과정을 거쳐 완성할 때까지의 주요 공정을 이해하고, 동시에 바느질 기술도 익힌다.

동양복식사*	2학년	일본 전통 복식의 역사를 알고, 그 변화의 배경을 이해한다. 중국, 류큐 전통 복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동양 복식의 공통점, 교류의 흔적 등에 관해 고찰한다.
의류 CAD I	2학년	컴퓨터에 의한 제품 설계, 제조 공정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의복 패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의류 CAD 시스템(Lectra Modaris)을 사용해 체형에 맞는 스커트(타이트, 플레어, 세미타이트 등) 패턴을 그린다.
의류 재료 과학 II	2학년	‘의류 재료 과학 I’에서 배운 지식을 강화한다. 앞서 배운 8종 외에, 피복 재료로 쓰이는 섬유를 망라해서 다룬다. 또한 고기능성 섬유나 기능성 가공 등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의류 관리 I	2학년	가정 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의 차이, 의류용 세제의 성분과 역할, 세탁과 환경 문제, 세탁법, 표백, 형광 증백의 개념 등 의류의 보존·관리에 대해 배운다.
전통 일본 복식 제작 실습 I*	2학년	유카타를 제작해 봄으로써, 전통 복식의 제작 기술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유카타 제작 후에는 입는 기술, 갖추어야 할 소품 등을 살펴본다.
피복 재료학 실험	2학년	섬유, 실, 그리고 천의 기본적인 성질을 현미경이나 인장(引張) 시험기 등의 장치를 이용해 계측한다. 일본 공업 규격(JIS)을 기준으로 피복 재료를 평가하는 법을 배운다.
피복 조형 실습 II	2학년	의류 생산을 위한 공업용 패턴 메이킹, 봉제 사양서(仕様書) 쓰는 방법을 이해한다. 그 후, 봉제 사양서에 따라 의류를 제작해 본다. 이를 통해 의류 생산의 효율적인 구조와 흐름을 이해한다.
의류 CAD II	3학년	의류 CAD 시스템(Lectra Modaris)을 사용해 블라우스의 패턴을 그리고, 인체 계측에 따른 패턴 생성 방식을 이해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패턴을 생성하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의류 판매 이론	3학년	패션 소매점의 기능과 판매전략을 이해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시장 구조의 변화를 파악한다.
의류 관리 II	3학년	계면활성제의 특성, 세정력 평가 등 보존·관리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배운다.
의류 심리학	3학년	의류의 선택과 구매 등 소비 행동의 특징과 요인을 심리적인 관점으로 살피고, 개인과 사회 환경 등과의 관련성을 알아본다.
전통 일본 복식 제작 실습 II*	3학년	앞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기모노를 제작한다. 새로운 전통 복식 기술을 익힌다. 기모노 완성 후에는 입는 방법과 소품에 대해 살펴본다. 겔옷, 속옷의 길이와 기모노 치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피복 패턴 설계 연습	3학년	‘피복 조형 실습 I·II’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패턴을 그려본다. 실물 크기의 패턴 작성과 시침으로 블라우스를 제작한다.
색채 디자인	커리큘럼별 상이	색의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배운다. 색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 조화로운 색채 구성을 익히고, 컬러 코디네이션을 실시해 색 조합 능력을 키운다. 색채 계획을 세우고 대상에 맞는 색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소비자 의류 생활 이론	커리큘럼별 상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소비생활을 하기 위해, 행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소비자 정책, 행정부와 기업의 소비자 대응법, 사회적 책임, 소비자 운동, 소비자 교육, 환경 문제 등을 다룬다.
염색 실습	커리큘럼별 상이	합성염료로 염색하고, 염착률을 산출해 본다. 천연 소재를 이용한 초목염(草木染)을 실시한 후, 염색한 천이 얼마나 견고한지 실험한다.
졸업논문	4학년	피복 관련 학술 과제를 설정하고 연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담당 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제출한다.
졸업작품	4학년	피복에 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과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발전시킨다. 담당 교수의 지도 아래 졸업 연구 발표회에서 선보일 졸업작품을 제작한다.



일본 전통 복식 수업 장면

졸업작품 발표회

야스다여자대학 安田女子大学

구분	대학	위치	히로시마	개교년	1915년
학부	가정학부	학과	생활디자인학과	홈페이지	https://www.yasuda-u.ac.jp
주소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아사난구 안토 6가 13번 1호(広島県広島市安佐南区安東6丁目13番1号)				



가) 학교개요

1915년 히로시마에 세워진 여자대학이다. ‘부드럽고 강하게’가 학교 교훈, ‘당당히 살아갈 자존감 높은 여성 인재 육성’이 교육 목표다. 높은 취업률이 학교의 자랑으로, 10년간 대학 생의 98.9%가 졸업 후 취직에 성공했다고 한다.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이 설치돼 있고, (문학부) 일본문학과·서예학과·영어영미문학과, (교육학부) 아동교육학과, (심리학부) 현대심리학과·비즈니스심리학과, (현대비즈니스학부) 현대비

지니스학과·국제관광비즈니스학과·공공경영학과, (가정학부) 생활디자인학과·관리영양학과·조형디자인학과, (약학부) 약학과, (간호학부) 간호학과, (전문대학) 교육과, (대학원) 5개 전공과 2개 코스를 갖췄다.

주요 연혁	
1915년	야스다 리요우[安田リヨウ]에 의해 야스다 학원 ‘히로시마기에여자학교[広島技芸女学]’ 창립
1961년	전문대학에 가정과 증설
1991년	전문대학 가정과를 생활과학과로 명칭 변경
2004년	대학에 가정학부 생활디자인학과 증설
2013년	대학원에 가정학연구과 건강생활학 전공(석사 과정) 증설

나) 생활디자인학과 소개

생활디자인학과는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옷, 음식, 집, 건강, 환경 등 생활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정보·기술·지혜를 익히고, 전문가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학생 배출을 목표로 한다.

입학 후 1년간은 의식주와 관련된 기초 교양 과목을 듣고,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전공을 정하는 ‘코스제’로 운영하고 있다. 코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 ‘건축 디자인 코스’는 건축사를 목표로 실무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 과정이고, ‘생활디자인 코스’는 의·식·주를 두루 배우거나 이 중 어느 하나에 집중해 학습할 수 있는 자율성 높은 과정이다. 기모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은 ‘생활디자인 코스’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게 된다.

다) 생활디자인학과 교육과정

생활디자인학과 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산업 현장을 염두에 둔 이론과 실습이 접목된 실무 중심으로 교과목이 짜였음을 알 수 있다. 복식의 역사와 문화사적 의미 등을 배우는, 즉 인문학 기반의 교과목은 적고, 복식을 기술과 과학으로 접근하는 수업이 대부분이다. 일본 전통 복식과 관련해서는 유카타^{*}를 알고 실제 만들어보는 ‘의복 구성 실습Ⅱ’가 유일하다.

^{*} 유카타[浴衣, ゆかた]: 일본 전통 복식 중 하나로, 기모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입는 방법도 간편해서 불꽃놀이, 벚꽃축제, 추석 등의 행사 날 즐겨 착용된다. 유카타라는 명칭은 ‘욕의[浴衣]’라는 한자어에서 짐작하듯, 몸의 물기를 닦는 수건인 ‘유카타비라’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원래 귀족들이 목욕 후에 입는 옷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민간에서도 이용하게 됐고,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대부터는 외출복으로 입게 됐다.



‘의복구성 실습Ⅱ’ 수업의 유카타 발표회



‘염색 가공학 실험’ 수업



‘복식 구성 실습Ⅰ’ 수업

야스다여자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교육과정

^{*}기모노 관련 교과목

과목명	대상	설명
마호로바 교양 세미나Ⅰ~Ⅳ	1~4학년	입학생이 대학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공부하고 나의 길을 찾아갈 것인가, 장래 사회인이 갖춰야 할 성품은 무엇인가 등에 관해 배운다. 대학 교육의 기초가 되는 글쓰기 연습을 한다.
복식 구성학	1학년	의복의 기원과 유형·형태의 변천, 신체 발달과 피복 설계의 관계, 평면구상, 패턴 디자인, 의복의 소재, 제품 설계와 생산 공정 등을 학습한다.
복식 디자인론	2학년	복식 디자인의 정의와 분야를 살핀 후, 복식 디자인의 기초·원리·형태를 알아본다. 복식 디자인의 소재와 색채 효과를 이해하고 복식 디자인의 이미지를 분석한 후, 체형과 비율, 실루엣을 고려한 작품을 발표한다.
의류 CAD·CGⅠ	2학년	의류 CAD의 조작 방법과 그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의복 패턴의 작성 방법을 연습한다. 과제는 기초적인 스커트나 블라우스의 패턴 제작. 이 과정에서 기본 이론, 디자인 방법, 사이즈에 대한 이해, CAD·CG를 다루는데 필요한 컴퓨터 기술 등을 습득한다.
의류 CAD·CGⅡ	2학년	CAD로 원피스, 바지 메이킹 작업에 도전한다. CAD 패턴 마킹과 사양서를 작성해 본다.
의복 구성 실습Ⅰ [*]	2학년	기본적인 봉제 기술을 습득하고 실물 제작에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평면 구성과 입체 구성의 차이, 인체와 패턴의 관계를 이해하고, 소재에 맞춘 봉제법을 습득한다.
패션비즈니스 이론	2학년	의류 산업계의 동향을 살피고, 패션 상품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이해한다. 소비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상품 개발과 판매전략을 수립해 본다. 현대 패션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 미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염색 가공학 실험	3학년	염료와 섬유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염료와 섬유의 종류를 알고, 착색에 필요한 염료의 양을 산출하며 염색의 효과, 염료 반응의 성질 등을 학습한다.
의류관리학	3학년	옷의 얼룩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얼룩의 개념과 세탁 원리, 세제의 역할과 폐액의 문제점을 이해한다(피복 손상의 개념, 세탁용수의 종류와 특징, 첨가제·표백제·증백제의 성분 등).
의복구성 실습Ⅱ [*]	3학년	일본 전통 복식 중 하나인 유타카의 구조와 특징을 알고, 제작해 본다. 유카타 재단·무늬 맞추기, 전통 복식 바느질 방법, 관리법 등을 습득한다.
패션조형연습	4학년	디자인의 실제(이미지 맵 제작 후 디자인 구성, 검토), 패턴의 작성과 수정, 소재에 맞는 바느질 기술을 익히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본다.
졸업연구	4학년	졸업논문의 완성을 위해, 조사와 결과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설문조사와 통계분석 기술을 습득하고 발표회 준비를 한다.

일본여자대학 日本女子大学

구분	대학	위치	도쿄	개교년	1901년
학부	가정학부	학과	피복학과[被服学科]	홈페이지	https://www.jwu.ac.jp
주소	도쿄도 분쿄구 메지로다이 2초메 8번 1호(東京都文京区目白台二丁目8番1号)				



가) 학교개요

1901년에 나루세 인조 成瀬仁蔵가 설립한, 일본 최초의 여대다. 여자들의 고등교육은 무의미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시절, 나루세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이에 공감한 와세다대학교의 설립자인 오쿠마 시게노부 大隈 重信가 창립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재계 유명 인사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일본여자대학교가 설립됐다. 일본여자대학교의 건학 이념은 ‘여자를 사람으로 교육한다.’, ‘여자를 부인으로 교육한다.’, ‘여자를 국민으로 교육한다.’이다. 부인과 국민에 앞서 ‘여성’을 강조한 것은 남녀평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여성은 시대를 이끄는 부인이자 국민이라는 인식을 일본 사회에 촉구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기도 하다.

개교 초에는 가정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로 단출히 출발했으나 지금은 건축 디자인 학부, 국제문화학부, 가정학부, 문학부, 인간사회학부, 이학부, 식과학부를 갖췄다. 대학원에 해당하는 연구과도 개설돼 건축 디자인 연구과, 가정학 연구과, 문학연구과, 인간 생활학 연구과, 인간사회 연구과, 물리학과를 운영 중이다.

주요 연혁	
1896년	나루세 인조, ‘일본여자대학교 창설 취지문’ 발표
1900년	미츠이 그룹에서 학교 설립 토지 기증
1901년	일본여자대학교 개교(가정학과, 국문학과, 영문학과)
1948년	일본여자대학 통신교육부 개강(남학생 수강 가능)
2001년	2001년: ‘f-Campus’ 운영(릿쿄대학교, 와세다대학교와의 학점교환 제도)

나) 피복학과 소개

생활환경이 급격히 변한 요즘, ‘시대에 맞는 의복이란 무엇인가’를 문화적·과학적 시점에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과다. 섬유, 패션 업계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양성해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피복을 창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일본여자대학 피복학과는 다음의 세 가지를 교육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피복을 종합적으로 배우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피복에 관한 지식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둘째는 ‘미래 목표 실현을 위한 코스 제도’의 도입이다. 직업 현장 일선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배출하고자 ‘(가) 패션 과학 코스’, ‘(나) 패션 디자인 코스’, ‘(다) 패션 아트 코스’ 중 자유롭게 선택해, 1학년 때부터 목표에 맞춘 이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마지막은 ‘자격 취득 지원’이다. 피복학과 졸업생이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을 취직 전에 교내에서 준비할 수 있다.

〈취득 가능 자격증과 관련 자격〉

- 1급 의류 관리사
- 중학교·고등학교 교사 1종 자격증
- 박물관 학예원
- 섬유 제품 품질 관리사(TES)
- 패턴 메이킹 기술 검정
- 색채 검정



일본여자대학 피복학과 수업 모습



다) 피복학과 교육과정

일본여자대학 피복학과는 옷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보다는 옷의 재료인 섬유와 실을 과학적으로 실험·연구하는 수업에 특화돼 있다. 디자인 관련 수업도 여럿인데, 특이하게 연필 깎는 법부터 가르친다.

의류와 인체의 관계를 고찰하고, 위생적이고 쾌적하며 안전한 의생활을 영위할 방법을 찾는 등 피복학 분야의 문제를 토론하는 탐구 중심 수업이 특징적이다. 커리큘럼 내 일본 전통 복식과 관련된 수업은 복식사 포함 6개다.

일본여자대학 피복학과 교육과정

*기모노 관련 교과목

교과명	최소 학년	교육 내용
기초 디자인 연습	1학년	연필의 종류, 연필 깎는 방법, 사용법을 익힌 후 대상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리는 능력을 키운다. 로고와 마스코트 등 머릿속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배운다.
염직 문화사*	1학년	일본 전통 섬유 제작의 역사와 제작 방법을 이해한다(실 찾기, 염색, 직조 등). 아울러 전통 염직의 보존과 계승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의류 과학 기초	1학년	의복의 기능과 재료, 세탁과 보관, 실과 원단의 염색 등 기초적인 내용을 배운다.
의류 생활 문화론*	1학년	동서고금 불문, 의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일본의 전통적인 의생활 문화, 서양의 디자이너들이 만들어낸 현대 의생활, 젠더와 관련된 복식 문화, 그리고 관혼상제 복식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한다.
의류 인간 공학	1학년	의복을 보다 안전하고 편하고 기분 좋게 만들려면 신체 치수, 상태, 자세, 동작, 생리, 심리, 감각 등 인간의 특성을 알고 이를 고려해서 피복을 설계, 평가, 개선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학문인 인체공학의 역사와 사고방식, 인체공학의 기초가 되는 인체의 특성 등을 살펴본다.
의류 환경 과학	1학년	인간-의복-환경의 관계 속에서 의복을 파악한다. 더위와 추위에서의 쾌적성, 움직임 때의 편의성, 피부의 위생과 촉감 등 의생활을 과학적으로 바라본다.
의류 재료	1학년	쾌적한 의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피복 소재의 종류와 성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의복을 선택하고 다루는 방법을 배운다. 실과 천(직물, 니트, 부직포 등)이 제품화되는 과정을 학습한다.

의복 기초 실험·실습	1학년	의복의 세탁, 염색, 정리, 봉제, 패턴, 실과 천의 소재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을 쌓는다. 2~3학년 수업의 기초를 닦는다.
패션 비즈니스 이론	1학년	패션 산업의 구조를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체득한다. 의류 산업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한다.
색채학	2학년	색을 보는 눈의 구조, 색을 나타내는 방법(표색계), 색의 성질, 색이 보이는 원리, 색의 계측 등 기초 지식을 배운다. 색채를 생활 속 디자인에 응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서양 복식 문화사 I	2학년	유럽 복식의 역사를 여러 이미지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시대별 복식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 서양복식문화의 변천을 고대부터 17세기까지 개설한다.
서양 복식 문화사 II	2학년	유럽 복식의 변천을 18세기부터 현대까지 개설한다. 영화 감상으로 다채로운 서양 복식의 아름다움을 경험한다.
섬유 공예 연습	2학년	섬세하고 우아한 리버 레이스를 중심으로, 파리 오토 쿠튀르(고급 주문복) 아틀리에에서 실제 사용하는 기법으로 작품 1벌을 완성한다.
섬유 재료학	2학년	섬유의 분류·구조·성질·용도에 대해 배우고, 최신 기능성 섬유를 살펴본다.
염색가공과학	2학년	염료의 종류와 성질, 침염과 날염 염색법, 그리고 염색 전 처리 공정과 마무리 가공에 대해 배운다. 염색물을 다루는 데 중요한 견고성(세탁, 땀, 마찰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변색·퇴색하는지 등)을 실험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익힌다.
의류 디자인	2학년	먼저 유행과 트렌드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점, 선의 집합인 형태로서의 디자인, 색깔, 색의 조합 등 복식 디자인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알고 응용해 본다. 끝으로 근·현대 디자이너의 역사를 배우고 패션의 앞날을 고찰한다.
의류 생산 실습 I	2학년	신체 사이즈를 재는 방법을 실습하고, 체형과 옷 사이즈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입체 구성을 위한 평면 제도법을 배워 스커트를 만든다. 바느질 기초와 기계 다루는 법도 익힌다.
의류 생산 실습 II	2학년	재킷 제작을 통해 의복의 구조, 패턴, 소재, 부자재, 각종 봉제 기기의 취급 방법을 이해한다. 의류 CAD 공정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의류 설계 및 생산론 I	2학년	의복의 설계·생산에 필요한 신체의 구조와 움직임, 형태에 대한 이해, 의복의 패턴 설계법, 의복 소재와 가봉의 문제, 의류 생산 공정에 대한 지식을 두루 학습한다.
의류 설계 및 생산론 II	2학년	의류 생산의 구조를 이해하고, 의복 소재의 다양화, 의류 생산의 고속화에 따른 의류 기기의 고도화를 이해한다. 전반에는 각종 패턴 메이킹을 배우고 후반에는 제품의 패턴 제조, 봉제 가공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의류 실습 I*	2학년	중학교·고등학교 피복 제작 분야의 교재를 연구한다. 간단한 봉제 기술을 습득해, 지도 방법과 유의점을 고찰한다. 유카타 착장법을 익히고 일본 전통 복식 제작의 기초 지식을 쌓는다.
의류 실습 II	2학년	‘의류 실습 I’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제작 실습을 경험해 본다.
의류 재료학 실험 I	2학년	섬유의 감별, 혼용률 측정 방법을 알고, 실험을 통해 각종 섬유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을 이해한다.
의류 재료학 실험 II	2학년	섬유와 섬유 제품의 구조, 물리적 성능에 관해 실험하고, JIS 기준의 시험, 평가 방법을 익힌다.
의상 디자인 연습	2학년	9등신의 누드 모델, 제품을 그리는 방법, 소재를 표현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복식 디자인 주제를 정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일본 복식 문화사 I *	2학년	문헌자료·회화자료·실물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복식의 역사를 밝힌다. 조몬·야요이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까지 강의한다.

일본 복식 문화사 II★	2학년	일본 모모야마 시대 이후의 복식 변천을 살펴본다. 옷의 형태는 물론, 옷차림에 담긴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역사를 이해한다. 문헌자료, 회화·조각, 염직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경험한다.
섬유가공	3학년	쾌적함, 건강, 안전에 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진 요즘,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텍스타일을 살펴보고 최신 가공 기술에 대해서 배운다.
의류 CAD 연습	3학년	의류 CAD 시스템을 이용한 의복 설계의 기초 지식을 쌓는다. 패턴 메이킹 소프트, 텍스타일 디자인 소프트, 가상 피팅 소프트 및 주변기기를 사용해 의류의 설계 생산 공정을 효율화하는 중요한 툴 조작법을 실습한다.
의류 기획론	3학년	의류 산업에서 상품 기획 방법을 배운다. (1) 패션 산업의 소비자와 시장, 그리고 유통구조의 현실을 이해한다. (2)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초래하는, 의류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유행을 고찰한다. (3) 상품 기획을 위해, 자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
의류 디자인론	3학년	디자인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패션·트렌드·생활·시장이 복잡하게 얽힌 의류 디자인을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고 디자인의 구조를 파악해 본다.
의류 조형 실습 I★	3학년	일본 전통 복식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유카타’를 제작해 본다. 유카타의 구조, 염색 기법과 무늬, 일본의 전통 바느질 기술 습득이 목표다. 유카타를 완성한 후에는 입는 법과 꾸미는 법을 살펴보고, 남는 천으로 소품을 만든다.
의류 조형 실습 II	3학년	소매와 옷깃이 있는 원피스 제작을 통해 패턴 메이킹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신체, 디자인, 소재, 봉제의 관계를 이해한다.
의류 통계학	3학년	통계학의 기초 지식을 쌓고(검정, 상관·회귀 등), 설문조사와 분석 방법을 익힌다.
의류 품질 관리를 위한 사례 연구	3학년	의류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를 소개하고 대책을 주제로 강의한다. 섬유 제품 품질 관리사(TES) 취득 준비를 겸한다.
의류 상품학	3학년	의류 상품의 생산, 유통, 산업, 마케팅, 브랜드, 가격 등의 차이를 파악하고 문제를 고찰한다.
의생활 환경 실험	3학년	의복의 쾌적성이나 안전성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인간의 심리적 반응, 섬유의 물리적 반응을 실험을 통해 측정한다.
패션 마케팅 이론	3학년	With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화된 패션 산업의 동향을 살핀다. 패션 산업의 역사·현황·장래에 대해 논하고, 의류 업계의 현상과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으로 배운다.
의류 트레이닝	4학년	사회과학 관점에서 피복과 관련된 문제를 고찰하고 졸업 연구로 연결한다.
피복학 종합 연습	4학년	전반은 졸업 연구를 위한 연구계획법, 분석법, 피복구성학 분야에서의 연구사례를 조사한다. 후반은 각자 졸업 연구의 진척 상황을 발표하고 토론해 본다.
피복학 복습	4학년	졸업논문의 주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연구 방법, 자료 검색 방법, 논문작성 방법을 배운다.
졸업논문	4학년	대학에서의 배움을 집대성하는 연구과제를 정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와요여자대학 和洋女子大学

구분	대학	위치	치바	개교년	1897년
학부	가정학부	학과	복식 조형학과[服飾造形学科]	홈페이지	https://www.wayo.ac.jp
주소	지바현 이치카와시 고후다이 2-3-1(千葉県市川市国府台2-3-1)				



가) 학교개요

1897년에 문을 연 와요여자대학은 125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여성 전문교육 기관이다. 설립자인 호리코시 치요 堀越千代는 여성 교육이 일본 근대화의 필수요소라 봤다. 여성들이 문해력을 높이고 예법을 몸에 익히며 수학과 화학을 배워 사물의 합리적인 이치에 눈을 뜨는 것이 곧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 아래, 와요여자대학은 여성들이 다섯 가지 힘을 기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자신을 알고 자존감을 느끼는 힘, 기초학력과 문장력,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전문능력).

와요여자대학에는 대학과 대학원이 설치돼 있는데, 대학의 경우 4개 학부로 나뉜다. 인문 학부에는 일본문학문화학과(일본문학전공/서예전공/문화예술전공)·심리학과·어린이발달학과, 가정학부에는 복식 조형학과·건강영양학과·가정복지학과(가정복지 코스/아동복지 코스)가 있다. 국제학부에는 영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국제학과, 간호학부에는 간호학과가 단독 개설됐다.

주요 연혁	
1897년	창설자인 호리코시 치요가 도쿄에 '화양재봉여학원' 설립
1946년	전쟁으로 교사 소실 후, 지바현으로 이전
1949년	일본의 신교육 제도 아래, 와요여자대학 가정 학부로 출발. 생활학과·피복학과 설치
1998년	가정학부에 '복식 조형학과', '건강영양학과', '생활환경 학과' 개설

나) 복식 조형학과 소개

복식 조형학과는 와요여자대학이 설립할 당시부터 가정 학부 아래 설치돼, 여러 번 학제 개편이 있었으나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온 전통 깊은 전공과다. 복식 조형학과와 목표는 의상 제작을 기획·디자인한 후 제품으로 구현하고, 소재를 개발하며, 패션 코디네이트와 비즈니스를 배워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여성 인재 양성이다. 변하는 의생활 환경에 맞춰 기능성과 쾌적성 높은 복식을 만들어 대응하고, 현대 패션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교육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를 분석해 아기부터 고령층까지 건강한 의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과제 해결형 수업을 지향한다.

입학 후 1년 동안은 패션에 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배운다. 옷의 본질을 이해하고, 복식의 역사와 문화, 소재, 조형, 기능과 관리, 생산유통 등 여러 관점에서 ‘의생활’에 관해 알아간다. 그리고 ‘기모노 재단’, ‘양복 재단’, ‘패션 디자인’, ‘섬유’ 등 패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익힌다. 실기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안심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소수의 학생을 기초부터 가르치는 것이 장점이다.

2학년부터는 자신의 전문성을 찾아 심화 학습하고, 4학년에 올라가면 대학 생활을 집대성하는 졸업작품 발표회를 열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전문가로 발전한다. 1급 의류 관리자, 가정과 교사(중학교·고등학교), 패션디자이너, 패턴 전문가, 패션 코디네이터 등 학생들이 폭넓게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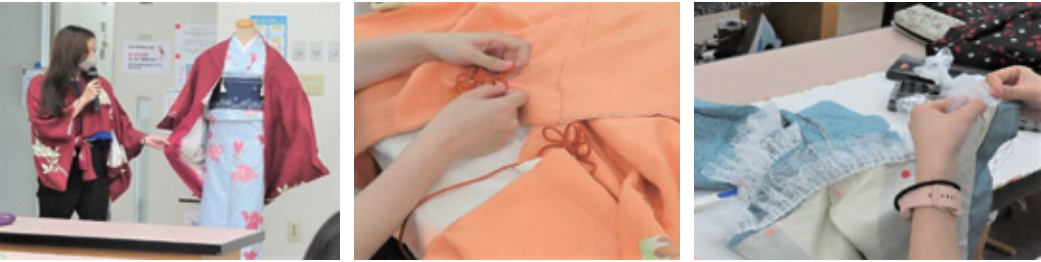
다) 복식 조형학과 교육과정

디자인과 염색, 재단과 바느질은 물론 그래픽, 마케팅, 위생 등에 관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돼 있다. 이 중 일본 전통 복식과 관련된 교과목은 총 8개다. 기모노의 역사와 입는 법,

제작과 관련된 수업이다.

와요여자대학 복식 조형학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업은 옛날 기모노를 업사이클링해서 현대에 맞게 재탄생시키는 ‘현대 기모노 설계’다. 활용되지 않는 가정 내 기모노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문제 인식 아래, 염색과 바느질로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는 기모노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기모노 관련 교과목은 아니지만, 패션 공모전을 준비하는 ‘복식 조형 종합 연습 A’와 지역 패션 산업계와 연계해 현장의 요구를 학생들이 빨리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복식 조형 종합 연습 B’ 수업도 독특하다. 졸업을 앞둔 4학년생들은 1년 동안 졸업작품을 준비해, 다음 해 2월에 성대한 패션쇼를 개최하는 것으로 학교생활을 마무리한다.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에 답한 ‘현대 기모노 설계’ 수업



2022년도 복식 조형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복식 조형학과에서 소개하는 학습 포인트는 네 가지다. (가) 의생활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익히고, (나) 패션과 관련된 분석력과 사고력을 키우며, (다) 배운 내용을 패션 산업 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길 수 있게끔 과제 해결형 학습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라)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와요여자대학의 교육 방침이 잘 드러난다.

와요여자대학 복식 조형학과 교육과정

*기모노 관련 교과목

과목명	대상	설명
복식 조형 개론	1학년	(양복을 중심으로) 소재, 생산, 패턴 메이킹, 의류 산업계의 흐름, 마케팅 리서치 등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
복식 조형 기초 연습*	1학년	일본 전통 복식 재단법과 재봉을 위한 공구 사용법, 재료를 선택해 바느질하는 방법 등 기초 기술을 익히는 실기 수업이다.
세계 복식사	1학년	고대부터 20세기까지, 시대와 지역별 서양의 패션 문화를 이해한다.
일본 복식사*	1학년	조몬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 일본 복식의 역사와 흐름을 살펴본다.
입체 구성학 실습 I	1학년	옷깃과 기장의 관계, 구조를 이해한다.
패션 일러스트	1학년	의복의 조형, 색채, 소재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습득한다.
평면 구성학 실습 I *	1학년	여성용 유카타를 제작해 본다. 전통 복식의 조형과 명칭을 알고, 전통 재단에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와 바느질 법을 학습한다. 특히 재봉의 기초가 되는 바늘 쓰는 방법을 익혀, 기술을 향상시킨다.
염색 가공학	2학년	염료 분자가 섬유 내부에 침투해 착색되는, 물리적 화학 현상에 관해 학습한다.
염색의 역사	2학년	염색 재료와 염색할 직물을 알고, 염직 문화의 국제성과 일본만의 전통성을 살핀다. 염색법과 직조의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패션 디자인 표현 실습	2학년	프레젠테이션, 포트폴리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폭넓은 디자인 표현력을 함양한다.
패션 디자인론	2학년	패션 비즈니스, 디자이너와 MD, 패턴의 역할, 브랜드의 기능을 이해한다. 조형미의 기본 원리와 패션 디자인의 형태, 색, 소재에 관해 소개한다. 체형을 보정하는 디자인의 착시효과와 의류의 상품 기획을 알아본다.
패션 코디네이션 개론	2학년	패션 코디네이터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학습한다(시대별 패션의 특징, 유행 주기, 색채와 소재, 체형 등). 패션 코디네이트의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알고 TPO에 맞는 효과적인 코디네이트 기술을 익힌다.
패션 통계학	2학년	통계학의 기본적인 분석법(분산, 표준편차, 회귀분석, 검정 등)에 대해 알고, 이것이 패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경험한다.
현대 기모노 설계*	2학년	기모노 업사이클링을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다. 염색을 다시 하거나 입는 사람의 몸에 맞게 바느질해, 기모노의 가치를 되살리는 수업이다.
기능 의류 이론	3학년	속옷, 신발류, 운동복, 잠옷 등 다양한 종류의 의복에 요구되는 기능을 인체 특성과 관련해 이해하고, 의류 기획 시 유의점을 주제로 논의한다.
기모노 입기 연습*	3학년	기모노와 속옷, 기모노의 띠, 매듭, 유타카 입는 법, 겹옷에 대해 이해한다.
니들 워크 A	3학년	바늘 뜨개질과 크로세[Crochet] 뜨개질 기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한다. 뜨개질에 필요한 공구, 실, 뜨개질 기호, 뜨개질 계획서 읽는 방법 등을 학습한다.
니들 워크 B	3학년	프랑스 자수를 중심으로, 스티치 워크, 브라이트 워크(비즈, 스팽글 등), 리본 워크, 코드 워크, 미러 워크 등의 기초 기술을 북 커버 제작을 통해 학습한다. 과제로 브러치 또는 목걸이를 제작한다.
복식 조형 종합 연습 A	3학년	패션 디자인 공모전을 가정해, 테마와 소재를 결정하고 요구되는 기능성과 시장성을 고려해 의상을 제작해 본다. 공모전 응모 경위 등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발표한다.
복식 조형 종합 연습 B	3학년	지역의 패션 관련(소품, 잡화) 기업과 협력해, 기업으로부터 제작 노하우를 배우고 디자인 설계 후 샘플을 제작해 본다.

과목명	대상	설명
색채학	3학년	색의 기능과 역할, 빛의 성질, 시각계의 구조, 맨셀 표 색계, 색채 심리학, 비주얼 디자인의 색채, 패션과 인테리어의 색채, 컴퓨터에서의 색 취급과 그래픽 색채 등을 학습한다.
염색 가공학 실험	3학년	염색 가공의 전처리와 다양한 염색 방법을 실험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의류 정리학 실험	3학년	계면활성제의 성질, 세제의 세정력 등의 기초적인 실험을 시행한다.
의류 정리학	3학년	회복력에 중점을 둔 보관 방법을 학습한다(세탁과 얼룩 관리 등).
패션 그래픽 연습	3학년	PhotoShop 해상도, 압축 등 그래픽의 기초에서부터 그래픽 변형, 가공, 색채 변경, 각종 효과 등을 습득한다. Illustrator Bezier 곡선 연습, 문자 디자인에 주안을 두고 간단한 동영상을 제작해 본다. Shade에서는 3D 인터페이스를 습득하고 기초적인 3D 드로잉을 경험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패션 홍보물을 제작해 본다.
패션 기획 실습	3학년	사회 상황, 경제 상황, 패션 동향 등 큰 흐름을 파악하면서, 시장의 요구에 맞춘 타겟을 선정한다. 그런 다음 의복의 소재, 디자인, 칼라 등을 선택하고 가격을 책정한 뒤, 비주얼 머천다이어지[VMD] 역할까지 해보는 실습 위주의 수업이다.
패션 마케팅	3학년	패션 마케팅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을 이해한다. 마케팅 전략의 과정인 STP 분석, 4P 분석을 실제 기업 사례로 설명한다. 그 외 5 Force Framework, SWOT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패션 코디네이션 연습	3학년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코디네이션을 고민하고, 연령별·성향별·환경별로 어떤 코디네이트가 적합한지 사례 연구한다.
평면 구성학 실습 II ~III *	3학년	신체에 맞는 기모노를 제작해 본다. 소재를 선택하고 겹감과 안감을 재단한 후 바느질한다. 기모노 입는 법을 통해 기모노의 구조를 이해하고 고도의 봉제 기술을 습득한다.
피복 위생 실습	3학년	온열 지수와 불쾌 지수를 산출하고 피부 혈류량 등을 체크해 의복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탐구한다.
피복 위생학	3학년	사람과 환경을 연결하는 의복의 역할, 의복의 기능성과 건강(통기성, 흡수성, 보온성 등)에 관한 수업이다.
기능 의류 연습	4학년	속옷, 신발류, 운동복, 잠옷, 출산복, 유아복, 신발 등의 쾌적성과 기능성, 촉감 등을 비교해 평가하는 수업이다.
섬유 디자인 연습 A	4학년	AI 앱 'Stable Diffusion'을 이용해 CG를 생성하고, Photoshop으로 텍스타일을 완성하는 기술을 익힌다.
섬유 디자인 연습 B*	4학년	스스로 디자인한 원단이 실제 착용했을 때, 원하던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한다. 1학년 때 배운 바느질법을 복습하면서 본인의 원단으로 여성용 기모노를 제작한다.
의상 디스플레이	4학년	의상 전시 연출 방법과 비주얼 머천다이어지에 필요한 이론을 설명한다. 실제 학교 내 점포에서 상품 진열과 쇼 윈도우 장식 등을 연습한다.
패션 비즈니스 영어 회화	4학년	해외 브랜드의 일본 시장 진출로 필수가 된 영어 패션 용어를 배운다. 상황별(트렌드, 코디네이션, 가격 협상 등) 영어 대화 기술을 습득한다.
평면 구성학 실습 IV*	4학년	기모노 착용 시 입는 외투를 제작한다. 치수 재는 법, 옷깃의 형태, 바느질 법, 장식용 매듭 끈에 대해 이해한다.

오오즈마여자대학 大妻女子大学

구분	대학	위치	도쿄	개교년	1908년
학부	가정학부	학과	피복학과[被服学科]	홈페이지	https://www.otsuma.ac.jp
주소	도쿄도 지요다구 산반쵸 12번지(東京都千代田区三番町12番地)				



가) 학교개요

일본에서 여성이 교육받고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려웠던 20세기 초, 일본과 서양의 봉제 기술을 익혀 학교 교사가 된 오오즈마 코타카 大妻コタカ가 1908년 사립학원을 세우면서 시작 된 학교다. 오오즈마 코타카는 가정학의 과학적 접근과 학습을 강조한 일본 여성 교육의 선구자이며, 오오즈마여자대학 역시 오랫동안 가정경제 분야에 특화된 기관으로 좋은 아내와 현명한 어머니 교육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지금은 가정학부 외에도 문학부, 사회 정보학부, 인간관계학부, 비교문화학부가 편성돼 있고, 대학원 과정도 갖췄다.

주요 연혁	
1908년	재봉·수예 학원으로 시작
1916년	오오즈마기술학교 설립
1916년	오오즈마기술학교 재봉부에 야간반 설치
1942년	오오즈마여자전문학교 인가
1949년	오오즈마여자대학으로 변경(가정학부 피복학과, 음식학과, 가정이학과, 별과)

1980년	대학원(남녀공학) 가정학 연구과 피복학 석사과정 설치
1996년	대학원(남녀공학) 가정학 연구과 피복 환경학 박사과정 설치

나) 피복학과 소개

의류의 소재에서부터 최종 생산품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폭넓게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류와 인간·사회·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가치를 찾아내 생각해서 행동하는 여성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오오즈마여자대학 피복학과 교육의 특징은 실험이다. 섬유 실험, 염색 실험 등 학생들이 의류 산업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최고의 실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 외부 기업, 단체와 제휴해 학외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1학년 때는 기초 지식을 쌓고, 2학년에 올라 가면 ‘피복학 코스’와 ‘패션 환경 매니지먼트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기모노 제작 수업



졸업작품 전시회



‘KIMONO SALONE in 도쿄 국제 포럼’에 출품한 오오즈마여자대학 피복학과 학생들의 기모노 작품

다) 피복학과 교육과정

교육 커리큘럼 내에서는 일본 전통 복식과 관련된 교과목이 3개 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기모노를 만들고 결과물을 전시하는 활동이 활발하다. 실험과목이 많고, 소비자 연구와 마케팅 과목에 강점이 있다. 패션 동향을 살피고 설문지 작성과 통계 분석 방법 등을 익혀 의류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이 여럿이다.

오오쓰마여자대학 피복학과 교과과정

*기모노 관련 교과목

교과명	학년	교육 내용
복식 공예	1학년	다양한 복식 공예 중 뜨개질과 자수에 관해 배운다. 편물은 대바늘 뜨개질·코바늘 뜨개질·아프간 뜨개질, 자수는 크로스스티치와 프랑스 자수를 익힌다.
색채학	1학년	색채 이론을 과학의 관점에서 학습한다. 패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컬러 코디 연습을 한다.
서양 복식 문화사	1학년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서양 복식사를 배운다. 옷차림 속에 숨겨진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다양성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의류 제작 I	1학년	옷(스커트,블라우스 등)을 실제 제작·착용해 봄으로써 디자인과 소재, 체형과 패턴의 관계를 이해한다. 그리고 옷의 구조, 재단과 기본적인 바느질 법 등을 익힌다.
의생활과 화학	1학년	피복학과 소재 관련 수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화학 지식을 습득한다.
일본 복식 문화사*	1학년	원시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본 복식의 역사를 강의한다. 복식의 형태, 구조, 재료, 옷에 표현된 미의식, 기능성 등을 일본의 문화, 사회 배경 속에서 다각도로 파악한다.
일본 옷 제작 I*	1학년	유카타를 직접 제작해, 일본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피복구성의 기초적 기술을 익힌다. 또한 유타가 입는 방법을 살펴본다.
패션 비즈니스	1학년	패션 브랜드 전략과 마케팅 방법을 배운다.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패션 비즈니스에 대한 적절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다.
패션 통계학	1학년	패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초적인 통계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는 능력을 기른다.
피복 재료학	1학년	의복에 사용되는 천, 실, 섬유를 자연 과학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피복 체형학	1학년	옷이 몸의 근육, 신체의 움직임, 촉감과 후각, 심리적 반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의복 설계와 제작에 필요한 신체 계측법을 배우고, 쾌적함의 정도를 평가해 본다.
계면 과학	2학년	세제에 포함된 계면활성제의 성질과 작용, 세정 보조제, 세탁용수, 세정 이론을 배운다.
기능성 피복 재료	2학년	기능성 섬유의 화학·물리적 특징, 형태학적 특징을 이해한다.
기초 디자인	2학년	디자인의 역사와 기초 이론을 알고, 미적 감각을 기른다.
섬유 과학	2학년	섬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섬유의 성질을 분자론적, 미세구조적, 형태적으로 파악한다.
섬유 제품 소비 과학	2학년	섬유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의 흐름을 체계화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파악하고, 그 심리를 이해한다.

교과명	학년	교육 내용
의류 기획 I	2학년	의류 상품 기획 방법을 이해한다. 패션 기획 조사(fashion planning research), 기획한 아이디어의 고찰(creative thinking), 정보를 정리해 표현(information design)하는 능력을 키운다.
의류 기획 II	2학년	의류 기획을 실제 시도해 본다. 주제를 정하고 디렉터의 관점에서 기획과 마케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힌다.
의류 제작 II	2학년	원피스를 자기 몸에 맞게 만들어 본다. 원하는 디자인으로, 효율적인 바느질 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진행한다.
의상 미학	2학년	의복에 담긴 미의식을 문화사적, 미학적 관점에서 고찰한다.
의생활 문화론	2학년	옷과 옷을 입는 행위에 대한 옛사람들의 생각을 엿보고, 의생활과 문화의 관계를 살핀다.
일본 옷 제작 II*	2학년	남성 유카타를 만들어본다. 그동안 배운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소재의 차이가 어떻게 제작상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패션 디자인	2학년	디자인화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패션 스타일링 기술을 습득한다.
패션 마케팅	2학년	패션 마케팅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과 사례를 고찰한다.
패턴 설계	2학년	다양한 입체 의복을 만들기 위한 패턴 전개 방식을 배운다.
피복 관리학	2학년	다양한 성질의 섬유를 세정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세제, 세탁용수, 오염의 종류와 제거 방법 등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피복 구성학	2학년	인체와 의복, 소재·디자인, 봉제, 입었을 때의 움직임 등에 대해 이해한다. 쾌적한 의복 설계 학습이 목표다.
피복 심리학	2학년	의복이 인간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인간관계에서의 역할 등 사회적 기능에 관해 알아본다.
피복 재료학 실험	2학년	‘피복 재료학’과 ‘섬유 과학’ 수업에서 배운 섬유, 실, 직물의 특성을 실험으로 확인하고, 피복에 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한다.
섬유 분석	3학년	섬유 제품의 구조와 성질을 분석하는 기기의 원리, 측정법별 장단점을 배운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의 처리, 해석법을 익힌다.
섬유 어드바이저 실습	3학년	1급 의류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외 실습수업으로, 회사에서 의류관리사의 역할을 체험한다.
소비자 조사법	3학년	소비자 조사법 중 하나인 질문지 조사법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통계분석 기술을 익힌다.
의류 CAD	3학년	의류 설계의 과정을 알고, CAD를 조작해 패턴 메이킹을 시도해 본다.
의류 설계 및 생산 I	3학년	공업적으로 제작된 의류의 기획·설계·생산과 거래, 제품 시험, 검사, 품질 관리, 그리고 여러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의류 설계 및 생산 II	3학년	과학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의류 공업 생산 방식을 이해하고, 샘플 제작 실습을 통해 합리적인 생산 방법을 살핀다.
의류 환경학	3학년	인체와 의복 사이에 만들어지는 미세한 공간, 즉 의류 환경을 학습한다.
패션 소매	3학년	소매 환경에서 마케팅과 판매, 다양한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소매 전략을 세워본다.
세미나	4학년	담당 교수와 졸업 과제를 정하고, 과제 해결 방법을 찾은 후 ‘시제품’ 제작을 구상한다.

* 바틱이란?

바틱 Batik 은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이자 섬유 예술이다. 천에 밀랍을 발라서 다양하고 섬세한 무늬를 나타내는데, 밀랍을 바른 부분에 염료가 스미지 않는 원리를 이용한다. 바틱은 원래 자바어로 ‘점이나 얼룩이 있는 천’을 뜻하는 ‘암바틱 ambatik’에서 유래한 말로, 무늬의 종류만 헤아려도 3천 개 이상이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바틱의 무늬들은 아랍의 서예, 중국과 일본의 전통 문양, 유럽의 화훼문화 등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바틱과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틱 멜빵으로 아기를 업고 다니고, 죽으면 바틱으로 감싸 장례를 치러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다. 인도네시아인들은 결혼식과 예술공연 같은 특별한 날에도 바틱을 착용하지만, 학교나 직장을 오갈 때 일상복으로 많이 입고 다닌다. 요즘은 옷뿐만이 아니라 장신구, 소품, 기념품 등 다양한 물건에 바틱 문양을 새겨 넣으며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바틱 제작 기술은 인도네시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화자산이다. 그 역사·문화적 가치가 인류의 보편성과 인도네시아의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유산으로 인정받아, 2009년 10월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01 패션산업으로서의 바틱

바틱은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생산되고 있다. 서부 자바에만 약 3,000명의 바틱 장인이 있고, 매년 16,858,050,000IDR(약 1조 5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바틱 생산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바틱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매해 산업부, 관광창조경제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부가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패션 주간 IFW Indonesia Fashion Week’을 개최한다. 젊은 바틱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패션 주간 IFW 공식 홈페이지 <https://indonesiafashionweek.id>

이뿐만이 아니다. 자카르타 패션위크, 발리 패션위크 등 패션쇼에 바틱을 소재로 한 의상이 무대에 오르고 있고, 고급 바틱 브랜드도 생겼다. 바틱을 둘러싼 패션업계의 변화와 잠재력 덕분에 바틱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바틱이 패션업계의 중요 콘텐츠가 된 데는 바틱의 거장이라고도 불리는 ‘이완 티르타 Iwan Tirta’*의 공이 크다. 그는 실크 같은 고급 소재 위에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원색과 골드, 블랙, 화이트를 더한 화려한 바틱을 디자인했고 대통령과 고위층, 연예인들이 자주 입으며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완 티르타는 무엇보다 국제 패션 산업계에 바틱 디자인을



바틱 제작 과정(출처: 바틱 박물관)



다양한 무늬의 바틱(출처: 바틱 박물관)

알리는 데 주력했다.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린 APEC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착용할 바틱 셔츠를 디자인해 바틱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지도를 높였고, 인공적인 화학 안료로 대량 생산되는 바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전통 바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 이완 티르타(1935~2010년): 본래 법학을 전공한 학자였으나, 1970년 뉴욕에서 고향인 자바섬으로 돌아와 인도네시아의 전통 수공예 '바틱'에 몰두한 디자이너다. 바틱 패션쇼를 열고 패션 정보지에 바틱의 예술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제 패션 산업계에 바틱을 알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07년에는 바틱 문양이 들어간 도자기와 은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



2022년 인도네시아 패션 주간 IFW 포스터



브랜드 'Iwan Tirta'의 바틱 제품

02 축제로 활성화되는 바틱

① 국립 바틱의 날 National Batik Day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2009년 10월 2일을 '국립 바틱의 날 National Batik Day'로 지정했다. 이날에는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물론, 학생들을 포함해 전 국민이 바틱을 입는다. 또 매주 금요일을 '바틱일'로 정해 일상에서의 바틱 입기를 장려하고 있다.



2022년 국립 바틱의 날(출처: 인도네시아 외교부)



2022년 국립 바틱의 날(출처: 인도네시아 외교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 절차
무형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무형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은 매년 11월경 개최되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1. 준비 및 제출: (1차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접수된 신청서는 다음 해 심사
2. 심사: (1차년도 12월~2차년도 5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대표목록 심사보조기구에서 심사, (2차년도 4~6월) 최종 심사 회의, (국가간위원회 몇 주 전)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에게 심사보고서 송부 및 온라인 게시
3. 결정: (2차년도 11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신청서 최종 심사 및 등재 여부 결정

② 솔로 바틱 카니발 Solo Batik Carnival

바틱의 대표도시 중 하나인 '솔로 시티 Solo City'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여름 축제다. 3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화려한 바틱을 입고 약 4km를 행진하는 모습이 장관이다.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바틱 카니발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와, 인도네시아의 지역 전통을 알리는 축제이자 매력적인 여행지로 각광 받고 있다.

※ 솔로 바틱 카니발: 바틱 생산지로 유명해 '바틱 시티'라고도 불리는 '솔로 시티(Solo City)'에서 매년 여름(6~7월경)에 열리는 축제다. 바틱 문화를 소개하고 산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2008년에 시작됐다.



솔로 바틱 카니발

03 바틱 보호를 위한 제도와 규정

인도네시아 산업부 산하에 설립된 ‘옥야카르타^{*} 공예 및 바틱 센터 [Yogyakarta Center for Crafts and Batik, YCCB](#)’는 바틱의 요건과 바틱 모조품의 개념에 대한 국가 표준 [INS](#) 을 만들었다. 이 표준에 따르면, 바틱은 뜨거운 밀랍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펜 모양의 도구(캔팅) 혹은 스탬프를 사용해 특정 무늬를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를 들어 뜨거운 밀랍을 쓰지 않고 무늬를 내거나 기계로 프린트한 것 등은 전통 바틱이 아니라 바틱 모조품으로 분류된다.

^{*} 옥야카르타(Yogyakarta)는 자바섬 중남부에 있는 특별구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군주가 통치하는 지역이다.

전통 바틱과 현대 바틱 모두 2014년에 제정된 법률 제28호에 의거 자동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법률은 창작물과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문화유산의 저작권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사회 집단 또는 개인이 창작한 민요, 전래동화, 전통 악기, 민속 무용, 서체, 수공예품, 전통의상, 전통 직조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아닌 자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해 출판하거나 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역·적용·변형에도 제약이 따른다. 특히 바틱과 바틱 모티브의 저작권 보호를 직접 명시할 만큼 바틱에 대한 보호 의지가 강력하다. 예전에는 산업디자인을 목적으로 하는 이미지는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2014년부터는 이 역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됐다.

「저작권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28호」
제5장 전통문화표현물 및 보호받는 저작물
제1절 전통문화표현물 및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38조 (1)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가 가진다. (2) 국가는 제1항의 전통문화를 수집, 보호, 유지할 의무가 있다. (3) 제1항의 전통문화표현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관리공동체에 살아있는 가치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전통문화표현물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하는 저작권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1) 저작물의 저작자를 알 수 없고 해당 저작물이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가진다. (2) 저작물이 이미 공표되었으나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저작자의 이명 또는 가명만 쓰인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한 당사자가 가진다.

- (3) 저작물이 이미 출판되었으나 저작자와 공표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가진다.
- (4) 저작자 그리고/또는 공표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제1항과 제3항의 저작자의 이익은 장관이 관리한다.

제2절

보호되는 저작물

제40조

- (1) 보호되는 저작물은 과학, 예술, 문학 분야의 저작물로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a. 도서, 팸플릿, 출판된 어문저작물의 판면 배열 및 기타 모든 어문저작물
 - b. 강연, 강의, 연설 및 기타 동종의 저작물
 - c. 교육과 과학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구
 - 중간 생략-
 - j. **바틱 예술 또는 기타 모티브 예술저작물**
 - k. 사진저작물
 - l. 초상화
 - 이하 생략-

인도네시아에는 법률 제 28호 외에도 바틱 무늬를 보호하거나 입는 방법을 정해 놓은 지역법이 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그로보고 [Grobogan](#)’ 지역에서는 바틱 무늬 등록제를 만들어, 무단 복제와 도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바틱 장인을 보호하기 위해, 그로보고 지역 장인이 제작한 바틱 제품의 표절을 원칙적으로 차단 중이다.

바틱을 둘러싼 분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바틱을 두고 서로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며 충돌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불거진, 바틱 소유권 분쟁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양국은 사실 바틱 외에도 영토 다툼, 말레이시아 이민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문제 등으로 예전부터 갈등의 골이 깊었다. 그러던 중 2005년 12월에 개최된 ‘아세안 전통 텍스타일 심포지엄’에서 말레이시아가 바틱이 자국의 전통의상이며 말레이족의 문화유산이라고 발언해 불화를 키웠다.

말레이시아와의 바틱 분쟁이 일어나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바틱의 법적 보호를 서둘렀고, 정부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바틱 지키기에 나섰다. 2009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그런데 바틱 분쟁은 뜻밖의 효과도 가져왔다. 바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바틱 소비가 늘어나 산업이 성장했고, 바틱 기술 전승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04 페칼롱간^{Pekalongan}의 바틱 교육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모범사례’

페칼롱간은 인도네시아 자바 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로, 오랫동안 수공예 바틱 생산이 주 수입원이었던 곳이다. 그러나 공장제 값싼 직물이 들어오면서 바틱 산업에 위기가 닥쳤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갔다.

2006년에 ‘바틱박물관’이 페칼롱간에서 문을 열었지만, 박물관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런 침체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바틱박물관’은 어떻게 하면 바틱 문화를 알리고 기술을 전승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학교에서 찾았다.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바틱의 전통을 만날 수 있도록 박물관에서 공간과 전문성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바틱박물관’의 뜻과 의지에 공감한 페칼롱간 시는 인도네시아 ‘국가교육체계’에 관한 특별법 20’에 따라 바틱 교육을 학교 의무수업 과제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가정 내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던 바틱이 누구나 배워야 하는 정규교과가 된 것이다.

바틱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세 가지다.

-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직업 고등학교, 기술 전문학교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바틱의 무형문화로서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
- ② 페칼롱간의 바틱 공동체가 바틱 문화의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것
- ③ 바틱 문화 교육 활동에 ‘바틱박물관’이 참여하는 것

바틱 교육 프로그램은 빠르게 확산됐다. 처음에는 ‘바틱박물관’이 바틱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지만, 점차 바틱 교육에 참여하는 학교의 숫자가 늘면서 도시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바틱을 가르치게 됐다. 교육 내용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했다. 도구 다루기, 무늬 디자인하기, 옷감 염색하기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준과 목적에 맞게 다양화됐다. 그래서 바틱 프로그램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무형의 문화자산을 보호하는 교육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페칼롱간 바틱 교육

노르웨이의 전통복식, 부나디 Bunad

* 부나드란?

부나드^{Bunad}는 농부들이 주로 입던, 시골 서민 문화를 반영하는 노르웨이의 전통의상이다. 노르웨이는 까다로운 지형 탓에 이동에 제약이 많았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스타일의 부나드가 제작됐고, 내가 입은 부나드가 곧 나일 만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됐다.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부나드는 바지, 린넨 셔츠, 조끼와 재킷, 모자, 스타킹, 버클 장식이 있는 검정 구두로 구성된다. 여성들의 부나드는 리넨 블라우스에 스커트, 앞치마, 소매 없는 재킷이나 술, 그리고 머리 장식용 스카프로 이루어져 있다.

부나드의 가격은 옷에 붙은 장식의 형태와 은 함량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은 20,000~ 50,000NOK(약 240만 원~600만 원) 정도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80,000NOK(960만 원) 이상 하기도 한다. 물론 어린이용 부나드는 디자인이 좀 더 단순하고 저렴한 편이다. 노르웨이에 부나드가 몇 종류나 있는지,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약 450개의 유형과 55,000개의 패턴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전통 복식 중에서도 노르웨이의 부나드는 보존이 잘된 편이다. 그 이유는 지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노르웨이 국민 스스로 자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나드는 1930년대 이후 축제나 명절 때 입는 공식적인 복장으로 자리 잡았고, 결혼식이나 졸업식은 물론 국경일에도 부나드를 입는 문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부나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부나드의 전통이 미래에도 보존하고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와 노르웨이 정부에 알리기 위해, 노르웨이의 5개 비정부 기구*가 협업해 부나드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내기 전, 노르웨이 문화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부나드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정보 수집에 착수했고, 노르웨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자 서명 운동을 펼쳤으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했다. 부나드의 유네스코 등재까지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눠 체계적으로 접근한 결과, 2023년 초에 유네스코에 부나드의 무형문화유산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 노르웨이 청소년협회[Norwegian Youth Association], 노르웨이 민속예술 및 공예협회[Norwegian Folk Arts and Crafts Association], 노르웨이 민속 의상 포럼[Norsk Folkedraktforum], 노르웨이 부나드 및 민속 의상 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Bunad and Folk Costume], 문화와 전통 연구 협회[Association for Studies of Culture and Traditions]

1단계: 노르웨이 전역에서 부나드 관련 회의를 열고, 다양한 정보 수집

2단계: 1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3단계: 노르웨이 문화부의 '신청서' 평가와 승인

4단계: 유네스코에 신청서 전송(결과까지 길게는 2년 정도 소요)

5단계: 유네스코의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부나드 등재

01 부나드 산업

부나드를 사려면 전문 부나드 디자이너에게 주문하거나, 전문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역마다 독특한 디자인과 형태의 부나드를 생산하는 전문 재단사가 있다. 부나드는 대량 생산하지 않는다. 대형 매장에서 주문하더라도 구매자에게 맞게 특별히 제작된 부나드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부나드를 해외에서 저렴하게 대량 생산해 수입하는 일이 늘면서, 부나드를 문화유산이 아니라 단순한 패션 아이템으로 소비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부나드의 본질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높아졌고, 이를 해결하고자 '부나드 및 민속 의상 위원회'는 노르웨이에서 만들었다는 출처가 없거나 전통성이 배제된 디자인에는 부나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르웨이가 이어온 전통문화의 의미를 훼손하는 디자인으로는 수익 활동을 벌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부나드 제작



1895년 하르당에르 웨딩 파티(출처: flickr)



5월 17일 제한절 시가행진

02 부나드 문화를 활성화하는 행사들

① 제헌절 Syttende Mai

결혼식이나 종교 행사에서도 부나드를 입지만, 거리에서 부나드 입은 사람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날은 5월 17일, 노르웨이의 국경일인 제헌절이다. 이날이 되면, 부나드 차림으로 시가행진을 하고 콘서트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② 성인식

노르웨이에서는 어린이들이 자라서 15세가 되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부나드를 선물해주는 것이 오랜 전통이다.

③ 노르웨이 민속 의상 포럼 Norsk Folkedraktforum

부나드를 아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매년 전시, 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주제는 해마다 달라서 부나드의 디자인, 장인정신, 역사, 무형의 가치 등 다양하다.



2021년 8월 산데피요르드 Sandefjord 가을 포럼 참석자들

03 부나드 보호 정책

노르웨이는 1947년, ‘부나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위원회 Landsnemnda for Bunadspørsmål’를 설립했다. 노르웨이의 정신이 담긴 전통의상을 지켜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부나드 관련 사진과 그림을 모아 등록하고 패턴을 기록하는 연구가 기관의 핵심 업무였다. 현재는 ‘부나드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위원회’에서 ‘노르웨이 의상 및 민속 의상 연구소 Norsk institutt for bunad og Folkedrakt’로 이름을 바꿔, 부나드 제조 산업을 촉진하고 부나드 입는 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08년에 설립된 ‘노르웨이 의상 및 민속 의상 연구소’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나드를 승인해 주거나 거부할 권한은 없다. 그러나 부나드와 관련된 여러 지침을 발표해, 보호와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나드 관련 연구	부나드의 역사적 맥락, 지역적 변화, 장인과 기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문서를 작성해서 보급하는 일
부나드의 보존방안 마련	옛날에 만들어진 부나드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제공하는 일
부나드 상담과 지도	개인과 조직·기관에 부나드의 디자인, 재료, 생산기술, 문화적 가치 등에 관한 것을 자문하고 지도하는 일
부나드 교육	부나드 및 노르웨이 민속 의상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알리기 위한 교육 사업(디자인, 제작 기술, 문화사 등)을 벌이는 일
부나드 전시회와 이벤트 개최	부나드와 노르웨이 민속 의상의 문화적 가치와 장인정신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하는 일

‘노르웨이 의상 및 민속 의상 연구소’에는 문화부 장관이 임명한 5명의 상임 위원과 2명의 부위원으로 구성된 ‘부나드 및 민속 의상 위원회 Bunad og Folkedraktrådet’도 설치돼 있다. 이들은 부나드를 보호하고 홍보하는 법적 책무를 지며, 부나드 발전을 위한 의견을 문화부에 전달하는 자문의 역할을 한다.

‘부나드 및 민속 의상 위원회’의 임무

- 민족의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문서화하고 연구, 보존하며 보급을 촉진한다.
- 민족의상을 문화적 표현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다.
- 민족의상의 생산과 착용에 관한 지식 향상을 도모한다.
- 민족의상의 발전과 활성화를 꾀한다.
- 민족의상의 다양성을 지키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 민족의상을 다루는 전문 기관을 지원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04 부나드 교육

부나드는 노르웨이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부나드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 있고, 지역의 공공 기관에서도 부나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노르웨이 전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장인들이 부나드의 제작 기술을 직접 전수하기도 한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부나드의 전통을 지키려는 교육 활동이 공사를 가리지 않고 노르웨이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드레박물관 ValdresMuseum의 부나드 전시

II 법과 정책 그리고 관계 기관

1. 조례로 성장·발전하는 한복
2. 한복의 발전을 이끄는 기관들

법과 정책은 한복 성장의 디딤돌인 만큼 한복문화와 산업을 촉진하는 전국의 자치규범 현황을 살피고, 한복 활성화를 이끄는 다양한 기관을 정리해 소개한다.

1. 조례로 성장·발전하는 한복

한복을 문화유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무형문화유산 중 하나로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이 명시돼 있어서, 한복도 그 테두리 안에서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한복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에서 공포된 한복 관련 조례는 22개다. 이들 조례에는 ‘한복 입는 문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대부분 포함한다. 한복의 일상화가 산업발전과 문화 확산에 중요한 까닭이다.

2022년도에 새롭게 제정된 한복 관련 자치법규는 경기도 여주시의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다. 이 조례에 의거, 여주시는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에 한복 입기를 권하고, 행사 날 한복을 입으면 관람료(이용료, 입장료)를 감면해줘야 한다. 그리고 한복 생산·보급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한복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게 됐다.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이처럼 제도와 지원금으로, 한복 산업육성과 홍보, 여주시민들의 한복문화 향유 확대에 힘쓰겠다는 여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다.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22. 12. 2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129호, 2022. 12. 2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착용 권장)	①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글을 테마로 한 한복 개발 및 착용을 우대하는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통문화행사 및 축제)	시장은 전통문화행사 및 축제에 복식을 고증하고 재연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와 적절한 예산 배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한복 관련 조례

연번	법령명	지역명	공포일자	시행일자	부서
1	전라북도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2009.04.24.	2009.04.24.	-
2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경기도	2013.12.02.	2013.12.02.	-
3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	경상남도	2014.10.10.	2014.10.10.	경제기업국 기업정책과
4	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대구광역시	2015.05.20.	2015.05.20.	-
5	부산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2016.11.02.	2016.12.3.	-
6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전라북도 전주시	2016.02.15.	2016.02.15.	문화유산과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6.03.10.	2016.03.10.	문화관광과 문학·미술관팀
8	전라남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2018.11.08.	2018.11.8.	문화예술과
9	서울특별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2018.03.22.	2018.03.22.	문화재정책과
10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2019.10.16.	2019.10.16.	문화예술과
11	한복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2020.01.01.	2020.01.01.	문화예술과
12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2020.10.07.	2020.10.07.	-
13	부산광역시 동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2020.10.08.	2020.10.08.	총무국 문화관광과
14	광주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2020.11.13.	2020.11.13.	문화유산자원과
15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2020.12.10.	2020.12.10.	문화예술과
16	광주광역시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12.15.	2020.12.15.	세계민주시민교육과
17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2021.10.01.	2021.10.01.	문화예술과
18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2021.12.31.	2021.12.31.	문화정책과
19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복입기 활성화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1.06.30.	2021.06.30.	문화관광과
20	남원시 한복문화 진흥 및 한복체험관 운영 조례	전라북도 남원시	2021.07.02.	2021.07.02.	관광시설운영관광 시설사업소 예촌지구담당
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1.09.27.	2021.09.27.	민주시민교육과
22	여주시한복입기활성화지원조례	경기도 여주시	2022.12.21.	2022.12.21.	문화예술과

2. 한복의 발전을 이끄는 기관들

한복 진흥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활약하는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다. 이들은 한복을 우리의 오래된 무형의 생활문화이자 예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 기술로,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미래의 유망한 먹거리인 콘텐츠로, 제각각 다른 관점에서 한복을 다룬다. 그러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든 목표는 ‘한복의 전통 보호와 활성화’다.

※ 이번 백서에 소개되지 않은 기관이나 담당 부서가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01 중앙부처

①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목표로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기관

구분	부서		내용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 전통문화, 한복 관련 업무	044-203-2548
			• 전통문화 법제도 및 정책 총괄 • 전통문화 대표 분야(한복) 육성지원 •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개발(한복) • 한복 도감 아카이브	044-203-2553
(재)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팀	• 한류, 한복해외교류 사업 •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 한복문화주간 운영 • 한복 전문교육, 연구 활성화	02-398-1620
		한복사업팀	• 전통한복 개발과 소재 목록화 • 한복교복 보급, 한복근무복 개발 • 한복상점 운영, 온라인 유통 지원 • 한복디자인 공모전, 신진디자이너 상품개발, 우수문화상품 지정 • 한복마름방 교육	02-398-1630

* 문화체육관광부 출연 국가법인

② 문화재청

※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를 기치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문화자산을 지키고 알리며, 연구하는 기관

구분	부서	내용	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전통지식·생활관습 종목 지정 및 관리 총괄	042-481-4962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유기물보존팀	• (전통 복식 포함) 직물 문화재 보존처리	042-860-9380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 (전통 복식 포함) 직물류 보존처리, 복원 복제	02-3701-7694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점검 • 무형유산 종합조사 업무 총괄 • 세계무형유산포럼 및 학술대회 총괄 • 학술조사 및 국내·외 학술교류 총괄	063-280-1511

* 문화재청 소속 기관

02 전국 지자체

① 서울특별시

행정부	구분	부서	내용	연락처
	종로구청	문화과 문화정책팀	•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 전통생활문화한마당 • 종로구립예술단 관리 및 지원사업 • 창작오픈스튜디오 조성 • 한복활성화 추진 관련 업무	02-2148-1804
			•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총괄 • 한복축제 지원	02-2148-1807
관계 기관	은평구청	은평한문화박물관 경영 지원팀	• 너나들이센터 관람안내 • 한복체험실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02-351-8523
	기관명		내용	연락처
체험 시설	종로문화재단* 문화사업부		• 종로한복축제 운영(매년 10월)	070-4600-5719
	기관명		운영 주체	연락처
	북촌 곱다한복체험관		종로구청	02-742-9987
	상촌재전통문화교실		종로문화재단	02-6013-1142
	은평한문화박물관** 너나들이센터		은평구청	02-351-443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976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

** 은평구 교육문화국 담당

② 경기도·강원도·충청도

행정부	구분	부서	내용	연락처
	(경기도) 고양시청	교육문화국 관광과 관광정책	• 관광정보센터 운영(한복체험실 포함) • 국내외 방문객 고양시 관광정보 제공 • 지역관광 연계 프로그램 기획, 관광상품개발	031-8075-3003
	(강원도) 강릉시청	오죽헌 시립박물관 관리팀	• 한복체험관 운영 일반	033-660-3324
체험 시설	기관명		운영 주체	연락처
	경기도	고양관광정보센터 한복체험실	고양시청	031-905-8396
	강원도	강원감영 한복체험관	원주시청	033-747-2416
	강원도	김유정문학촌 한복체험관	춘천시청	033-261-4650
	강원도	오죽헌 한복체험관*	강릉시청	033-642-4982
	충청북도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옥천군청	043-730-3420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모시관	서천군청	041-951-4100

* 울곡교육원 내 위치

③ 경상도

행정부	구분	부서	내용	연락처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 문화산업 시책 개발,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지원 •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등	054-880-3142
	영주시	소수서원 관리 사무소	• 선비세상 활성화 업무	054-639-4851
	상주시	상주시 문화예술과	• 한국한복진흥원 운영 및 관리 • 지붕없는 박물관 조성	054-537-7207
	밀양시청	관광진흥과	•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 • 한복문화 지원 거점 사업 친절 캠페인	055-359-5782
관계 기관	구분	부서	내용	연락처
	한국한복 진흥원 [*]	운영지원팀	• 상주시, 의회 등 업무 협의 • 회계, 지출, 결산, 세금, 예산, 계약, 구매, 세금, 등의 업무 • 복무, 노무, 채용 • 자산과 재물조사 및 시설관리	054-541-9521~3, 9530
		한복사업팀	• 한복문화가 있는 날, 한복한 네트워킹데이 • 전통복식 활성화 지원사업 • 한복문화 콘텐츠공모전 •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지원 • 입주기업 관리 및 사업지원, 패션디자이너 역량 강화 • 한복전시홍보관 운영, 한복진흥원 전시 기획 • 한복진흥원 대외홍보 및 SNS홍보	054-541-9525~8, 9513
	선비세상 ^{**}	한복촌	• 한복문화관, 의관정제 체험 운영 • 자율포토존, 미디어 아트관 관리	054-638-6444
	기관명	운영 주체		연락처
체험 시설	사명대사공원 한복체험관		김천시청	054-421-1557
	전통문화체험관		영천시	054-330-6000
	김해 한옥체험관		김해시청	055-322-4735
	한복문화체험관 ^{***}		창원시청	-
	창원시도시재생센터 한복체험관		창원시청	070-8814-0141
	산청남사예담촌 전통한복체험관		산청군	070-8199-7107

^{*} 경복문화재단 산하기관, ‘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정에 근거해 설립

^{**} 영주시 산하 소수서원 관리 사무소 운영

^{***} 부림창작공예촌 내 위치

④ 전라도

행정부	구분	부서	내용	연락처
	전주시청	문화체육관광국 한문화	• 한지문화축제 • 한복활성화 사업 • 한스타일 특구 사업 등	063-281-2931
	남원시청	관광시설사업소 예촌지구운영	• 화인당 관리, 한복체험프로그램 기획 • 한복문화 활성화 기획 및 행사 운영	063-620-5658
	곡성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정책	•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061-360-8460
관계 기관	기관명		내용	연락처
	한국전통문화전당 [*]		• 한복문화창작소 운영 • 한복문화주간 행사 기획 및 추진	063-281-1576
			•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사업	063-281-1577
	순천문화재단 ^{**}		• 창작예술촌 2호(김혜순 한복공방) 관리 • 공간 테마(공예)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 2023년 전시 프로그램 환경조성, 운영 관리	061-746-2916
체험 시설	기관명		운영 주체	연락처
	김제 벽골제 한복 체험장		김제시청	063-540-3649
	화인당 한복체험관		남원시청	063-632-8100
	순천 창작 예술촌 2호 김혜순 한복공방		순천문화재단	061-746-2917

^{*} 「민법」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

⑤ 광역시, 자치시

	기관명	내용	연락처
관계 기관	부산패션비즈센터*	• 한복 포함 패션업계 종사자 지원 • 패션컨벤션홀, 패션쇼룸, 미팅룸, 스튜디오, 재단실, 소재실, 교육실, 회의실 등 운영	051-715-1900
체험 시설	기관명	운영 주체	연락처
	월미공원 전통정원 양진당	인천광역시	032-440-5913
	소창체험관**	강화군	032-934-2500
	부산전통문화체험관	부산광역시 서구	051-240-4161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한복문화체험실	대구광역시	053-253-4729
	모명재 한복전통문화체험관	대구광역시	053-666-4930
	한국효문화진흥원***	보건복지부	042-580-9000
	전통문화회관	광주문화재단	062-670-8550

*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서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 1938년에 건축한 한옥과 염색공장이 있던 옛 평화직물을 강화군에서 2016년에 매입 후 체험관으로 조성
*** 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위치



선비세상(왼쪽부터 한복문화관, 의관정제 체험, 야외 포토존), 경상북도 영주시



2021년 개관한 부산패션비즈센터 내부 시설(왼쪽부터 봉제실, 전시실, 패션컨벤션홀), 부산광역시

11

2022년

한복 종사자가 진단한 한복 산업계의 동향

- 1. 산업체 현황
- 2. 한복 산업계의 내외부 동력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한복 산업
- 4. 한복 산업의 미래 전망
- 5.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

한복의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새로운 소재와 디자인의 한복을 선보이는 일. 일견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 ‘보호’와 ‘도전’이라는 어려운 사명을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이 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은 2022년도의 한복 생태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진단할까. 종사자들의 견해는 한복의 현재를 바라보는 척도이며,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귀 기울이느냐는 한복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내는 열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복과 관련된 제조업, 판매업, 대여업, 학술 연구와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중견 전문가다. 지리적 범위는 전국이며, 소재지가 설문 참여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비대면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을 택했다.

문항은 객관식 29개와 서술식 1개로 구성했다. 이중 객관식 문항은 보기 중 가장 부합하는 내용의 것을 선택하는 ‘단일 선택형 문항’과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또는 수준)를 결정해 답하는 ‘7점 척도 문항’으로 나뉜다. 7점 척도 문항은 ‘매우 부정적(1~2.1점)’, ‘부정적인 편(2.2~3.3점)’, ‘보통(3.4점~4.6점)’, 긍정적인 편(4.7~5.8)’, ‘매우 긍정적(5.9~7점)’의 4단계로 평가했다.

- ※ 용어정리
 - **평균값(mean)**: 표본을 모두 더한 후 해당 표본의 수로 나눈 값
 - **표준오차**: 설문 조사로 추정한 표본의 평균과 참값인 모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
 - **95% 신뢰구간**: 표본집단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최소값(하계)과 최대값(상계)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뜻
 - **하계[Lower bound]**: 신뢰구간의 최소값
 - **상계[Upper bound]**: 신뢰구간의 최대값

- **설문 방식** 비대면 온라인 조사
- **설문 응답자** 82명
- **설문조사 기간** 2023.8.23.~9.14.
- **설문 문항 수** 객관식 29개, 서술식 1개
 - ※ 표본오차는 모집단의 크기가 정확하지 않고, 중견 종사자로 범위를 제한했기 때문에 생략한다.

1. 산업체 현황

사업체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세요.

- 문항1. 사업체 소재지
- 문항2. 대표자 연령대
- 문항3. 사업체 형태
- 문항4. 사업장 형태
- 문항5. 핵심 업종

※ 1~5는 보기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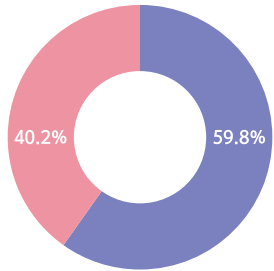
01 소재지와 대표자 연령대

설문 참여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 4:6, 연령대는 40~50대와 60대 이상이 비슷

사업체의 소재지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은 탓에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비율을 계산했더니 각각 40.2%와 59.8%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자 연령대는 40~50대가 53.7%, 60대 이상이 46.3%로 비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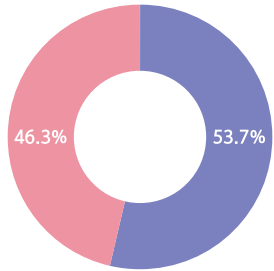
문항1. 사업체 소재지

구분	빈도	비율
비수도권	49	59.8%
수도권	33	40.2%
합계	82	100.0%



문항2. 대표자 연령대

구분	빈도	비율
40~50대	44	53.7%
60대 이상	38	46.3%
합계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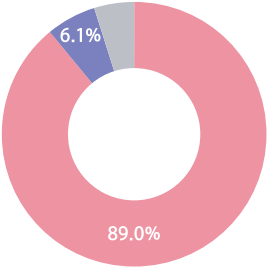
02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89%, 매장 운영이 68.3%로 대다수

종사자의 절대다수가 개인사업자로 파악됐다(89%). 미등록사업자는 6.1%인데, 모두 60대 이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사업장 형태는 한복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매장’이 68.3%로 과반이었고, ‘공방·공장’(18.1%)이 그 뒤를 따랐다. 사업체의 소재지와 사업장 형태를 교차 분석해 보면, 비수도권에서는 판매업 중심의 ‘매장’이 75%로 압도적이나, 수도권에서는 그 비중의 57.6%로 내려갔다. 대표자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견됐는데, ‘매장’을 운영하는 비율이 60대 이상에서 월등히 높았고(81.6%), ‘공방·공장’의 경우 60대 이상(10.5%)보다 40~50대(25%)가 상대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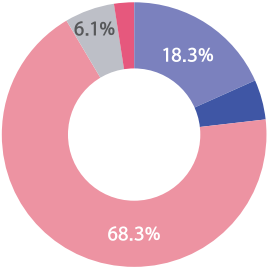
문항3. 사업체 형태

구분	빈도	비율
개인사업자	73	89.0%
미등록사업자	5	6.1%
회사법인	4	4.9%
합계	82	100.0%



문항4. 사업장 형태

구분	빈도	비율
공방·공장	15	18.3%
매장	56	68.3%
온라인쇼핑몰	5	6.1%
자택	2	2.4%
기타	4	4.9%
합계	82	100.0%



문항4(상세a). 소재지별 사업장 형태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공방·공장	6	9
	12.2%	27.3%
매장	37	19
	75.5%	57.6%
온라인쇼핑몰	2	3
	4.1%	9.1%
자택	0	2
	0.0%	6.1%
기타	4	0
	8.20%	0.00%

문항4(상세b).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장 형태

구분	40~50대	60대 이상
공방·공장	11	4
	25.0%	10.5%
매장	25	31
	56.8%	81.6%
온라인쇼핑몰	5	0
	11.4%	0.0%
자택	1	1
	2.3%	2.6%
기타	2	2
	4.5%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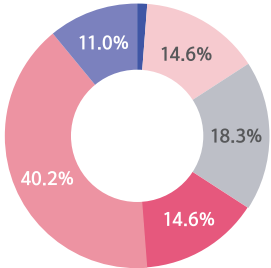
03 주요(핵심) 업종

전통한복 제조업 40.2%, 신한복은 14.6%

설문 응답자가 밝힌 사업체의 주요 업종은 ‘제조업(전통한복)’ 40.2%, ‘대여업’ 18.3%, ‘제조업(신한복)’ 14.6% 순서였다. 전통한복과 신한복을 더하면 54.8%로, 사실상 제조업이 절반 이상임을 확인했다. 신한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가는 현실과 달리, 신한복을 중심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14.6%에 불과했는데, 이와 같은 저조한 비율은 조사 대상이 전통한복 제작 경험이 많은 40대 이상의 중견 집단인 까닭으로 보인다. 대표자 연령대와의 교차 분석에서, 60대 이상 종사자들의 전통한복 제조업 비율(63.2%)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항5. 주요(핵심) 업종

구분	40~50대	60대 이상	합계
제조업(전통한복)	9	24	33
	20.5%	63.2%	40.2%
제조업(신한복)	10	2	12
	22.70%	5.30%	14.6%
대여업	11	4	15
	25.00%	10.50%	18.3%
판매업(맞춤복)	5	4	9
	11.4%	10.5%	11.0%
교육·연구업	1	0	1
	2.3%	0.00%	1.2%
기타	8	4	12
	18.2%	10.5%	14.6%



2. 한복 산업계의 내외부 동력

2022년도 한복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활성화 정도를 알려주세요.

- 문항6. 사업 운영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내부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문항7. 사업 운영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외부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 문항8. 귀사의 주요 <내부 성장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문항9. 귀사의 주요 <외부 성장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문항10.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문항11. 귀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6~11은 보기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다.

01 산업체 운영에 영향을 미친 환경

내부 환경: 자금 32.9%, 홍보 26.8%, 기술력과 전문성 22.0%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내부 환경은 역시 ‘자금(32.9%)’이었다. 2022년 많은 한복 사업체 운영자들이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뜻이다. ‘자금’ 다음으로는 ‘홍보(26.8%)’, ‘기술력과 전문성(22.0%)’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세련되고 참신한 마케팅 방법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습득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다. 소재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 보면, 비수도권(26.5%)이 수도권(15.2%)보다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지역별로 정보 접근성과 기술 역량 강화 기회의 격차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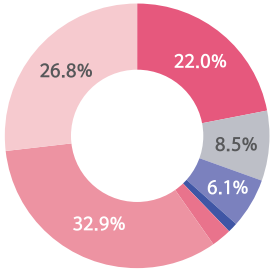
외부 환경: 한복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41.5%,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30.5%

외부적으로는 ‘한복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41.5%)’이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역시 30.5%의 비율을 보여, 영향력이 적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연령대 별로 나눠 살펴보면 60대 이상(55.3%)이 40~50대(29.5%)보다 ‘한

복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을 더 큰 영향 요인으로 인식했다. K-문화의 확산과 함께 한복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젊은 층 사이에서도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는 요즘인데, 이런 변화를 60대 이상에서 신속히 접하고 느끼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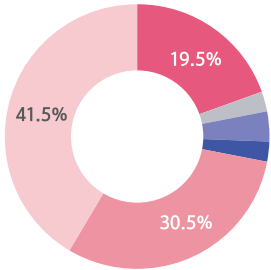
문항6. 사업 운영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내부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합계
자금	17 34.7%	10 30.3%	27 32.9%
홍보	10 20.4%	12 36.4%	22 26.8%
기술력과 전문성	13 26.5%	5 15.2%	18 22.0%
시설	1 2.0%	0 0.0%	1 1.2%
인력	1 2.0%	1 3.0%	2 2.4%
내부 환경 영향 없음	3 6.1%	2 6.1%	5 6.1%
기타	4 8.2%	3 9.1%	7 8.5%



문항7. 사업 운영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외부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40~50대	60대 이상	합계
한복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	13 29.5%	21 55.3%	34 4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17 38.6%	8 21.1%	25 30.5%
국내외 시장 상황	10 22.7%	6 15.8%	16 19.5%
원자재 수급	1 2.3%	1 2.6%	2 2.4%
외부 환경 영향 없음	3 6.8%	0 0.0%	3 3.7%
기타	0 0.0%	2 5.3%	2 2.4%



02 성장 요인

내부 요인: **기술력과 전문성 29.3%, 내부 성장 요인 없음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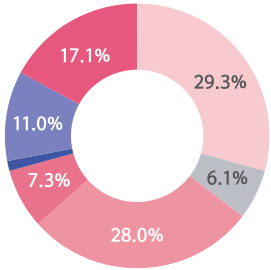
경험 축적과 사업 영역의 확장, 새로운 기술 도입 등 사업체 내부의 힘을 키우면, 외부 환경변화에 큰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한복 사업계 종사자들은 무엇이 내부적인 힘을 키우는 원동력이라 여기고 있을까. 분석 결과 ‘기술력과 전문성(29.3%)’ 확보가 중요한 성장 요건이었음이 확인됐다. 그리고 ‘기술력과 전문성’만큼이나 ‘내부 성장 요인 없음(28.0%)’ 역시 많은 선택을 받았다. 성장을 위한 내적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외부 요인: **외부 성장 요인 없음 4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화 26.8%**

외부 성장 요인이란 사업체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 바깥 요인, 다시 말해 ‘호기 **golden chance**’를 말한다. 그런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7%의 응답자들이 외부 성장 요인이 없었다고 답했다. 2022년은 한복 산업 종사자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고, 도약할 기회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외부 성장 요인은(2022년도의 가장 큰 외부 성장 요인일 것으로 예측됐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화(종식)(26.8%)’였고, ‘한복에 관한 관심 증가와 한류 열풍(18.3%)’이 세 번째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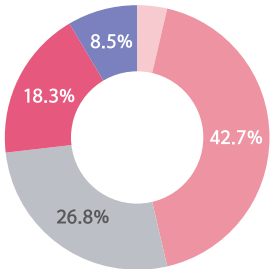
문항8. 귀사의 주요 <내부 성장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빈도	비율
기술력과 전문성 확보	24	29.3%
내부 성장 요인 없었음	23	28.0%
홍보 활성화	14	17.1%
시설 확장(또는 대여)	6	7.3%
필요한 자금 확보	9	11%
인력 채용	1	1.2%
기타	5	6.1%
합계	82	100.0%



문항9. 귀사의 주요 <외부 성장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빈도	비율
외부 성장 요인 없었음	35	4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화(종식)	22	26.8%
한복에 관심 증가와 한류 열풍	15	18.3%
합리적인 가격의 원자재를 원활하게 수급	7	8.5%
국내외 시장 활성화	3	3.7%
기타	0	0.0%
합계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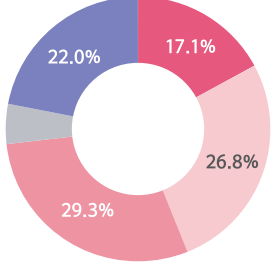


03 사업체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된 것
공적 지원금 26.8%, 축제와 행사 활성화 22.0%

응답자의 26.8%가 ‘공적자금’ 지원이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답했다. 사업체가 어려웠던 이유도, 도움이 된 것도 자금이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공적자금’ 다음으로는 ‘축제와 행사 활성화 (22.0%)’, ‘경기 회복(17.1%)’ 순이었다. 지역과 연령대로 나눠서 분석해 보면, 수도권(18.2%)보다 비수도권(32.7%)에서 그리고 40~50대(18.2%)보다 60대 이상(36.8%)이 공적 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크게 느꼈다.

문항10.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빈도	비율
공적 지원금	22	26.8%
경기 회복(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 수출증가 등)	14	17.1%
축제와 행사 활성화	18	22.0%
세계적인 한류 열풍	4	4.9%
기타	24	29.3%
합계	82	100.0%



문항10(상세a). 소재지별 사업장 형태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공적 지원금	16	6
	32.7%	18.2%
축제와 행사 활성화	11	7
	22.4%	21.2%
경기 회복(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 수출증가 등)	9	5
	18.4%	15.2%
세계적인 한류 열풍	2	2
	4.1%	6.1%
기타	11	13
	22.4%	39.4%

문항10(상세b). 연령대별 가장 도움이 된 요소

구분	40~50대	60대 이상
공적 지원금	8	14
	18.2%	36.8%
축제와 행사 활성화	10	8
	22.7%	21.1%
경기 회복(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 수출증가 등)	8	6
	18.2%	15.8%
세계적인 한류 열풍	2	2
	4.5%	5.3%
기타	16	8
	36.4%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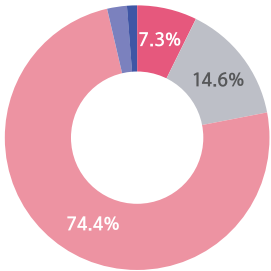
04 주요 고객층

50~60대 내국인이 74.4%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50~60대 내국인으로 74.4%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젊은 층과 외국인은 7.3%와 1.2%에 그쳤다. 그러나 이 결과만을 놓고, ‘한복의 주요 소비층은 50~60대 한국인’이라고 일반화시킬 수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이 40대 이상 중견 종사자 집단인만큼, 유명 신진 디자이너의 신한복을 구매하는 20~30대는 물론, K-문화 열풍 속에 한복을 입고 관광을 즐기는 외국인 소비자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항11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전통한복 제조업 중심의 중견 사업가들은 주로 중장년의 내국인을 주 고객층으로 영업한다는 점이다.

문항11. 귀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분	빈도	비율
내국인(20대)	6	7.3%
내국인(30~40대)	12	14.6%
내국인(50~60대)	61	74.4%
내국인(70대 이상)	2	2.4%
외국인	1	1.2%
합계	82	100.0%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한복 산업

2022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한복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주세요.

- 문항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 문항13. 귀사가 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 문항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엔데믹 선언 이후, 경기 회복을 체감하십니까?
- 문항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엔데믹 선언 이후, 귀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얼마나(어느 정도) 개선됐습니까?

※ 13, 14는 보기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단일 선택형 문항, 12와 15는 정도(또는 수준)를 묻는 7점 척도 문항이다.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정도와 대응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끼친 영향 ‘매우 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한복 사업에 끼친 영향은 평균 6.065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사업체의 소재지는 물론 대표의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한복 산업계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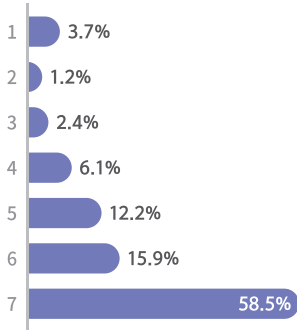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자구책 없었음 29.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29.3%의 응답자들이 ‘자구책 없었음’을 선택했다. 이를 앞의 문항 8번과 연결해 보면,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자체 노력보다 외부 환경 변화나 지원책으로 해결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자구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40~50대의 20.5%보다 높았다. 물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도 확인됐다. ‘경비 절약(고용비 감축 포함)(26.8%)’, ‘생산 및 판매 규모 축소(17.1%)’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응답을 모두 합하면 59.9%로 ‘자구책 없음’보다 2배 정도 많았다(휴업과 기타 제외).

문항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습니까?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3	0.6%
	2	12	0.5%
	3	54	2.3%
	4	105	4.5%
	5	381	16.3%
매우높음	6	648	27.7%
	7	1,124	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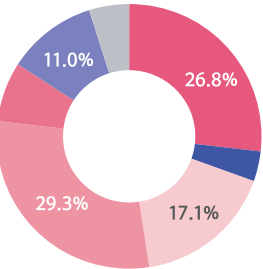


문항12(상세).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6.065	0.173	5.721	6.409

문항13. 귀사가 취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빈도	비율
자구책 없었음	24	29.3%
경비 절약(고용비 감축 포함)	22	26.8%
생산, 판매 규모 축소	14	17.1%
자산 매각	6	7.3%
사업 전환	3	3.7%
휴업	9	11.0%
기타	4	4.8%
합계	82	100.0%



문항13(상세). 연령대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구책

구분	40~50대	60대 이상	합계
자구책 없었음	9	15	24
	20.50%	39.50%	29.30%
경비 절약(고용비 감축 포함)	13	9	22
	29.50%	23.70%	26.80%
생산, 판매 규모 축소	9	5	14
	20.50%	13.20%	17.10%
자산 매각	4	2	6
	9.10%	5.30%	7.30%

사업 전환	2	1	3
	4.50%	2.60%	3.70%
휴업	3	6	9
	6.80%	15.80%	11.00%
기타	4	0	4
	9.10%	0.00%	4.80%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식 후, 경기 회복과 수익성 향상 정도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음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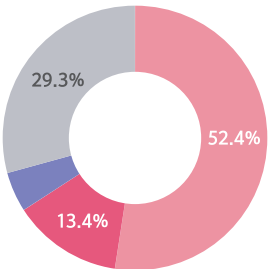
응답자의 52.4%가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확실히 회복됐다고 느낀 사람은 4.9%에 지나지 않았다. 회복되는 듯하다고 이야기한, 소극적 태도의 긍정 응답자 비율은 29.3%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성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엔데믹이 즉각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함

7점 척도로 측정한 수익성 개선 정도 역시 평균 2.63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연령대와 무관한 보편적 결과였다. 결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완화됐음에도, 이것이 한복 관련 산업에 즉각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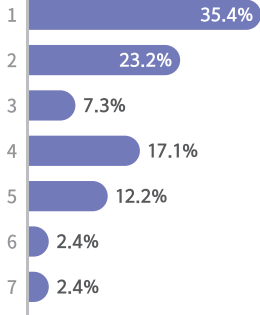
문항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엔데믹 선언 이후, 경기 회복을 체감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음	43	52.4%
회복되는 듯한 느낌이 듦	24	29.3%
잘 모르겠음	11	13.4%
확실히 회복되고 있음을 느낌	4	4.9%
합계	82	100.0%



문항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엔데믹 선언 이후, 귀사의 매출 및 수익성은 얼마나(어느 정도) 개선됐습니까?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9	35.4%
	2	19	23.2%
	3	6	7.3%
	4	14	17.1%
	5	10	12.2%
매우높음	6	2	2.4%
	7	2	2.4%



문항15(상세).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2.638	0.191	2.258	3.019



남원 광한루에서 펼쳐진 한복 퍼레이드

4. 한복 산업의 미래 전망

한복 산업의 발전적 내일을 위한 방안, 그리고 분야별 전망을 알려주세요.

※ 16~17은 보기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단일 선택형 문항, 18~29는 정도(또는 수준)를 묻는 7점 척도 문항이다.

문항16. 한복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한복 산업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7. 한복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뒷받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18. (전망) 한복의 디자인 경쟁력

문항19. (전망) 한복의 가격 경쟁력

문항20. (전망) 한복의 국내시장 성장 가능성

문항21. (전망) 한복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문항22. (전망) 전통한복 분야 제조·판매 산업의 발전 가능성

문항23. (전망) 신한복/생활한복 분야 제조·판매 산업의 발전 가능성

문항24. (전망) 한복 대여 산업의 발전 가능성

문항25. (전망) 한복 교육·연구 산업의 발전 가능성

문항26. (전망) 한복 디지털 산업의 발전 가능성_메타버스 전시, 패션쇼, 디자인 등

문항27. (전망) 한복 한류 산업의 발전 가능성_영화, 드라마, K팝 등

문항28. (전망) 한복 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_게임, 웹툰, 굿즈 개발 등

문항29. (전망) 한복 소재 산업의 발전 가능성_신소재, 업사이클링 등

01 한복 산업계가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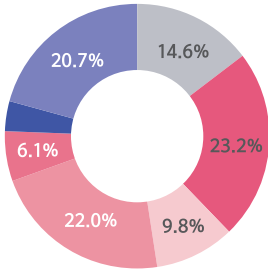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형태와 디자인 개발 23.1%(국민의 요구와 일치), 패션업계와의 협업은 3.7%

한복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23.1%의 사람들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형태와 디자인 개발’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다음 장에서 언급할 국민이 한복 산업계에 바라는 점과 일치한다. 1순위와 거의 차이가 없는 2순위는 교육,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는 ‘융복합으로 한복의 영역 확장’으로, 22.0%를 기록했다. 3위를 차지했지만 ‘한복 전통

문화 육성’도 20.7%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패션업계와 협업,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3.7%에 그쳤다. 사업체 소재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수도권(12.1%)보다 비수도권(26.5%)에서 ‘한복 전통문화 육성(장인제도 강화)’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 지정 장인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활동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예측된다.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40~50대(4.5%)보다 60대 이상(39.5%)에서 한복 전통문화 육성(장인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문항16. 한복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한복 산업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형태와 디자인 개발	19	23.2%
융복합으로 한복의 영역 확장 (교육, 예술, 과학 등)	18	22.0%
한복 전통문화 육성(장인제도 강화)	17	20.7%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운영 확대	8	9.8%
전문성 향상	5	6.1%
패션업계와의 협업	3	3.7%
기타	12	14.6%
합계	82	100.0%



문항16(상세a). 소재지별 한복 산업계에서 해야 할 일

구분	비수도권	수도권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형태와 디자인 개발	11	8
	22.4%	24.2%
융복합으로 한복의 영역 확장 (교육, 예술, 과학 등)	11	7
	22.4%	21.2%
한복 전통문화 육성(장인제도 강화)	13	4
	26.5%	12.1%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운영 확대	3	5
	6.1%	15.2%
전문성 향상	3	2
	6.1%	6.1%
패션업계와의 협업	2	1
	4.1%	3.0%
기타	6	6
	12.2%	18.2%

문항16(상세b). 연령대별 한복 산업계에서 해야 할 일

구분	40~50대	60대 이상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형태와 디자인 개발	13	6
	29.5%	15.8%
융복합으로 한복의 영역 확장 (교육, 예술, 과학 등)	11	7
	25.0%	18.4%
한복 전통문화 육성(장인제도 강화)	2	15
	4.5%	39.5%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운영 확대	5	3
	11.4%	7.9%
전문성 향상	3	2
	6.8%	5.3%
패션업계와의 협업	2	1
	4.5%	2.6%
기타	8	4
	18.2%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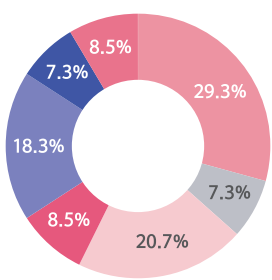
02 요구되는 사회적 뒷받침

국가 차원의 한복 홍보 29.3%, K-문화의 활성화는 8.5%

한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역할 또는 지원책으로, 업계 종사자들은 ‘국가 차원의 한복 홍보(29.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원금과 기술 지원(20.7%)’, ‘판로 개척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18.0%)’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국가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K-문화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8.5%에 불과해, 양측의 온도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항16. 한복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한복 산업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국가 차원의 한복 홍보	24	29.3%
지원금과 기술(제조 및 판매 포함) 지원	17	20.7%
판로 개척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15	18.3%
차세대 한복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7	8.5%
K-문화의 활성화	7	8.5%
한복 관련 기관(기구)의 규모 확장과 역할 증대	6	7.3%
기타	6	7.3%
합계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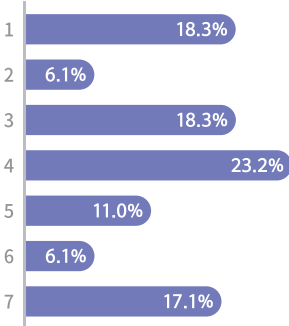
03 (전망) 한복의 디자인과 가격 경쟁력

디자인 경쟁력 ‘보통’, 60대 이상보다 40~50대가 긍정적으로 평가

한복의 디자인 경쟁력 평균은 3.908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소재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60대 이상(평균값 3.403)보다 40~50대(평균값 4.413)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항18. (전망) 한복의 디자인 경쟁력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8.3%
	2	6.1%
	3	18.3%
	4	23.2%
	5	11%
매우높음	6	6.1%
	7	17.1%



문항18(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908	0.219	3.471	4.344

문항18(상세b).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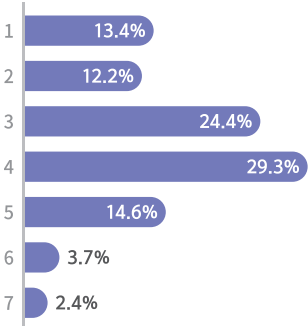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50대	4.413	0.291	3.834	4.991
60대 이상	3.403	0.328	2.75	4.057

가격 경쟁력 ‘보통’

한복의 가격 경쟁력 역시 ‘보통’인 것으로 확인됐다(평균값 3.431). 그러나 보통의 기준이 3.4부터라는 점을 생각할 때,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복이 비싸다는 의견은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언급되므로(VI장 참조), 가격 다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항19. (전망) 한복의 가격 경쟁력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3.4%
	2	12.2%
	3	24.4%
	4	29.3%
	5	14.6%
매우높음	6	3.7%
	7	2.4%



문항19(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431	0.162	3.108	3.7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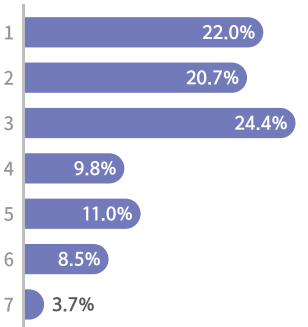
04 (전망) 한복의 국내외 시장 여건

국내시장 성장 가능성 ‘좋지 않은 편’, 60대 이상보다 40~50대가 긍정적으로 평가

한복의 국내시장이 앞으로 성장해서 활기를 띌 것인가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대체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평균값 3.067). 지역별로는 차이가 없었는데, 연령대로 나뉘보면 60대 이상(평균값 2.605)보다 40~50대(평균값 3.529)가 시장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문항20. (전망) 한복의 국내시장 성장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2.0%
	2	20.7%
	3	24.4%
	4	9.8%
	5	11.0%
매우높음	6	8.5%
	7	3.7%



문항20(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067	0.193	2.682	3.451

문항20(상세b).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50대	3.529	0.256	3.019	4.039
60대 이상	2.605	0.289	2.029	3.18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보통’, 60대 이상보다 40~50대가
긍정적으로 평가

한복의 해외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시장보다는 밝은 전망이
도출됐다. 평균값 3.693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 역
시 60대 이상(평균값 2.886)보다 40~50대(평균값 4.5)가 훨씬 긍정적
으로 예측했다.

문항21. (전망) 한복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0.7%
	2	6.1%
	3	14.6%
	4	19.5%
	5	19.5%
매우높음	6	11%
	7	8.5%

문항21(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693	0.203	3.29	4.096

문항21(상세b).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50대	4.5	0.269	3.965	5.035
60대 이상	2.886	0.303	2.282	3.49

05 (전망) 한복 제조·판매 산업
전통한복 산업의 발전 가능성 ‘낮은 편’

문항22. (전망) 전통한복 분야 제조·판매 산업의 발전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9.3%
	2	22.0%
	3	23.2%
	4	6.1%
	5	13.4%
	6	4.9%
매우높음	7	1.2%

문항22(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2.757	0.182	2.394	3.12

전통한복 제조·판매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평균값 2.757로 매우 부
정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7점 척도로 질문한 모든 문항 중 최저
점수다. 한복 종사자들은 산업체의 소재지,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
통한복 산업의 내일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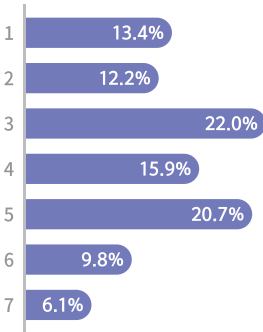
신한복/생활한복 산업의 발전 가능성 ‘보통’, 60대 이상보다
40~50대가 긍정적으로 평가

신한복/생활한복 분야는 전통한복보다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평균값 3.709로 보통 수준이라고 답한 것이다. 결과의 지역

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연령대로 나눠봤을 때, 60대 이상(평균값 3.134)보다 40~50대(평균값 4.28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항23. (전망) 신한복/생활한복 분야 제조·판매 산업의 발전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1	13.4%
	2	10	12.2%
	3	18	22%
	4	13	15.9%
	5	17	20.7%
매우높음	6	8	9.8%
	7	5	6.1%



문항23(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709	0.189	3.332	4.085

문항23(상세b).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50대	4.283	0.251	3.784	4.782
60대 이상	3.134	0.283	2.57	3.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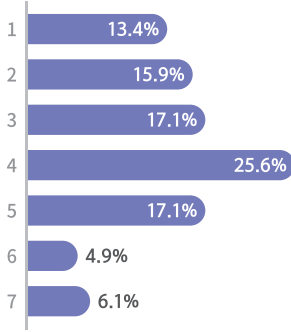
06 (전망) 한복 대여업과 교육·연구 산업

한복 대여 산업의 발전 가능성 ‘보통’

한복 대여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전체 평균값 3.541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한복 분야보다는 높고 신한복/생활한복 분야보다는 낮은 수치다. 고궁 관광이나 지역 축제 때 한복을 대여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에도, 전망치가 보통 수준인 원인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항24. (전망) 한복 대여 산업의 발전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1	13.4%
	2	13	15.9%
	3	14	17.1%
	4	21	25.6%
	5	14	17.1%
매우높음	6	4	4.9%
	7	5	6.1%



문항24(상세a).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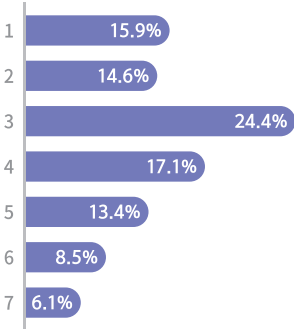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541	0.19	3.162	3.92

한복 교육·연구 산업의 발전 가능성 ‘보통’

한복 교육과 연구 산업의 발전 가능성 역시 보통 수준으로 확인됐다(평균값 3.47).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든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교육산업은 호황이며, 전문가에 따라 미래의 먹거리라고까지 언급되곤 한다. 그러나 한복계에서는 이를 그만큼 비중 있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문항25. (전망) 한복 교육·연구 산업의 발전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3	15.9%
	2	12	14.6%
	3	20	24.4%
	4	14	17.1%
	5	11	13.4%
매우높음	6	7	8.5%
	7	5	6.1%



문항25(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47	0.195	3.081	3.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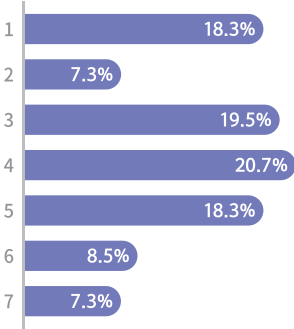
07 (전망) 한복 디지털, 한류, 콘텐츠 산업

한복 디지털 산업의 발전 가능성 ‘보통’, 60대 이상보다 40~50대가 긍정적으로 평가

한복과 메타버스,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을 접목한 한복 디지털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평균값 3.6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전망치에 차이가 있어서, 60대 이상(평균값 3.231)보다 40~50대(평균값 4.10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인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첨단 기술,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신세계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한복 업계 역시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확장 발전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문항26. (전망) 한복 디지털, 한류, 콘텐츠 산업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5	18.3%
	2	6	7.3%
	3	16	19.5%
	4	17	20.7%
	5	15	18.3%
매우높음	6	7	8.5%
	7	6	7.3%



문항26(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67	0.2	3.272	4.067

문항26(상세b).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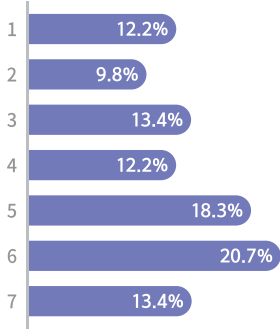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50대	4.108	0.265	3.582	4.635
60대 이상	3.231	0.299	2.636	3.826

한복 한류 산업의 발전 가능성 ‘보통’, 그러나 모든(전망) 항목 중 최상위

한복 한류 산업의 발전 가능성(영화, 드라마, K팝 등)에 대해서도 보통 이라고 답했다(평균값 4.266). 그러나 보통 수준의 범위가 3.4~4.6점 이므로, 중간값보다는 상위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의 7 점 척도 항목 중에서는 최곳값이다. 결과의 지역 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60대 이상(평균값 3.745)보다 40~50대(평균값 4.78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항27. (전망) 한복 한류 산업의 발전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0	12.2%
	2	8	9.8%
	3	11	13.4%
	4	10	12.2%
	5	15	18.3%
매우높음	6	17	20.7%
	7	11	13.4%



문항27(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266	0.218	3.832	4.7

문항27(상세b).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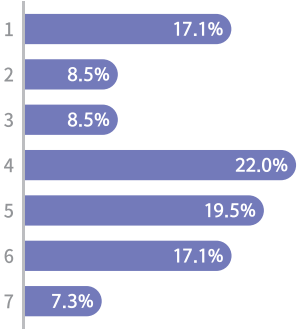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50대	4.788	0.289	4.212	5.363
60대 이상	3.745	0.326	3.095	4.394

한복 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 ‘보통’

한복 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게임, 웹툰, 굿즈 개발 등)은 평균값 3.978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선 문항과 마찬가지로 지역 차이는 없었고, 60대 이상(평균값 3.506)보다 40~50대(평균값 4.45)가 발전 전망을 밝게 봤다. 콘텐츠는 기획력에 따라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특히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한복의 콘텐츠화는 현실의 물질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복 콘텐츠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과 투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항28. (전망) 한복 콘텐츠 산업의 발전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4	17.1%
	2	7	8.5%
	3	7	8.5%
	4	18	22.0%
	5	16	19.5%
매우높음	6	14	17.1%
	7	6	7.3%



문항28(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978	0.21	3.559	4.397

문항28(상세b).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50대	4.45	0.279	3.894	5.006
60대 이상	3.506	0.315	2.879	4.134

08 (전망) 한복 소재 산업

한복 소재 산업의 발전 가능성 ‘보통’, 60대 이상보다 40~50대가 긍정적으로 평가

최근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며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신소재, 업사이클링* 등을 활용한 의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신소재 한복 산업의 전망을 보통으로 봤다. 보통의 범주에서도 중앙값 4보다 낮은 평균 3.743점을 기록했다. 결과치의 지역 차는 없었으나, 60대 이상(평균값 3.191)보다 40~50대(평균값 4.29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업사이클링[upcycling]:
우리말로 ‘재활용’이라고 한다. 재활용을 넘어, 쓰던 물건에 디자인을 가미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뜻한다.

문항29. (전망) 한복 소재 산업의 발전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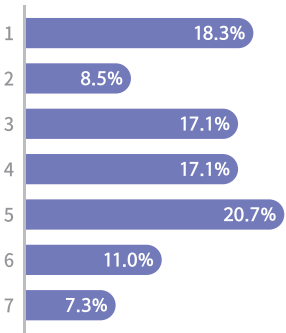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5
	2	7
	3	14
	4	14
	5	17
매우높음	6	9
	7	6
		7.3%

문항29(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3.743	0.202	3.341	4.145

문항29(상세b).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50대	4.296	0.268	3.763	4.829
60대 이상	3.191	0.302	2.589	3.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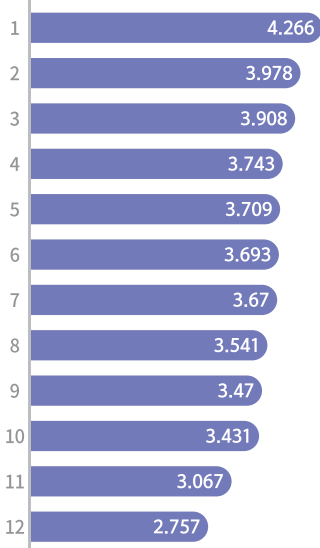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이 바라보는 한복의 내일

한복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분야별로 나눠,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살펴봤다. 한복 종사자들은 한복 대부분에서 발전 가능성이 ‘보통’ 또는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전통한복 제조업’과 ‘국내시장 성장’에 대한 전망이 어두웠다. 높게 평가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류 산업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1위에 올랐고 콘텐츠 산업 발전 가능성, 디자인 경쟁력이 그 뒤를 이었다.

12개 문항의 평균은 3.603점으로 ‘보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7점 척도의 중앙값인 4 보다는 낮은 점수다. 이처럼 한복 종사자들은 2022년도의 산업 환경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근본 산업보다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류와 콘텐츠 등 파생 산업의 미래가 상대적으로 밝을 것으로 판단했다.

순위	구분	평가값(7점 척도)	
1	한류 산업 발전 가능성	4.266	보통
2	콘텐츠 산업 발전 가능성	3.978	보통
3	디자인 경쟁력	3.908	보통
4	소재 산업 발전 가능성	3.743	보통
5	신한복 발전 가능성	3.709	보통
6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3.693	보통
7	디지털 산업 발전 가능성	3.67	보통
8	대여업 발전 가능성	3.541	보통
9	교육·연구 산업 발전 가능성	3.47	보통
10	가격 경쟁력	3.431	보통
11	국내시장 성장 가능성	3.067	낮은 편
12	전통한복 발전 가능성	2.757	낮은 편
평균		3.603	-



5.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

한복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자유 의견

문항30. 한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한 제안(요구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30은 서술식 문항이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면에 한계가 있는 객관식 문항에 전부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종사자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서술식 문항을 마지막에 배치했다. 설문 대상자 82명 중 총 59명이 글을 남겨 응답률은 72.0%다.

서술식 문항의 답변을 내용별로 묶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타를 제외한 7가지 분류 항목 중 ‘국가 차원의 지원책’과 ‘한복 홍보 확대’의 필요성이 각각 20.3%씩의 비율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문항30(상세). 한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한 제안(요구사항)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순서	정리내용	빈도	비율
1	국가 차원의 지원책	12	20.3%
2	한복 홍보 확대	12	20.3%
3	한복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환경 조성	9	15.3%
4	한복 대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8	13.6%
5	한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확대	4	6.8%
6	예식문화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	4	6.8%
7	한복 소재 개발	3	5.1%
-	기타	7	11.9%
합계		59	100.0%

IV

국민에게 듣는 한복 보호와 활성화 방법

1. 한복에 관한 관심도와 경험 여부
2. 한복에 관한 생각과 이미지
3. 한복 문화 경험 여부
4. 한복 보호와 발전 방향
5. 한복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6. 국민이 제안한다!

한복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 되는 요즘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2년 각계에서 한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중앙정부는 한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한복 입기를 독려하는 조례를 공포하고 한복 관련 업무 담당자를 둔 지자체도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 또 지역 유산과 연계한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도 한복을 알리는 행사가 펼쳐졌다. 한복 산업계 종사자, 그리고 연구자들 역시 자신의 자리에서 한복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은 한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또, 한복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 여길까. 2022년도 한복 백서 발간을 계기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시행했다.

문항은 객관식 28개와 서술식 1개로 구성했다. 이중 객관식 문항은 보기 중 가장 부합하는 내용의 것을 선택하는 ‘단일 선택형 문항’과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또는 수준)를 결정해 답하는 ‘7점 척도 문항’으로 나뉜다. 7점 척도 문항은 ‘매우 부정적(1~2.1점)’, ‘부정적인 편(2.2~3.3점)’, ‘보통(3.4점~4.6점)’, 긍정적인 편(4.7~5.8)’, ‘매우 긍정적(5.9~7점)’의 4단계로 평가했다.

설문 방식	비대면 온라인 조사
	※ 한복진흥센터 블로그 게시판에 공고
설문 응답자	2,337명
설문조사 기간	2023.8.23.~9.6.
설문 문항 수	객관식 28개, 서술식 1개
표본오차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2.3%

- ※ 용어정리
- **평균값(mean):** 표본을 모두 더한 후 해당 표본의 수로 나눈 값
 - **표준오차:** 설문 조사로 추정한 표본의 평균과 참값인 모평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의미
 - **95% 신뢰구간:** 표본집단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최소값(하계)과 최대값(상계) 사이에 모집단의 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뜻
 - **하계[Lower bound]:** 신뢰구간의 최소값
 - **상계[Upper bound]:** 신뢰구간의 최대값

1. 한복에 관한 관심도와 경험 여부

한복에 대한 평소 관심 정도와 한복을 입고 구매한 경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 문항1 성별
- 문항2 연령대
- 문항3 평소 한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 문항4 최근(2020년 이후 지금까지)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 문항5.1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한복을 입으셨습니까?
- 문항5.2 한복을 입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항6 한복을 갖고 계십니까?(소유 여부)
- 문항7.1 어떤 종류의 한복을 갖고 계십니까?
- 문항7.2 (만약) 한복을 구매한다면, 어떤 한복을 사고 싶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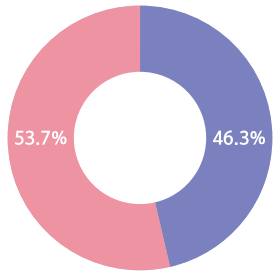
※ 1~2, 4~7.2는 보기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단일 선택형 문항, 3은 정도(또는 수준)를 묻는 7점 척도 문항이다.

01 성별과 연령대 30~40대 응답자가 68.3%, 남녀의 응답률은 비슷(한복에 관한 관심은 성별과 무관)

한복을 포함한 패션문화의 주 관심층은 여성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남녀의 응답 비율이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남자 46.3%, 여자 53.7%). 연령대는 30~40대 응답자가 68.3%로 과반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20대(18,3%)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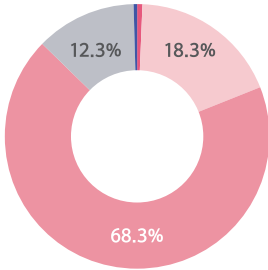
문항1. 성별

구분	빈도	비율
남자	1,083	46.3%
여자	1,254	53.7%
합계	2,337	100.0%



문항2. 연령대

구분	빈도	비율
10대 이하	15	0.6%
20대	428	18.3%
30~40대	1597	68.3%
50~60대	287	12.3%
70대 이상	10	0.4%
합계	2,337	100.0%



02 평소 관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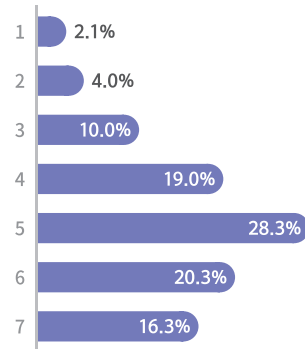
한복에 관심이 많은 편

한복에 대한 관심도를 7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 전체 평균은 4.93 점이었다. 이는 한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보통보다 많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성별에 따른 관심도의 차이는 여성이 5.05점으로 남성의 4.8점보다 조금 높았지만, 표준편차가 각각 1.4와 1.5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70대 이상이 6점, 10대 이하가 4.53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관심도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집단의 응답자 수가 너무 작아서 의미 있는 차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항3. 평소 한복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1%
	2	4.0%
	3	10.0%
	4	19.0%
	5	28.3%
	6	20.3%
	7	16.3%
매우높음		



문항3(상세). 성별에 따른 한복에 관한 관심도

구분	평균	빈도	표준편차
남자	4.8	1083	1.52
여자	5.05	1254	1.404
합계	4.93	2,337	1.464

03 한복을 입어본 경험과 그 이유

경험 있음: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56.5%, 20대는 축제 때 입으려고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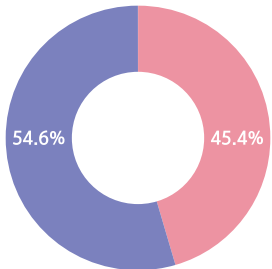
최근(2020년 이후) 한복을 입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4.6%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 비율은 성별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복을 입은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입었는지 물었더니 56.5%가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반면, ‘일상복으로 편하게 입고 다니려고’ 한복을 입었다는 사람은 5.2%에 불과했다. 이를 통해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관광지 또는 축제 때 즐기기 위해’라는 응답이 34.9%였다. 여가 생활을 즐기는 인구 증가와 함께 관광지에서의 한복 착용이 빈번해진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20대 중 54.4%가 관광지 또는 축제 때 한복을 입었다고 답해, 50~60대(21.0%)는 물론 30~40대(32.3%)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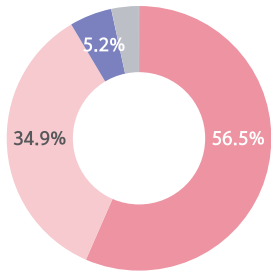
문항4. 최근(2020년 이후) 한복을 입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구분	빈도	비율
예	1,275	54.6%
아니오	1,062	45.4%



문항5.1. 언제, 어떤 목적으로 한복을 입으셨습니까?

구분	빈도	비율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하려고 (명절, 행사 등)	721	56.5%
관광지 또는 축제 때 즐기 위해	445	34.9%
일상복으로 편하게 입고 다니려고	66	5.2%
기타	43	3.4%
합계	1,275	100.0%



문항5.1(상세). 연령대별 한복 착용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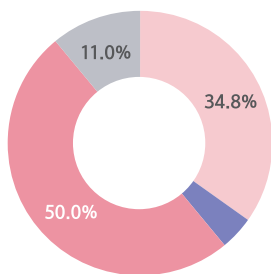
구분	10대 이하		20대		30~40대		50~60대		7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하려고(명절, 행사 등)	0	0.0%	72	31.9%	528	60.3%	116	71.6%	5	83.3%
관광지 또는 축제 때 즐기기 위해	4	80.0%	123	54.4%	283	32.3%	34	21.0%	1	16.7%
일상복으로 편하게 입고 다니려고	1	20.0%	21	9.3%	32	3.7%	12	7.4%	0	0.0%
기타	0	0.0%	10	4.4%	33	3.8%	0	0.0%	0	0.0%
합계	5	100.0%	226	100.0%	876	100.0%	162	100.0%	6	100.0%

경험 없음: 입고 활동하기 불편해서 50.0%, 단, 20대는 가격이
비싸서 45.5%

한복을 입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50.0%의 응답자가 ‘입고 활동
하기 불편해서’라고 답했으며, ‘(구매, 대여) 가격이 비싸서(34.8%)’를
택한 사람이 그 뒤를 이었다. 단, 20대의 경우 착용의 불편함보다
는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미착용의 이유로 들었다. 경제활동을 하
기 이전의 젊은 층은 ‘가격’ 측면을, 그 외 사회생활을 하는 연령대
는 ‘불편함’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복의 형태
와 디자인을 한복 미착용의 이유로 꼽은 사람은 4.1%에 불과했다.

문항5.2. 한복을 입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비율
(구매, 대여) 가격이 비싸서	370	34.8%
색과 무늬 등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44	4.1%
입고 활동하기 불편해서	531	50.0%
기타	117	11.0%
합계	1,062	100.0%



문항5.2(상세). 연령대별 한복 미착용 이유

구분	10대 이하		20대		30~40대		50~60대		7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매, 대여) 가격이 비싸서	4	40.0%	92	45.5%	240	33.3%	33	26.4%	1	25.0%
색과 무늬 등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	10.0%	11	5.4%	25	3.5%	6	4.8%	1	25.0%
입고 활동하기 불편해서	5	50.0%	71	35.1%	376	52.1%	77	61.6%	2	50.0%
기타	0	0.0%	28	13.9%	80	11.1%	9	7.2%	0	0.0%
합계	10	100.0%	202	100.0%	721	100.0%	125	100.0%	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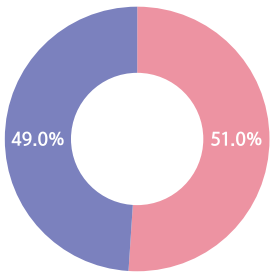
04 한복 소유 여부와 구매하고 싶은 한복의 종류
68.3%가 ‘전통한복’ 소유, 그러나 사고 싶은 것은 ‘신한복(65.5%)’

한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49.0%
대 51.0%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소유한 한복의 종류는 ‘전통한복
(68.3%)’이 대다수였다. 그중에서도 여성(72.6%)이 남성(63.0%)
보다, 나이가 많은 층이 어린 층보다 ‘전통한복’의 소유 비율이 높
았다. ‘신한복’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26.3%로 큰 격차를 두고 2
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에서는 ‘전통한복
(44.8%)’과 ‘신한복(42.8%)’의 비율에 차이가 거의 없어서, 젊은 층
의 신한복 구매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한복은 전통적인 형태이나, 앞으로 사고 싶은 한
복은 ‘신한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5.5%가 ‘신한복’을
구매하고 싶다고 밝혔고, 전통한복을 사겠다는 응답은 24.7%에
그쳤다. 특이한 점은 나이가 많을수록 ‘신한복’에 대한 구매 의사

가 높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중장년층이 평상시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고 다닐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것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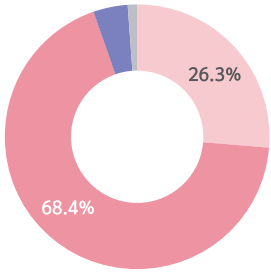
문항6. 한복을 갖고 계십니까?(소유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예	1,144	49.0%
아니오	1,193	51.0%
합계	2,3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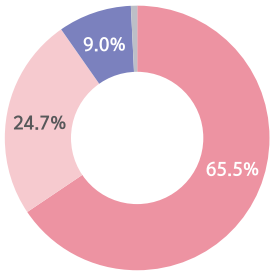
문항7.1. 어떤 종류의 한복을 갖고 계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신한복, 생활한복	301	26.3%
전통한복	782	68.4%
파티·공연을 위한 한복	48	4.2%
기타	13	1.1%
합계	1,144	100.0%



문항7.2. (만약) 한복을 구매한다면, 어떤 한복을 사고 싶으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신한복, 생활한복	782	65.5%
전통한복	295	24.7%
파티·공연을 위한 한복	107	9.0%
기타	9	0.8%
합계	1,193	100.0%



문항7.2(상세). 연령대별 구매를 희망하는 한복의 종류

구분	10대 이하		20대		30~40대		50~60대		7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신한복, 생활한복	8	61.5%	160	56.3%	539	67.5%	71	75.5%	4	100.0%
전통한복	4	30.8%	82	28.9%	193	24.2%	16	17.0%	0	0.0%
파티·공연을 위한 한복	1	7.7%	38	13.4%	61	7.6%	7	7.4%	0	0.0%
기타	0	0.0%	4	1.4%	6	0.8%	0	0.0%	0	0.0%
합계	13	100.0%	284	100.0%	799	100.0%	94	100.0%	4	100.0%

2. 한복에 관한 생각과 이미지

한복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세요.

※ 8~15는 정도(또는 수준)를 묻는 7점 척도 문항이다.

- 문항8 한복의 아름다운 정도
- 문항9 한복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도
- 문항10 한복 착용과 관리의 편의성
- 문항12 한복의 세계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 문항13 한복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 문항14 향후 한복 산업의 발전 가능성
- 문항15 한복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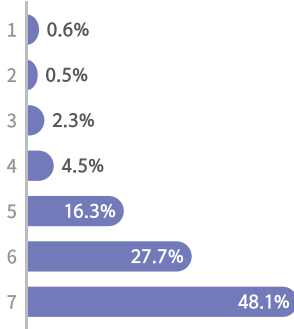
01 한복의 아름다운 정도

아름다운 정도는 ‘높음’,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한복의 아름다운 정도’의 평균값은 6.0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평균값을 보면, 여자(평균값 6.335)가 남자(평균값 5.826)보다 한복을 더 아름답다고 인식했다.

문항8. 한복의 아름다운 정도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0.6%
	2	0.5%
	3	2.3%
	4	4.5%
	5	16.3%
	6	27.7%
	7	48.1%
매우높음		



문항8(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6.081	0.092	5.901	6.26

문항8(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5.826	0.135	5.562	6.09
여자	6.335	0.124	6.091	6.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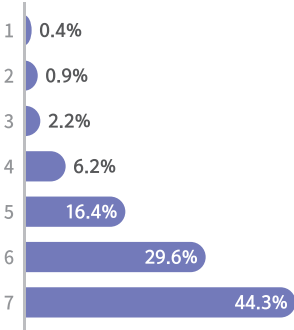
02 한복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도는 ‘높음’, 여자가 남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

‘한복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도’ 역시 ‘한복의 아름다운 정도’와 비슷한 6.017의 평균값을 보였고, 여자(평균값 6.255)가 남자(평균값 5.78)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문항9. 한복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도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0.4%
	2	0.9%
	3	2.2%
	4	6.2%
	5	16.4%
매우높음	6	29.6%
	7	44.3%



문항9(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6.017	0.094	5.833	6.202

문항9(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5.78	0.138	5.509	6.051
여자	6.255	0.128	6.004	6.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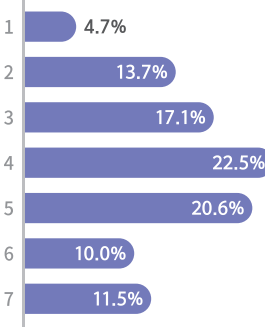
03 한복 착용과 관리의 편리성

착용과 관리의 편의성은 ‘보통’

‘한복의 착용과 관리의 편리성’의 정도는(본 설문 조사에서 7점 척도로 물은 항목 중 최하위 점수이기는 하나) 평균값 4.099로 ‘보통’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는 한복 미착용의 이유를 묻는 문항5.2의 결과와 모순된다. 문항5.2에서는 한복을 입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입고 활동하기 불편해서’라는 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는 이런 결과를 두고 ‘설문 응답자들이 설문하는 주체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성향(Demand Artifact)’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

문항10. 한복의 착용과 관리의 편리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4.7%
	2	13.7%
	3	17.1%
	4	22.5%
	5	20.6%
매우높음	6	10.0%
	7	11.5%



문항10(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099	0.139	3.827	4.372

04 한복 판매 가격의 적절성

판매 가격의 적절성은 ‘보통’

‘한복 판매 가격의 적절성’은 전체 평균값 4.452로, 보통 정도로 평가됐다. 그러나 위와 마찬가지로 문항5.2에서 한복이 비싸서 입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34.8%에 달했기 때문에, 이전 문항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젊은 층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한복의 판매 가격이 적절하다고 인식했다.

문항11. 한복 판매 가격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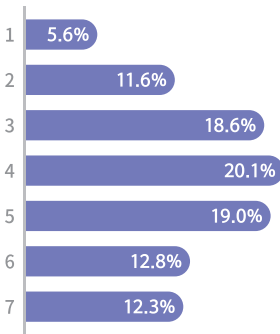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5.6%
	2	11.6%
	3	18.6%
	4	20.1%
	5	19%
매우높음	6	12.8%
	7	12.3%

문항11(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4.452	0.143	4.172	4.732

문항11(상세b). 연령대별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10대 이하	3.75	0.448	2.872	4.628
20대	4.121	0.085	3.954	4.289
30~40대	4.179	0.043	4.095	4.262
50~60대	4.609	0.101	4.41	4.807
70대 이상	5.6	0.537	4.546	6.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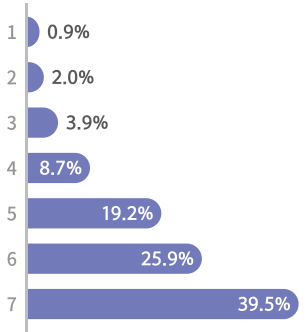
05 한복의 세계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세계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은 ‘높은 편’,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한복의 세계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은 평균값 5.716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자(평균값 5.453)보다 여자(평균값 5.97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항12. 한복의 세계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0.9%
	2	2%
	3	3.9%
	4	8.7%
	5	19.2%
매우높음	6	25.9%
	7	39.5%



문항12(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716	0.11	5.501	5.932

문항12(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5.453	0.162	5.136	5.77
여자	5.979	0.149	5.687	6.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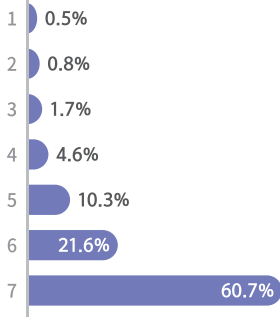
06 한복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높음’,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한복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매우 큰 것으로 인식됐다(평균값 6.157). ‘한복에 관한 생각과 이미지’를 묻는 7개 질문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문항 역시 나이의 많고 적음과는 관련이 없었고, 남자(평균값 5.815)보다 여자(평균값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항13. 한복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1	0.5%
	2	18	0.8%
	3	39	1.7%
	4	107	4.6%
	5	240	10.3%
매우높음	6	504	21.6%
	7	1,418	60.7%



문항13(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6.157	0.09	5.981	6.334

문항13(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5.815	0.132	5.556	6.074
여자	6.5	0.122	6.261	6.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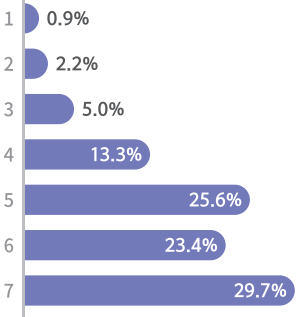
07 향후 한복 산업의 발전 가능성

한복 산업계의 발전 가능성은 ‘높은 편’, 여자가 남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서 답하는 ‘향후 한복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균값 5.448로, 높은 편이라고 인식했다. III장에서 한복 산업계 종사자들이 한복의 판매와 대여, 디자인 경쟁력, 해외 진출 가능성 등 항목 대부분을 보통 또는 그 이하로 바라본 것과 다른 결과다. 한복 활성화 전략 수립 시, 한복 산업계의 의견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겠으나, 한복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국민의 인식 역시 고려해야 한다. 국민이 한복을 구매하고 한복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남자(평균값 5.26)보다 여자(평균값 5.637)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다.

문항14. 향후 한복 산업의 발전 가능성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0	0.9%
	2	52	2.2%
	3	116	5%
	4	311	13.3%
	5	598	25.6%
매우높음	6	546	23.4%
	7	694	29.7%



문항14(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448	0.113	5.226	5.671

문항14(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5.26	0.166	4.934	5.587
여자	5.637	0.154	5.336	5.938

08 한복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한복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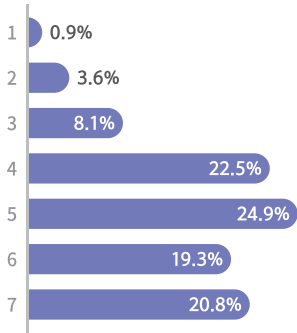
‘한복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높은 편으로 평가됐다(평균값 5.0). 한복이 활동하기 불편해서 입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에 이르지만, 명절이나 결혼식, 돌잔치는 물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한복을 착용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까닭이다. 물론 한복의 대중화, 일상화를 추진한다면, 한복의 영향력은 이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문항15. 한복 문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0	0.9%
	2	84	3.6%
	3	190	8.1%
	4	526	22.5%
	5	581	24.9%
	6	450	19.3%
	7	486	20.8%
매우높음			

문항15(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001	0.118	4.768	5.233



국민이 생각하는 한복의 이미지

우리 국민은 한복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세계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한복을 아름답고 세련된 옷으로 인식했다. 한복 산업계 종사자 보다 한복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높은 편이라 답했다. 다만, 한복 판매 가격의 적절성과 착용의 편리성 문항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한복의 생산 효율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가격대를 다양화해야 하며, 활동성이 뛰어나면서도 세탁과 보관이 쉬운 디자인과 소재의 한복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복 문화 경험 여부

한복 문화를 향유해 본 경험과 바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 문항16 한복을 주제로 개발·운영된 프로그램(이하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항17.1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문항17.2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항18 (만약)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십니까?
- 문항19 (만약) 한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언제가 좋습니까?

※ 16~19는 보기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다.

01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

경험자: 21.9%, 목적은 3가지(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려고, 한복이 좋아서, 한복이 궁금해서)

한복을 주제로 한 여러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경험해 본 국민은 21.9%에 불과했다.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31.5%)’, ‘평소 한복을 좋아해서(29.5%)’, ‘한복에 관해 알고 싶어서(20.9%)’의 순서였다. 그러나 이들 상위 3개 응답 비율이 비슷하고 모두 20%를 넘어, 한복 프로그램 개발 시 이 세 가지를 고루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목적성 없이 참여했다는 응답과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었다는 사람은 8% 정도에 그쳤다.

성별에 따른 참여 목적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는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35.2%)’, 여자는 ‘평소 한복을 좋아해서(34.9%)’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이를 통해 남녀가 선호하는 수업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상별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함이 확인됐다.

문항16.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분	빈도	비율
예	511	21.9%
아니오	1,826	78.1%
합계	2,337	100.0%

문항17.1.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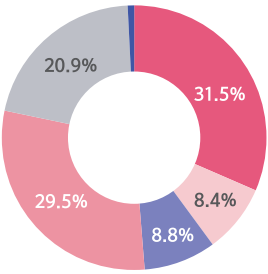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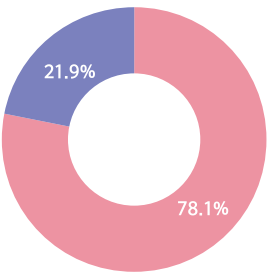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율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161	31.5%
전공 또는 취업 등 전문성을 높이려고	43	8.4%
특별한 목적 없이 우연히	45	8.8%
평소 한복을 좋아해서	151	29.5%
한복에 관해 알고 싶어서	107	20.9%
기타	4	0.8%
합계	511	100.0%

문항17.1(상세). 성별에 따른 한복 프로그램 참여 목적

구분	남자		여자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83	35.2%	78	28.4%
전공 또는 취업 등 전문성을 높이려고	20	8.5%	23	8.4%
특별한 목적 없이 우연히	26	11.0%	19	6.9%
평소 한복을 좋아해서	55	23.3%	96	34.9%
한복에 관해 알고 싶어서	51	21.6%	56	20.4%
기타	1	0.4%	3	1.1%
합계	236	100.0%	2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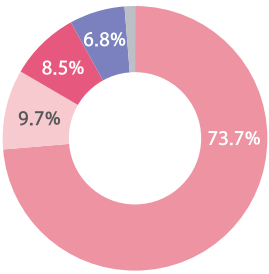
미경험자: 78.1%, 이유는 ‘있는 줄 몰라서’ 73.7%

한복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지 못한 78.1%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참여의 이유를 물었더니 ‘있는 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73.7%). 그 외는 모두 한 자릿수 비율로, 미참여의 중요한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이는 한복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복 문화의 폭넓은 보급과 활성화, 그리고 문화향유 콘텐츠로써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홍보 대책의 수립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문항17.2.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비율
있는 줄 몰라서	1345	73.7%
프로그램 내용이 흥미롭지 않아서	178	9.7%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폭넓지 않아서	156	8.5%
한복에 관심이 없어서	124	6.8%
기타	23	1.3%
합계	1,826	100.0%



02 국민이 원하는 한복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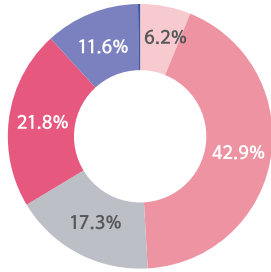
희망: 한복을 입고 특별한 활동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 42.9%, 운영 시기는 휴일 선호 62.6%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9%가 ‘한복을 입고 특별한 활동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답했다. 그다음으로는 ‘한복을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21.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었지만,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한복을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20대와 30~40대에서, 일회성 단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50대 이상에서 비교적 높았다.

프로그램 운영 시기에 대한 물음에서는 ‘주말 또는 공휴일’을 희망한다는 답변이 과반이 넘는 62.6%를 차지했다. 주말을 이용해 가족 단위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한 휴일을 선호했다고 봐야겠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길 원한다는 답변도 26.7%로 적지 않았다. 휴일 중심으로 이벤트와 체험교육을 기획하되, 학교를 포함한 단체 방문에 대비한 평일 프로그램 역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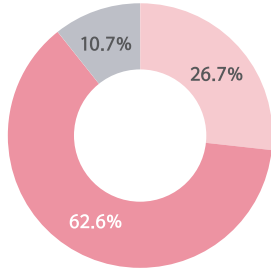
문항18. (만약) 한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한복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직업 연계)	144	6.2%
한복을 입고 특별한 활동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	1003	42.9%
한복을 주제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	404	17.3%
한복을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취미)	510	21.8%
한복의 역사·문화를 알려주는 교육 강의	270	11.6%
기타	6	0.3%
합계	2,337	100.0%



문항19. (만약) 한복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언제가 좋습니까?

구분	빈도	비율
상시 운영	625	26.7%
주말 또는 공휴일에 운영	1462	62.6%
평일에 운영	250	10.7%
합계	2,337	100.0%



문항18(상세). 연령대별 참여를 원하는 프로그램 유형

구분	10대 이하		20대		30~40대		50~60대		7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복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직업)	1	6.7%	35	8.2%	86	5.4%	21	7.3%	1	10.0%
한복을 입고 특별한 활동을 하는 체험 프로그램	6	40.0%	199	46.5%	699	43.8%	97	33.8%	2	20.0%
한복을 주제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회성 체험 프로그램	4	26.7%	54	12.6%	275	17.2%	67	23.3%	4	40.0%
한복을 직접 만들어 보는 교육 프로그램(취미)	1	6.7%	110	25.7%	352	22.0%	46	16.0%	1	10.0%
한복의 역사·문화를 알려주는 교육 강의	3	20.0%	29	6.8%	180	11.3%	56	19.5%	2	20.0%
기타	0	0.0%	1	0.2%	5	0.3%	0	0.0%	0	0.0%
합계	15	100.0%	428	100.0%	1,597	100.0%	287	100.0%	10	100.0%

4. 한복 보호와 발전 방향

한복 보호와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과 정책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 문항20 한복을 입을 일이 적은 요즘입니다. 한복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위해, 한복 산업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21 한복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 문항22 한복 산업·문화를 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2는 보기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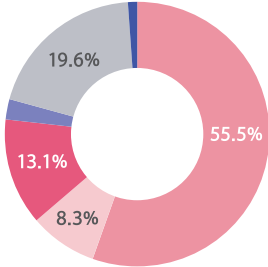
01 한복 활성화 방법

산업 활성화를 꾀하려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한복 개발 55.5%

한복을 입을 일이 많지 않은 요즘, 한복 활성화를 위해 한복 산업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과반이 넘는 55.5%의 응답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한복 개발’이라고 답했다. 2위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19.6%)’이 차지했다. 이런 결과는 많은 국민이 한복은 일상생활에서 입기 불편하거나 적합하지 않으며, 가격도 비싼 편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현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지금의 서구화된 복식은 초저가부터 초고가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 그리고 수많은 브랜드가 저마다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어서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한복 산업계는 이러한 국민의 대중적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항20. 한복의 일상화와 대중화를 위해, 한복 산업계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한복 개발	1,296	55.5%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	193	8.3%
품질 향상 및 브랜드화 추진	305	13.1%
한복 판매처 확대(온라인과 오프라인)	58	2.5%
합리적인 가격 책정	459	19.6%
기타	26	1.1%
합계	2,33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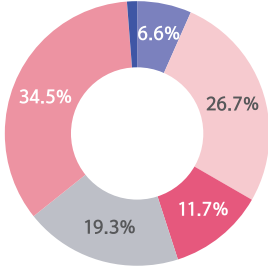


한복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법: 한복 홍보의 활성화 34.5%

한복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34.5%의 사람들이 ‘한복 홍보의 활성화(전시, 패션쇼, 축제 등)’를 선택했다. 2위는 ‘한류스타의 한복 착용(26.7%)’이었고, ‘한복체험 및 교육의 확대(19.3%)’가 그 뒤를 이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나 전문가 양성 처럼, 한복 산업계의 내실 강화보다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설문 결과의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1위는 모두 ‘한복 홍보의 활성화’로 같았지만), 20대는 ‘한류스타의 한복 착용’을, 50~60대는 ‘한복체험 및 교육의 확대’를 각각 두 번째로 꼽아 차이를 보였다.

문항21. 한복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많은 한복 전문가 양성	155	6.6%
한류스타들의 잦은 한복 착용	624	26.7%
한복 보호법 제정과 국가 지원 증대	273	11.7%
한복 체험·교육의 확대	450	19.3%
한복 홍보 활성화(전시, 패션쇼, 축제 등)	806	34.5%
기타	29	1.2%
합계	2,337	100.0%



문항21(상세). 연령대별 한복문화 활성화 방법에 대한 의견

구분	10대 이하		20대		30~40대		50~60대		70대 이상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많은 한복 전문가 양성	0	0.0%	28	6.5%	112	7.0%	14	4.9%	1	10.0%
한류스타들의 잦은 한복 착용	8	53.3%	146	34.1%	419	26.2%	50	17.4%	1	10.0%
한복 보호법 제정과 국가 지원 증대	0	0.0%	44	10.3%	182	11.4%	46	16.0%	1	10.0%
한복 체험·교육의 확대	4	26.7%	54	12.6%	318	19.9%	70	24.4%	4	40.0%
한복 홍보 활성화(전시, 패션쇼, 축제 등)	3	20.0%	153	35.7%	542	33.9%	105	36.6%	3	30.0%
기타	0	0.0%	3	0.7%	24	1.5%	2	0.7%	0	0.0%
합계	15	100.0%	428	100.0%	1,597	100.0%	287	100.0%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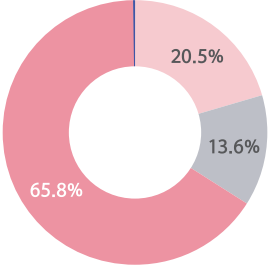
02 한복 산업과 문화를 육성해야 하는 이유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한국인의 정체성) 65.8%

설문 응답자의 65.8%가 한복 산업과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한국인의 정체성)’라고 답했다. 한복이 음악과 영화 등을 통해 K-문화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되고 있고, 고궁 관광과 지역 축제 날 한복 입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으며, 한복을 재해석한 젊은 디자이너들이 개성 넘치는 신한복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국민은 한복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를 택한 사람도 20.5%를 차지해, 국민이 바라보는 한복 산업계의 미래 가능성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항22. 한복 산업·문화를 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율
신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478	20.5%
우리의 일상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므로	317	13.6%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한국인의 정체성)	1,538	65.8%
기타	4	0.2%
합계	2,337	100.0%



5. 한복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

한복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 문항23 한복의 일상화 추진
- 문항24 한복의 형태와 디자인 변형
- 문항25 고궁과 관광지에서 착용하는, 전통과 다른 대여 한복
- 문항26 학교 정규교육에 한복 관련 교과목 포함
- 문항27 한복의 멋과 역사를 내외국인에게 알리는 공공 전시관(박물관) 설립
- 문항28 한복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

※ 23~28은 정도(또는 수준)를 묻는 7점 척도 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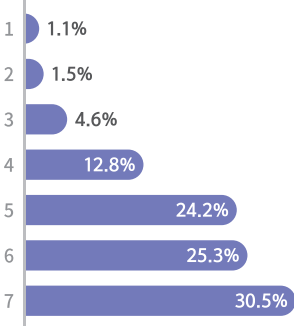
01 한복의 일상화 추진

일상화 추진에 ‘긍정적인 편’,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설문 응답자들은 한복을 일상에서 평상복처럼 입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다(평균값 5.385). 남자보다는 여성의 평균값이 높았으나, 연령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문항23. 한복의 일상화 추진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5	1.1%
	2	36	1.5%
	3	108	4.6%
	4	298	12.8%
	5	565	24.2%
매우높음	6	592	25.3%
	7	713	30.5%



문항23(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385	0.111	5.167	5.604

문항23(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5.172	0.164	4.851	5.492
여자	5.599	0.151	5.303	5.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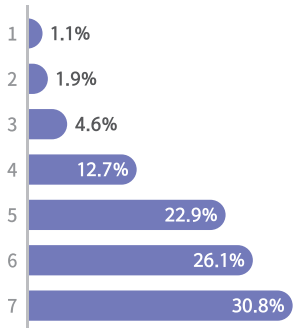
02 한복의 형태와 디자인 변형

한복 형태 변화에 ‘긍정적인 편’, 성별·연령대와 무관한 보편 인식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시대 후기의 한복을 형태와 디자인 면에서 변형시켜도 되는가에 관한 질문에 설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평균값 5.528). 이 결과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없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이었다.

문항24. 한복의 형태와 디자인 변형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5	1.1%
	2	45	1.9%
	3	107	4.6%
	4	296	12.7%
	5	536	22.9%
매우높음	6	609	26.1%
	7	719	30.8%



문항24(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528	0.113	5.305	5.75

03 고궁과 관광지에서 착용하는, 전통과 다른 대여 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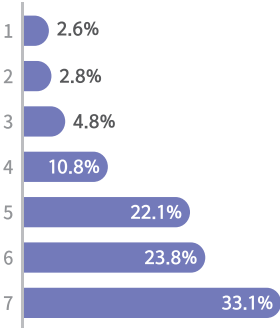
전통과 다른 관광용 또는 체험용 한복에 대해 ‘긍정적인 편’

관광지에서 대여하는 체험용 한복이 전통한복의 기본 형태와 고유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드레스처럼 제작되는 일이 많아,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른바 한복 왜곡에 대한 이러한 우려와 달리, 한복 원형 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지 않았다(평균값 5.358). 그 이유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한복 대여자 대다수가 전통과 다른 한복에 대해 전문가 집단보다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문항25. 고궁과 관광지에서 착용하는, 전통과 다른 대여 한복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61	2.6
	2	65	2.8
	3	113	4.8
	4	252	10.8
	5	516	22.1
매우높음	6	556	23.8
	7	774	33.1



문항25(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358	0.126	5.11	5.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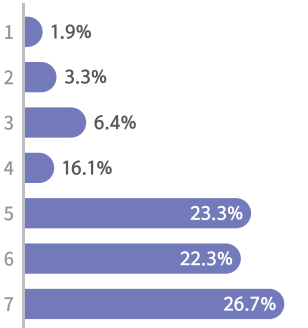
04 학교 정규교육에 한복 관련 교과목 포함

한복 교과목 편성에 ‘긍정적인 편’, 여성과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학교 정규교육에 한복 관련 교과목을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그렇게 하는 편이 낫다는 결과가 도출됐다(평균값 5.108). 남자 보다는 여자가,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문항26. 학교 정규교육에 한복 관련 교과목 포함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44	1.9%
	2	78	3.3%
	3	149	6.4%
	4	376	16.1%
	5	545	23.3%
매우높음	6	520	22.3%
	7	625	26.7%



문항26(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108	0.124	4.864	5.351

문항26(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4.806	0.182	4.449	5.164
여자	5.409	0.168	5.079	5.739

문항26(상세c). 연령대별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10대 이하	4.806	0.182	4.449	5.164
20대	5.409	0.168	5.079	5.739
30~40대	5.056	0.39	4.292	5.819
50~60대	5.017	0.074	4.872	5.162
70대 이상	5.322	0.037	5.249	5.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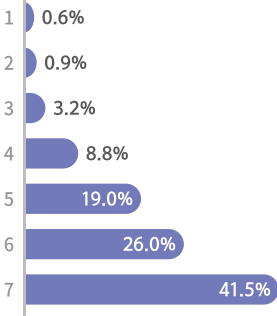
05 한복의 멋과 역사를 내외국인에게 알리는 공공 전시관(박물관) 설립 한복 전시관(박물관) 설립에 ‘긍정적’, 여성과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

박물관 1천 개 시대가 열린 지 이미 십여 년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한복’을 수집해 연구하고, 국민에게 한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소개하는 공립 전시관(박물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복을 주제로 한 전시관(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물었더니, 국민 대다수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다(평균값 5.919). 남자보다는 여자가,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 층에서 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문항27. 한복의 멋과 역사를 내외국인에게 알리는 공공 전시관(박물관) 설립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13	0.6%
	2	22	0.9%
	3	74	3.2%
	4	206	8.8%
	5	444	19%
	6	608	26%
	7	970	41.5%
매우높음			



문항27(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919	0.102	5.719	6.12

문항27(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5.693	0.15	5.399	5.988
여자	6.146	0.139	5.874	6.418

문항27(상세c). 연령대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10대 이하	5.611	0.321	4.982	6.24
20대	5.655	0.061	5.535	5.774
30~40대	5.894	0.031	5.834	5.954
50~60대	6.038	0.073	5.895	6.18
70대 이상	6.4	0.385	5.645	7.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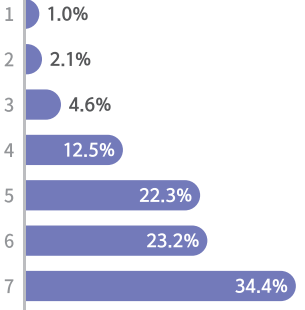
06 한복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

보호법 제정에 ‘긍정적인 편’,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

한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해서는 전체 평균값 5.492로,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차이는 없었지만, 성별로 나뉘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보호법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문항28. 한복의 일상화 추진

척도		빈도	비율
매우낮음	1	24	1%
	2	48	2.1%
	3	108	4.6%
	4	292	12.5%
	5	520	22.3%
	6	542	23.2%
	7	803	34.4%
매우높음			



문항28(상세a). 평균값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5.492	0.115	5.267	5.717

문항28(상세b). 성별에 따른 평균값 차이

구분	평균값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계	상계
남자	5.262	0.169	4.932	5.593
여자	5.722	0.156	5.417	6.027

6. 국민이 제안한다!

국민 자유의사 발언

■ 문항29 한복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보호·발전시킬 방법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29는 서술식 문항이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객관식 설문 문항으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부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한복 보호와 활성화 방법’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자 마지막 29번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쓰는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했다. 응답률은 58.1%로, 설문 응답자 2,337명 중 1,358명이 참여했다.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도출된 국민 의견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 내용별로 묶어 분류했다. 그런 다음 빈도수와 비율을 계산해, 많이 언급된 순서대로 나열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문항29(상세). 한복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보호·발전시킬 방법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순서	정리내용		빈도	비율
1	한복의 생활화(시대에 맞는 소재와 디자인)	237(17.5%)	453	33.4%
	한복의 생활화(한복 입는 문화 정착)	133(9.8%)		
	한복의 생활화(간편한 착용과 편리한 관리)	81(6.0%)		
	한복의 생활화(현대 브랜드와의 협업)	2(0.1%)		
2	한복 홍보 강화		325	23.9%
3	한복 이벤트 활성화		153	11.3%
4	한복의 합리적 가격 책정		120	8.8%
5	한복의 전통과 역사 보호		53	3.9%
6	한복 교육 개발과 보급		53	3.9%
7	한복 콘텐츠 산업 육성		47	3.5%
8	한복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 필요		44	3.2%
9	한복 박물관(전시관) 필요		19	1.4%
10	한복 전문가 교육 강화		4	0.3%
-	기타		87	6.4%
합계			1,358	100.0%

V

한복 전문 교육과 연구

- 1. 대학의 한복교육 현황
- 2. 공공기관에서의 한복교육
- 3. 학계의 한복 연구 성과
- 4. 한복교육과 연구의 방향성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을 뜻하는 ‘한복 韓服’이라는 용어는 근대 이후 생긴 개념이라는 것이 통설이지만, 한복은 한반도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우리 민족이 입어온 고유한 복식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고 전통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는 한복의 의미가 조금씩 변했을 뿐이다.

한복의 세계적인 관심은 ‘K-문화’의 영향이 크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이후 음악, 예능, 음식, 웹툰, 뷰티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콘텐츠에 ‘K’를 접두사로 붙인 ‘K-culture’라는 말까지 만들어지게 됐다. 2020년대에 들어 ‘K-pop’, ‘K-drama’ 등이 세계 대중문화의 주류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한국의 전통문화 전반으로 이어졌고, 한복도 함께 주목받게 됐다.

한복교육은 한복과 관련된 이론과 실기 교과목으로 구성되며 교육 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복교육 주체에는 정규 교육기관, 박물관, 학회, 공공기관, 민간 교육기관 등이 있는데, 정기교육을 하거나 비정기적인 특강 형태로 수업이 운영된다. 일반적으로는 교수자가 현장에서 수강자와 직접 만나 가르치는 방식이지만,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 이후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형식의 교육도 널리 확산됐다.

한복 관련 이론교육에는 역사를 기본으로 하는 ‘복식사’, 한복 산업 현장에 관한 ‘한복 마케팅 및 비즈니스’ 교육 등이 있으며, 실기 교육으로는 단계별로 한복을 제작하는 ‘전통 한복 구성’, 디자인 한복 제작을 위한 ‘생활한복 구성’ 및 전통 소재에 관한 ‘전통 섬유 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직·간접적으로 한복을 착용하면서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한복교육의 의미 있는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단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형태보다는 장기적이고 반복되는 교육의 형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복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관점에서도 한복의 이론과 실기를 단계별로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2022년 한복 전문교육의 동향을 대학교를 중심으로 다루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 운영한 교육과 한복 관련 무형문화재 교육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내 대학의 학위논문과 학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논문을 소개하고, 2022년도의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1. 대학의 한복교육 현황

01 대학 학부의 한복교육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4년제 일반 대학(이하 4년제 대학)이 184개, 2~3년제 대학이 133개 존재한다.* 이 중 대학의 한복교육은 전국의 ‘한복 전공’, ‘의류학 전공’, ‘패션 전공’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 4년제 일반 대학(184개): 공립 1개, 국립 28개, 사립 155개, ㉡ 2~3년제 대학(133개): 공립 7개, 국립 1개, 사립 125개, ㉢ 산업대학: 사립 2개, ㉣ 교육대학: 국립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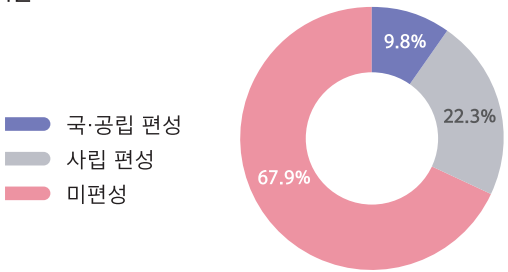
㉠ 4년제 대학

전국 184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의류·패션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곳은 77개교다. 이중 한복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59개교로, 전체 184개교 중 국·공립대학교가 18개교(9.8%), 사립대학교가 41개교(22.3%)다.

2022년 한복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4년제 대학 현황

학교 유형	전국 대학 수	의류·패션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수	한복 관련 교과목이 편성된 대학 수
국·공립	29	19	18
사립	155	58	41
합계	184	77	59

한복 교과목 편성 대학 비율



2022년 한복 관련 교과목 운영 4년제 대학 및 학과

연번	대학	학과	연번	대학	학과
국공립(18개교)					
1	강릉원주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0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11	안동대학교	패션라이프스타일학과(의류학과)
3	경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12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4	경상국립대학교	의류학과	13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5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14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6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15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7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6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8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17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9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18	한경국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사립(41개교)					
19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40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0	건국대학교(서울)	의상디자인학과	41	수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21	건국대학교(글로벌)	패션디자인학과	42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22	경남대학교	의류산업학과	43	신라대학교	패션디자인학전공
23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44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24	계명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45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25	광주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46	영산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6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47	우석대학교	패션스타일링학과
27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48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28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49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29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50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30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51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31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52	중앙대학교	패션전공
32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53	한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33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과	54	한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34	상명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55	한성대학교 [*]	패션디자인전공
35	상지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56		패션디자인트랙
36	서경대학교	무대패션디자인전공	57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37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58	호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38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59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39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		

^{*} 한성대학교는 학부 과정을 ‘학과제’와 ‘트랙제’,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대학별로 한복 관련 교과목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이론교과목 1개와 실습교과목 1개를 편성한 곳이 가장 많았고, 사립대학교에서는 이론 또는 실습교과목 중 1개만 개설한 학교의 비율이 높았다. 학부 과정에서 가장 많은 6개 교과목이 편성된 대학은 총 3개 처로, 국립인 한경국립대학교와 제주대학교, 그리고 사립 한남대학교다. 이론

수업은 옷의 역사를 가르치는 ‘복식사’ 위주로, 한 학기만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기수업은 주로 1개 교과목이 편성됐는데, 다양한 실기 교과목 중에서도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생활한복디자인’ 과목이 최근에 한남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한복디자인종합설계)와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응용한복디자인)에 생겨 눈에 띈다.

4년제 대학의 한복 관련 교과목 편성 수

4년제 국·공립 대학					4년제 사립 대학				
한복 교과목 수			교육 기관 수	학과 수	한복 교과목 수			교육 기관수	학과 수
구분	이론수업	실기수업			구분	이론수업	실기수업		
1개	1	-	-	-	1개	1	-	11	11
	-	1	1	1		-	1	9	9
2개	1	1	9	10	2개	1	1	7	7
3개	1	2	1	1	3개	1	2	9	10
4개	1	3	2	2	4개	1	3	1	1
5개	1	4	2	2	5개	1	4	1	1
6개	1	5	1	1		2	3	1	1
	2	4	1	1	6개	1	5	1	1
합계			16	17	합계			39	40

4년제 대학 교과과정의 특징

분류	과목	학점/시간	특징
이론	한국복식사, 한국복식문화사, 동양복식사	3학점/ 3시간 2학점/ 2시간	• 이론교과목은 대체로 한 학기만 운영되는 형태로 개설
실기	기초한복구성, 한복구성, 한국의상디자인, 생활한복디자인, 전통패션상품 개발, 전통복식디자인, 한국의상(캡스톤), 한복디자인종합설계	3학점/ 4시간 (이론2·실습2, 이론1·실습3, 실습4)	• 실습교과목은 대체로 한 학교당 1과목만 개설 • 한남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 생활한복디자인 관련 교과목 개설

② 2~3년제 대학

의류·패션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2~3년제 대학은 총 28개로 모두 사립이다. 이 중 8개교의 학과에서 한복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백석문화대학교 패션스타일디자인과, 서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숭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신구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용인 예술과학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패션디자인비즈니스 전공,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패션뷰티스타일스쿨, 도합 6개교에서는 이론교과목 1개(75.0%),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에서는 3개의 실기교과목을 편성(12.5%)했다. 이에 비해 한복 전문학과를 둔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학과에서는 총 9개(이론수업 1개와 실기수업 9개)에 달하는 교과목을 운영해, 다른 학교와 개설 교과목 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한복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2~3년제 대학 현황

설립 구분	교육기관 수	의류·패션 관련 학과 운영 수	한복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학과
국·공립	8	-	-
사립	125	28	8
합계	133	28	8

2022년 한복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2년제 사립대학 및 학과

연번	대학	학과
1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
2	배화여자대학교	한복문화콘텐츠과
3	백석문화대학교	패션스타일디자인과
4	서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5	송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
6	신구대학교	패션디자인과
7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패션디자인비즈니스 전공
8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패션뷰티스타일스쿨

2~3년제 사립대학의 한복 관련 교과목 편성 수

한복 교과목 수		대학 수	학과 수
한국복식사 관련 이론수업	한국복식 구성 관련 실기수업		
1	-	6	6
-	3	1	1
1	8	1	1
합계		8	8

2~3년제 사립대학 교과과정의 특징

분류	과목	학점/시간	특징
이론	한국복식사, 한국복식이해, 전통복식문화, 한복패션의흐름	2학점/2시간	• 대부분 복식사 수업이 개설되어 있으며 2학점으로 구성
실기	어린이한복디자인, 남성한복디자인, 여성한복디자인, 천연염색디자인실습, 천연염색상품개발, 전통복식디자인제작	3학점/3시간 (이론1·실습2, 실습3)	• 한복 소재별 특징과 제도 및 제작 실기 수업이나 천연재료로 전통 염색을 실습하는 수업 편성

02 대학원의 한복교육

대학원은 한복 관련 전공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다. 대학원 가운데 한복학과가 별도로 설치된 곳은 없고, 대학원 의류·패션 학과에 입학해 한복을 전공 분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2년 12월 기준, 의류·패션 학과를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원은 17개교며, 이중 한복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곳은 13개 학과였다. 사립대학원의 경우 32개의 의류·패션 학과가 조사됐는데, 3/4에 해당하는 25개 학과에서 한복 관련 교과목을 운영했다. 대학원의 한복 관련 교과목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대학원 13개 학과 중 1개의 교과목을 편성한 학과가 4개(40.7%)로 가장 많았다. 그 외는 대부분 10개 이내의 한복 관련 교과목이 개설됐으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에서는 33개의 교과목을 열어 타 대학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단, 이곳에서는 일반적인 한복 수업이 아니라, 전통공예의 기능을 전승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사립대학원의 경우 10개 미만의 교과목을 편성한 학과가 22개, 20개 이상의 교과목을 편성한 학과가 3개였다. 가장 많은 44개의 교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로, 이곳은 학부 없이 대학원에만 전통복식 과정을 뒀다.

2022년 한복 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원 현황

국·공립 대학원		학과	한복 관련 교과목 편성 수		
			이론	실기	합계
1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1	-	1
2	경상국립대학교	디자인비즈니스학과	5	2	7
3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1		1
4	목포대학교	패션의류학과		1	1
5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3	-	3
6	안동대학교	패션의류학과	1		1
7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4	5	9
8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과(의류학전공)	2	2	4
9	제주대학교	패션의류학과	1	5	6
10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2	-	2
11	충북대학교	의류학과	1	1	2
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20	13	33
13	한경국립대학교	생활과학과	3	2	5

사립 대학원		학과	한복 관련 교과목 편성 수		
			이론	실기	합계
1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1	1	2
2	가천대학교	의상학과	2		2
3	건국대학교	패션인더스트리학과(패션디자인전공)		1	1
4	고려대학교	생활과학과	1		1
5	광주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5	3	8
6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32	12	44
7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4		4
8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		1
9	동덕여자대학교	패션학과		1	1
10	동아대학교	의상섬유학과	2		2
11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1	1	2
12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7	1	8
13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5	3	8
14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2	4
15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3	2	5
16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2	2
17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1	1	2
18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슈즈산업학과)	4	1	5
19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16	5	21
20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2		2
21	조선대학교	패션·뷰티디자인	1		1
22	중앙대학교	패션전공	4	1	5
23	한남대학교	패션산업학과	7	11	28
24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3	1	4
25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1	1	2

대학원 한복교육의 특징은 교육과정에 한복 관련 교과목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신청하지 않아 매 학기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복식사’가 아닌, ‘동양복식사’나 ‘비교복식사’로 이론 수업을 대신하기도 한다.

2022년 대학원의 한복 관련 교과목 편성 수

국·공립 대학원			
한복 교과목 수			학과 수
과목 수	이론수업	실기수업	
1개	1	-	3
	-	1	1
2개	2	-	1
	1	1	1
3개	3	1	1
4개	2	2	1
5개	3	2	1
6개	1	5	1
7개	5	2	1
9개	4	5	1
33개	19	14	1
합계			13

사립 대학원			
한복 교과목 수			학과 수
과목 수	이론수업	실기수업	
1개	1	-	2
	-	1	3
2개	1	1	4
	2	-	3
4개	-	2	1
	2	2	1
	3	1	1
	4	-	1
5개	4	1	1
	3	2	1
6개	6	-	1
8개	7	1	1
	5	3	2
21개	16	5	1
28개	7	11	1
42개	32	10	1
합계			25

대학원 한복 교과과정의 특징

분류	과목	학점/시간	특징
이론	한국복식사특론, 한국복식학특론, 동양복식사, 복식박물관연구, 전통직물과문양	3학점/ 3시간	• 대학원 교과과정에는 한복 관련 교과목이 올라 있으나, 대학원생들의 수강 여부에 따라 교과목 개설 여부가 결정
실기	전통복식디자인, 한국전통복식디자인연구, 염색및천연염색연구, 특수한국의상연구, 전통예복디자인, 규방공예	3학점/ 3시간	• 한국복식사가 아닌 동양복식사나 비교복식사로 이론 수업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학과 대학원의 의류·패션 관련 학과에서 이루어지는 한복교육은 주로 ‘한국복식사’를 중심으로 한 이론수업과 ‘한복구성’과 같은 실기수업이 기본이었다. 학교에 따라 이론수업에 ‘동양복식사’를 추가로 개설하거나 ‘한복구성’ 실기수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3개 이하의 한복 관련 교과목을 편성했다. 물론 배화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같이 한복을 전공과목으로 둔 경우에는 ‘전통예복디자인’이나 ‘전통문화상품’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했다. 또한 한복 작품 제작을 졸업요건으로 정해놓은 일부 대학에서는 한복 디자인 및 제작 수업을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복 교과목이 전공필수가 아니라 전공선택으로 구분돼 수강 인원 미달로 폐강되거나, 한복 관련 교과목을 격년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한복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패션 관련 교과목이 ‘패션디자인’, ‘단계별 의복 구성’, ‘마케팅’, ‘어패럴CAD’ 등으로 세분화된 것과 달리 한복 관련 교과목은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한복 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려면 한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에서는 한복교육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교과목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담당할 전임교원을 뒤야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복을 전공한 전임교수가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에 11명(55.6%), 사립에 7명(17.1%)뿐으로, 한복 전문가를 양성할 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한복 관련 전공 전임교수가 있는 대학교 수

학교 유형	숫자	대학명
4년제 대학	국·공립	11강릉원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공주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사립	7광주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
	소계	18
2~3년제 대학	국·공립	-
	사립	2배화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디지털대학	사립	1원광디지털대학교
합계	20	

2. 공공기관에서의 한복교육

01 ‘한복 전문교육 지원’ 사업에 의한 한복교육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한복 전문교육 지원’은 한복분야의 전문교육 강화로 한복 산업 역량 증진을 꾀하고자 2019년부터 실행돼 온 사업이다. 2022년에는 사업명을 ‘한복 교과목 및 연구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해 운영했다.

연도별로 선정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19년에는 교육지원 분야에 11팀, 창작지원(전시 및 패션쇼) 분야에 9팀, 국제교류(전시 및 패션쇼) 분야에 4팀이 선정되어 총 2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총 19개 기관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중 국민대학교, 동서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는 분야가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선정됐다. 대부분 대학교와 대학원이었으나, 유일하게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국제교류 분야에 뽑혔다.

2020년에는 교육 분야 7팀, 창작 분야 4팀, 연구 분야 4팀이 선정돼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3개 프로그램에 뽑힌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1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13개 기관). 서울디자인고등학교는 2019년에 이어 창작 분야 프로그램에 연속 선정됐다.

2021년에는 교육 분야 8팀, 창작 활동 분야 8팀, 연구개발 분야 3팀이 지원을 받았다. 총 1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배화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남대학교가 서로 다른 두 개 분야의 프로그램에 뽑혀, 선정기관은 총 14곳이었다.

2022년에는 ‘교양교과목 신설’, ‘코드웨어* 적용’, ‘마이크로디그리 연계’**, ‘계절학기 개설’을 요건으로 지원 기관을 모집했다. 그 결과 교양과목교과목 신설 6팀, 코드웨어 적용·마이크로디그리 연계 2팀, 계절학기 개설 3팀이 선정되어 총 1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8개 대학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중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안동대학교는 분야가 다른 두 개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 코드웨어[Code-share]: 코드웨어 교과목으로 지정된 수업은 전공 불문 모든 학과의 학생이 수강 가능하며, 수강 후 졸업학점으로 인정

**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연계: 디지털 신산업 및 사회 수요 기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 교육 과정

2022년 ‘한복 전문교육 지원’ 선정기관과 프로그램

연번	기관명	프로그램명	지원분야
1	고려대학교	한국 전통복식의 이해와 활용 / 한복의 복식과 미	교양과목 신설 / 계절학기 개설
2	국민대학교	한복소품공예 실습 / 실용한복의 이해 <K-배자>	교양과목 신설 / 계절학기 개설
3	배화여자대학교	한국복식문화세미나 / 여자 혼례복 디자인 / 인형한복구성	교양과목 신설
4	서울대학교	한복과 K-컬처	교양과목 신설
5	서울여자대학교	한국복식디자인	코드웨어 적용
6	안동대학교	한복융합제품 설계 / 한복현장실습	교양과목 신설 / 계절학기 개설
7	청주대학교	한복브랜드와 함께하는 캡스톤디자인	코드웨어 적용
8	한남대학교	한복, 근대를 만나다	교양과목 신설

대학에서 전공교과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학과 내 타 전공과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신설이 쉽지 않다. 반면, 교양 교과목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다양한 내용의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절학기 교과목일 때는 기본적으로 한복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는 학교에서만 열 수 있긴 하지만, 짧은 방학 기간 전공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이번 ‘한복 전문교육 지원’ 사업 덕분에 6개의 한복 관련 교양 교과목과 3개의 계절학기 교과목이 개설됐다. 교양 교과목의 경우 이론수업이 2건, 실기수업이 4건이었고, 계절학기 3건은 모두 실기수업이었다.

※ 참고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복 전문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배화여자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는 한복 관련 전공 전임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했다.

02 한복마름방 교육

‘한복마름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내에 조성된 교육 공간이다. 한복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돼, 2021년부터 다양한 이론 및 실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한복문화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 한복 디자이너와 기존 한복 사업 종사자들이다. ‘한국복식사’, ‘한복제작 실습’, ‘디자인 실습’, ‘비즈니스 실습’ 등 매년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강의가 개설된다.

2022년 한복마름방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5차에 걸쳐 진행됐다. 수업은 대면과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수강료는 전액 국고로 지원됐다(이론교육 강의 교안은 물론, 실기교육에

필요한 재료 일체). 참여율이 높고, 일정 수준 이상의 최종 결과물을 완성한 수강자들에게는 수업 종료 후 수료증이 발급됐다.

※ 한복마름방에서 이루어진 강의는 동영상으로 변환돼, ‘한복마름방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져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시청할 수 있다. <https://hanbokedu.kcdf.kr>



2022년 한복마름방 교육 프로그램

구분	한국복식사		한복제작(기초)	한복제작(심화)	디자인 교육		비즈니스 교육	
1차	4월	한국복식사 기초		배내옷 제작	답호 제작	의복구성 기초	유통 및 홍보전략 실습	
2차	5월	한복의 아름다움		여아 저고리와 치마 제작	장옷 제작	디자인 컨셉과 발상	창업교육과 실제	
3차	7월	전통 색채와 소재		남아저고리와 개량 바지 제작	홀창의 제작	의복구성 심화	패션상품 기획 실습	
4차	8월	전통문양과 응용		당의와 조바위 제작	단속곳 제작 배자 제작	도식화와 생산 프로세스	유통 및 홍보전략 실습	
5차	10월	한국복식사 심화	한국복식사 기초	복건과 사규삼 제작	액주름 제작	의복구성 응용	스타일화	패션상품 기획 실습

03 무형문화재 교육

‘무형문화재’는 노래나 춤, 기술처럼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 예술과 기술 등을 일컫는다. 다양한 ‘무형문화재’ 중 한복과 관련된 기능 종목으로는 ‘침선장’, ‘누비장’, ‘자수장’, ‘매듭장’, ‘염색장’ 등이 있으며,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와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한복 관련 무형문화재 교육은 (단기 체험교육을 제외하면) 서울시의 ‘돈화문교육전시장’과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개설 과목은 침선, 매듭, 자수, 염색 등이다. ‘돈화문교육전시장’의 강좌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직접 수업을 이끈다.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수업 역시 일반 시민에게 제공된다는 점은 동일하나, 기초반·연구반·전문반으로 세분돼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누구나 신청해서 배울 수 있지만, 강좌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나 전승교육사가 운영하는 수업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과정이다. 기관에 따라 수업이 끝나면 1년간의 노력을 집대성하는 졸업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



돈화문교육전시장 침선장 전시 포스터



한국문화재단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2022년 졸업작품 전시회 '수다(手多)'

2022년 무형문화재 한복 관련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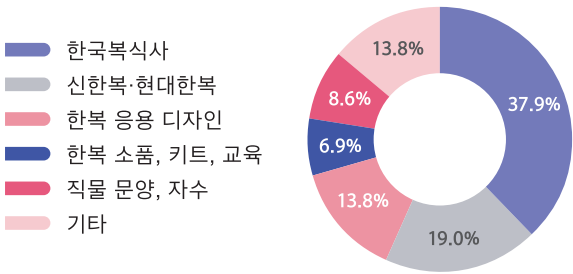
기관명	강좌명	반구성	비고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침선반	기초·연구, 전문(2개 코스)	강좌당 매주 1회, 연간 32회 3시간 수업
	매듭반A, B	기초·연구, 전문(2개 코스)	
	전통자수반	기초·연구, 전문(2개 코스)	
	자수보자기반	기초·연구, 전문(2개 코스)	
돈화문교육전시장	침선	-	강좌당 12회 3시간 수업, 모집인원 4~8명, 학기당 1인 2과목으로 수강 제한
	홍염	-	
	자수	기초, 심화(2개 코스)	
	매듭	-	

3. 학계의 한복 연구 성과

01 학술지 논문

한복 관련 연구는 의상은 물론 역사, 예술, 산업,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다종의 학술지에 논문이 실리게 된다. 따라서 본 백서에서는 한복을 복식 문화로 접근한 연구 성과에 집중하고자 한복문화학회의 『한복문화』, 한국복식학회의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의 『한국복식』, 복식문화학회의 『복식문화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살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학술지 전문 사이트에서 ‘한복’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확인된 다양한 논문까지 포함해, 2022년도의 학술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2022년 학술지에 실린 한복 관련 논문은 총 58건이었다. 이중 ‘한국복식사’ 연구가 22건(3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조선시대 제복’, ‘조복’, ‘군복’, ‘학창의’, ‘야복’, ‘왕실 여성 복식’, ‘여령복식’, ‘수의류와 고려 여성 복식’, ‘가야 머리 장신구’ 등이 주제였다. ‘한국복식사’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분야는 ‘신한복과 현대 한복’으로, 11건(19%)의 논문이 발표됐다. ‘한복을 응용한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8건(13.8%), 한복적인 요소를 응용해 만든 소품과 교구 관련 논문은 4건(6.9%), 한복의 소재가 되는 전통 직물과 직물의 문양, 자수 관련은 5건(8.6%)이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수의, 한국 전통 복식 글로벌화, 전통 한복의 NFT 컬렉션 활성화, 한복진흥법, 한복의 사전적 정의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이 소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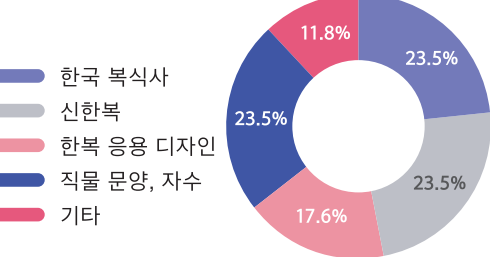


02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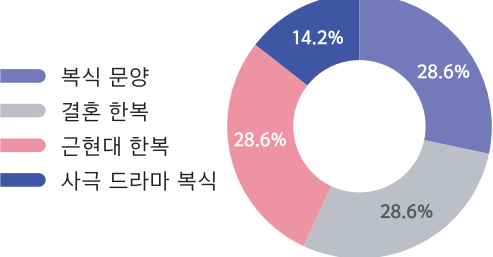
학위논문은 대학원의 의류·패션 관련 학과에서 발행된 졸업논문을 모아 분석했다. 2022년 한복 관련 석사학위논문은 총 17건이었다. 이중 ‘한국복식사’ 연구가 4건(23.5%)으로 ‘왕의 면복’, ‘조선전기 여기(女妓) 흑장삼’, ‘조선후기 정재 여령의 황초삼’, 『천로역정』의 근대복식’에 대한 연구였다. ‘신한복’과 ‘직물, 자수 문양’ 관련 논문 역시 각각 4건(23.5%)씩 확인됐다. ‘한복을 응용한 디자인’을 다룬 연구는 3건이었고, 이 외에도 한중 영상작품의 한복 고증에 대한 분석과 한복의 시각적 질감 표현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다.

박사학위논문은 7건 발표됐다. ‘복식 문양’, ‘결혼 한복’, ‘근현대 한복’을 다룬 논문이 각기 2건씩이었고, ‘사극 드라마 복식’을 비교 분석한 논문이 1건 확인됐다.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03 학술대회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단일 연구 주제로 다루는 학회는 ‘한복문화학회’가 유일하며 의류·패션 관련 학회 중 ‘한국복식’을 하나의 분과로 둔 단체로는 ‘한국복식학회’, ‘한국의 류학회’ 등이 있다. 2022년 한복과 관련한 학술대회는 ‘한복문화학회’와, ‘한국복식학회’에서 각 2회씩 4차례 개최됐고 총 16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를 통해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한복 소재’, ‘한복과 K 패션’, ‘한복 마케팅’, ‘한복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이 소개됐다.

※ ‘한복’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만 정리했다. 구두 발표나 포스터발표에 한복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했다.

2022년 학술대회 개최 현황

구분	주제	일시	장소	발표제목	발표자
한복문화학회					
국제 춘계 학술 대회	글로벌시대 전통복 식문화의 부상	4월 16일 (토)	zoom을 통한 온라인 학술대회	Contemporary Fashion from Hawai'i in the Era of Glocalization	Bahng, Young Jin-Andy Reilly(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The Status Quo of the Inheritance of Chinese WitchcraftCulture	张国强(Professor, Dalian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An Introduction to Myanmar Traditional Dress-code andan Analysis to its Related Background Culture	Myat Thida Oo(Lecturer,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Hanbok Illustration by Heuk-yo-seok	Jl Su-Hyun(Professor, Wonkwang Digital University)
추계 학술 대회	국가무형문화재 '한복생활' 전승공동체 활성화 방안	10월 22 일 (토)	서울 코리어나호텔 7층 스테이트퀸룸	한복생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와 활성화 방안	윤양노(중부대학교 교수)
				대중(對衆) 교육을 통한 '한복생활'의 확장 사례	최연우(단국대학교 교수)
				한복 디자인의 연구 방법과 개발 사례	장현주(제주대학교 교수)
				우리 옷 문화를 일구다	김남희(㈜돌실나이 대표)
한국복식학회					
춘계 학술 대회	Re-thinking: 한복 그리고 K-fashion	5월 14일 (토)	DDP '서울-온'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문화콘텐츠의 보고, 의궤의 활용	신병주(건국대학교 교수)
				한복의 현대화: 전통소재의 고급화, 대중화	조호숙(가천대학교 석좌 교수, 경운박물관 관장)
				한국적 아름다움의 세계화: '민주킴' K-fashion 스토리	김민주(MINJUKIM 대표, 2020 넷플릭스'넥스트 인 패션'초대 우승자)
				K-fashion 브랜드의 글로벌 패션마켓의 진출과 성공전략	박지우(David Park, Tomorrow Ltd의 아시아 지역 총괄 책임자)
추계 학술 대회	TC2, Traditional Culture x TeCh: 한복의 혁신과 세계화	10월 22 일 (토)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Performing and reforming tradition	로잘리 김(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한국담당 큐레이터)
				신기술융합을 통한 전통문화산업의 고부가가치	이정순(충남대 교수)
				나는 한복입고 세계간다: 브랜드 리슬 스토리	황이슬(리슬 대표)
				전통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NFT 가능성	김영근((주)큐폴라 CEO, 스튜디오 요그 감독)

4. 한복교육과 연구의 방향성

한국의 K-문화 열풍 속에서 한복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요즘이지만, 대학에서의 한복교육은 오히려 위축되는 추세다. 한복문화와 산업계에서 활동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에서의 한복교육 약화는 한복 문화 발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한복 관련 교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과 내의 합의가 필요하며, 대학 교육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해야지만 행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까닭에 개선이 쉽지 않다. 또, 대학의 교과과정은 성격상 한번 폐지되면 다시 개설하기 어렵고, 취업과 직접 관련된 교과목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그 탓에 한복교육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복 교과목의 수준 높은 교육 운영을 위해 한복 전공자가 대학의 전임교수로 근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2022년 의류·패션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77개의 4년제 대학 중 한복 전공 교수가 있는 학교는 18개로 전체의 23%에 불과하다. 한복 전임교수의 확보는 수업의 개설 수와 연구 능력은 물론, 수준 높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복 교육 발전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대학에서는 한복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고,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전문가를 키우는 대학에 한복교육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교육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갈 때, 한복문화 확장과 산업 성장의 길이 열릴 것이다.

V1

2022년 언론이 주목한 한복

1. 국내 언론이 바라본 한복
2. 해외 언론이 바라본 한복
3. 종이에 새겨진 한복

언론은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까닭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국민의 인식과 시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2022년, 국내외 언론이 한복과 관련된 각종 이슈와 정보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인을 포함한 세계인들이 ‘한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1. 국내 언론이 바라본 한복

국내 언론들이 한복을 어떻게 소개하고 한복의 무엇을 주목했는지에 관한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빅카인즈에서 ‘한복’을 키워드로 총 2,706개의 뉴스 기사를 추출한 후 국내와 국외 소식으로 나누고, 지역을 구분했으며, 기사의 성격을(빈도량 기준) 1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분류했다. 그런 다음 기사별로 핵심 키워드를 뽑아 정리했다.

01 숫자로 파악한 2022년 ‘한복’

‘한복’과 관련된 기사는 국내 뉴스가 61.2%로 과반을 차지했으나, 국외 뉴스도 38.8%로 상당히 높았다. 국내의 경우, 17개 행정구역 중 ‘서울특별시’의 비중이 21.9%로 압도적이었는데, 한복과 관련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서울에 있고, 한복상점, 한복문화주간과 같은 대형 행사가 서울에서 주로 진행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서울 다음은 전라북도(8.5%)와 경상북도(6.5%)에 관한 언급이 많은데, 이는 ‘전주시(한국전통문화전당)’와 ‘경상북도(한국한복진흥원)’가 2022년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사업에 선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외의 경우 총 29개국에 관한 기사가 소개됐다. 이 중 10회 이상 언급된 국가는 ‘중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베트남(총 6개국)’ 순서다. 이 중에서도 중국의 비율이 전체의 63.2%로 절대다수인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한복을 필두로 한 많은 기사가 배포되었던 것이 주요 동인이다. 미국에서는 한미수교 140주년 행사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

원의 ‘한복 웨이브’ 사업 일환으로 김연아의 한복이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송출된 것, 그리고 BTS 공연 이슈 등이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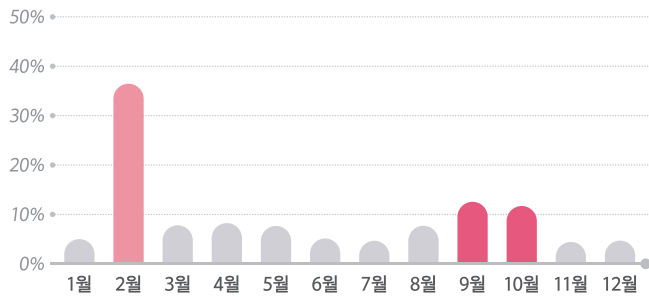
언론 기사를 월별로 나눠보면, 2월에 실린 기사 건수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2022년 설날이 2월 1일이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일에서 20일까지 열렸던 까닭이다.

그다음으로는 9월과 10월에 게시된 기사가 10%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9월은 추석에 있는 달이어서 추석 맛이 한복체험이 많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이 한복을 입고 전통 놀이를 즐기거나 송편을 빚고 있는 모습을 소개한 기사가 자주 노출됐다. 10월은 <한복문화주간>이 열린 달로,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지역 신문들이 해당 지역의 활동과 이벤트를 소개하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월별 ‘한복’ 기사 건수와 비율

월	기사 건수	비율
1	110	4.1%
2	828	30.6%
3	186	6.9%
4	200	7.4%
5	174	6.4%
6	122	4.5%
7	95	3.5%
8	205	7.6%
9	303	11.2%
10	271	10.0%
11	83	3.1%
12	129	4.8%
합계	2,706	100.0%

월별 ‘한복’ 기사 건수



국내 언론 기사 중 국내와 국외 소식의 비율



지역별 ‘한복’ 기사 건수와 비율

순위	지역구분	빈도	비율
1위	서울특별시	363	21.9%
2위	전라북도	141	8.5%
3위	경상북도	108	6.5%
4위	경기도	87	5.3%
5위	부산광역시	79	4.8%
6위	대구광역시	61	3.7%
7위	경상남도	53	3.2%
8위	강원특별자치도	50	3.0%
9위	광주광역시	44	2.7%
10위	전라남도	42	2.5%
11위	대전광역시	40	2.4%
12위	충청남도	36	2.2%
13위	인천광역시	31	1.9%
14위	충청북도	25	1.59%
15위	울산광역시	14	0.8%
16위	세종특별자치시	6	0.4%
17위	제주특별자치도	2	0.1%
-	지역 무관	474	28.6%
합계		1,656	100.0%

국내 언론에 소개된 국가별 ‘한복’ 관련 기사 건수와 비율

연번	국가	빈도	비율
1	중국	664	63.2%
2	미국	155	14.8%
3	일본	82	7.8%
4	영국	36	3.4%
5	프랑스	24	2.3%
6	베트남	19	1.8%
-	그 외 23개국	70	6.7%
합계		1,050	100.0%

국내 ‘한복’ 관련 기사의 성격 분류

연번	분류	설명	빈도	비율
1	갈등	한복을 둘러싼 의견 차	483	17.8%
2	역사·전통	한복의 정체성에 관한 언급	463	17.1%
3	행사	다양한 행사에서 기획한 한복 이벤트	306	11.3%
4	한복체험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활동	220	8.1%
5	축제·관광	축제·관광 때 활용된 한복 문화	176	6.5%
6	홍보	한복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144	5.3%
7	영상·공연	한복이 등장하는 영상과 공연	87	3.2%

8	전시	한복을 주제로 한 전시회	82	3.0%
9	산업	한복산업계의 동향	74	2.7%
10	제도·정책	한복 관련된 제도와 정책	59	2.2%
11	한복인	한복 장인, 디자이너 등의 전문인	48	1.8%
12	한류	한류열풍과 한복문화	45	1.7%
13	변용·융합	한복과 타분야와의 융합 그리고 변용	45	1.6%
14	현대화·생활화	한복의 일상화	35	1.3%
15	한복교육	한복 문화, 전문기술, 대학 교육	20	0.7%
-	기타	그 외 한복과 관련된 이슈	423	15.6%
합계			2,706	100.0%

02 ‘한복’이 우리에게 던져준 생각거리

2022년은 유달리 한복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해였다. 한복의 원조가 어디인가를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한복이 한국의 오랜 전통 복식임을 강조하는 기사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이슈를 촉발한 것은 2022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다. 개막식에서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이 등장해 중국의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이 연출된 까닭이다.

박신혜, BTS, 청하 등과 같은 몇몇 연예인들이 한복을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한복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이를 본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악의적인 댓글을 달며 부정적인 여파가 이어졌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임을 방송에서 언급한 유재석의 경우 중국 내 팬클럽이 해체되는 일까지 있었다(이 팍 깨물고 “주체 못 하겠더라”…유재석 한 마디에 中 팬들 “팬클럽 해체”, 세계일보, 2022.02.22.).



배우 박신혜 인스타그램

‘보그(Vogue) 코리아’의 화보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다. 패션 잡지인 ‘보그(Vogue) 코리아’는 청와대를 배경으로 촬영한 한복 화보를 공개했는데, 한복의 전통 고증 정도 및 사진 촬영 방식 등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이 밖에도 사회 곳곳에서 한복을 둘러싼 생각과 견해 차이로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이 중 국내외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몇몇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 ‘한복’이 ‘조선족 복식’으로 소개
- 미국 게임사 ‘일렉트로닉 아츠(EA)’가 음력 설을 맞아 ‘Happy Lunar New Year’라는 문구와 한복을 입은 캐릭터 이미지를 올리자, 중국 누리꾼들이 이에 반발하며 해당 게임 불매 운동으로까지 확산
- 태조 이성계 어진의 ‘곤룡포’는 중국의 한복이 한국으로 건너간 증거라는 중국 측 주장
- 중국 드라마 ‘진수기 珍鑣記’의 내용이 한국 드라마 ‘대장금’과 유사하고, 배우들이 입고 있는 복식도 한복과 닮은꼴
- 미국 게티이미지에서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사진에 “중국 무용수들이 춘제(春節·음력 1월 1일)를 기념하기 위해 전통의상을 입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 유통

03 한복 활성화, 성과와 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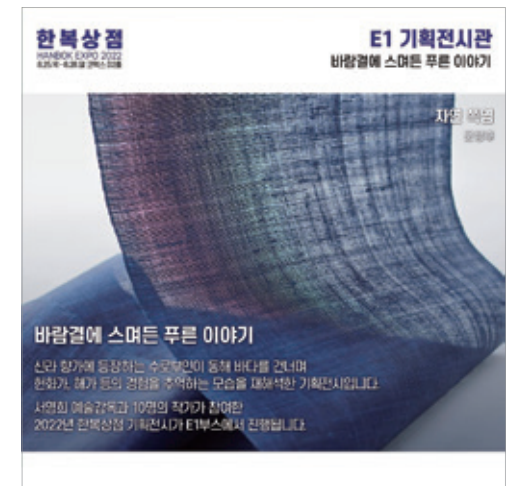
한복 활성화와 대중화, 그리고 이를 위한 움직임에 관한 내용도 언론 기사로 종종 다뤄졌다. 전국에서 펼쳐진 ‘한복문화주간’ 기사가 67건 실렸고, 서울에서 개최된 ‘한복상점’은 22회 보도됐다. 관련 키워드로는 국내외 한복 활성화 사업의 주관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각각 169회, 112회 언급됐다. 한복을 일상복으로 입기 위한 ‘한복근무복’, ‘한복교복’과 관련된 기사도 37건과 32건 확인됐다.

‘한류’는 한복의 세계화를 이끈 촉매제였다. 2022년, 한복을 ‘K-문화’의 하나로 소개한 기사가 103건에 달했다.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한 BTS와 블랙핑크의 무대의상이 자주 언급됐고, 외국인들이 이들의 콘서트나 팬미팅에 한복을 입고 왔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다. 세계 각지에서 한복 관련 행사(패션쇼와 전시, 뷰티 이벤트 등)가 열렸다는 소식, 그리고 넷플릭

스 드라마 ‘킹덤’의 성공으로 세계인들의 패션 아이템이 된 ‘갓’을 다룬 기사도 31건 확인됐다.

한복을 경험하는 장소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전통문화를 느끼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옥마을’이 107회 언급됐고, 조선시대 왕실 문화가 고스란히 담긴 ‘경복궁’이 79회로 그 뒤를 따랐다. 3위는 ‘뉴욕’이었고, BTS 공연이 있었던 ‘라스베이거스’도 29회 언론에 노출됐다. 김연아가 디자인 개발에 참여한 한복이 영국에 소개되면서, ‘런던’ 관련 기사도 29건 검색됐다. 2022년도에 영주시에서 문을 연 ‘선비세상’이 26회, 춘향의 고향으로 알려진 남원의 ‘광한루’가 18회 기사화 됐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사도 있었다. 전국 여러 지자체와 기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복 무료대여는 물론 곱게 단장까지 해드린 후, 장수 사진을 찍어드렸다는 보도가 대표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전력, 대전광역시 동구아름다운복지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수영구 광안 2동 행정복지센터, 서울시 강서구 명지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충청남도 천안로타리클럽·청룡동행정복지센터와 예산읍주민자치회 등이 이 뜻깊은 사업을 이끌었다.



2022 한복상점 기획전시 주제 '바람결에 스며든 푸른 이야기'



2022 한복교복 디자인 개발



동구아름다운복지관의 장수 사진 촬영 사업(출처:동구아름다운복지관)

04 한복 홍보

한복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한 기사는 144건(분류기준 6위) 확인됐는데, 특히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그 이유는 그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한 2022년 ‘한류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한복웨이브, Hanbok Wave)’*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연아는 한복 알리기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한복 업체 10곳과 함께 한복 디자인·기획·홍보·마케팅에 발 벗고 나섰다. 해당 사업의 성과물로 제작된 한복은 영국 런던 패션쇼-한복 패션쇼, 한복 웨이브(Hanbok Wave)-무대에 올랐으며, 김연아를 필두로 촬영된 한복 화보와 영상은 프랑스 패션지 마리클레르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선보이는 성과도 올렸다.

* 한류 협업 콘텐츠 기획 개발(한복웨이브, Hanbok Wave)은 잠재력과 기술력을 갖춘 한복업체와 한류 문화예술인이 만나, 세계 시장에 진출 가능한 한복 상품을 만들고, 한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가상인간 ‘리아’가 한복을 입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옷을 알렸다는 보도도 11건 확인됐다. 이 사업은 중국의 한복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네오엔터디엑스가 프로젝트퀘스천과 손잡고 진행한 ‘한복 프로젝트’로, 한복 홍보의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2022 한복웨이브에 참여한 김연아의 화보와 홍보영상(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가상 인간 리아의 ‘한복 프로젝트’



05 전국 축제와 한복문화 행사

2022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종식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그동안 중단됐거나 축소 운영하던 축제도 정상화됐는데, 언론에 보도된 전국 지역 축제 중 62곳*에서 한복 관련 행사가 있었다. ‘궁중한복페스티벌’이나 ‘정선아리랑제’처럼 한복이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은 축제에서부터 ‘평창송어축제’,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임실N치즈축제’ 등 한복과 관련 없어 보이는 곳까지, 한복은 관광객을 즐겁게 하는 콘텐츠로 활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열린 축제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도와 경상도가 11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축제는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성이 바탕이 된 전통문화나 특산품을 주제로 열렸고, 한복은 축제의 흥을 돋우고 전통의 깊이를 더하는 역할을 했다.

* 2022년 ‘빅카인즈’ 검색 기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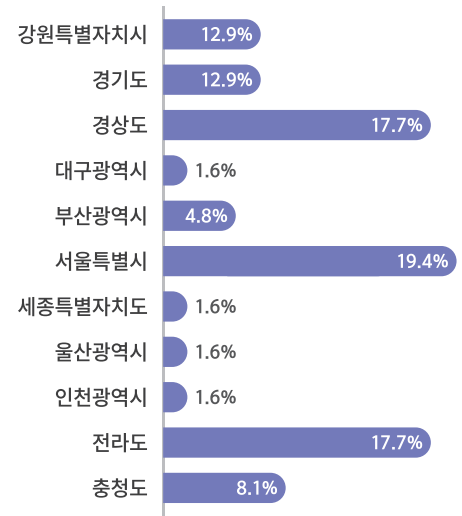
2022년 한복문화 행사 더해진 전국 축제 목록

지역		연번	축제명
강원특별자치시 6개 지역, 8개 축제	강릉시	1	• 교산허균문화제
		2	• 강릉 문화재야행
	삼척시	3	• 삼척정월대보름제
	원주시	4	• 제1회 원주 한복의 날
		5	• 평화통일 대축제
	정선군	6	• 정선아리랑제
	춘천시	7	•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평창군	8	• 평창송어축제

경기도 8개 지역, 8개 축제	고양시	9	• 제34회 고양행주문화제
	구리시	10	• 2022 동구릉문화제
	수원시	11	• 수원남문 거리축제
	시흥시	12	• 연성문화제
	여주시	13	• 오곡나루축제
	의정부시	14	• 제37회 회룡문화제
	파주시	15	• 제32회 율곡문화제
	평택시	16	• 더 어텀 시즌: 아트&플레이 페스타
경상도 7개 지역, 11개 축제	경산시	17	• 11회 경산대추 & 농산물 한마당축제
	상주시	18	• 궁중한복페스티벌
		19	• 상주예술축제
	안동시	20	• 안동 양로연
		21	• 하회마을 단오제
	양산시	22	• 원동매화축제
	영주시	23	• 영주소백산철쭉제
		24	• 한국선비문화축제
	진주시	25	• 진주논개제
	창원시	26	• 마산부림한복축제
		27	• 무궁화 사랑 국민대축제
대구광역시 1개 지역, 1개 축제	중구	28	•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부산광역시 3개 지역, 3개 축제	금정구	29	• 금정산성축제
	동래구	30	• 동래읍성역사축제
	해운대구	31	• 부산디자인위크
서울특별시 9개 지역, 12개 축제	강남구	32	•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33	• 오비맥주-업사이클링 페스티벌
	광화문/잠실 일대	34	• 한국문화축제
	구로구	35	•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노원구	36	• 월계 한류체험 축제
	마포구	37	• 마포새우젓축제
	용산구	38	• 이태원지구촌축제
	은평구	39	•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종로구	40	• 아시아모델페스티벌
		41	• 종로청계관광특구 육의전 축제
		42	• 종로한복축제
	중구	43	• 제7회 남산 한국의 맛 축제
세종특별자치도 1개 지역, 1개 축제	연기면	44	• 세종 연기향교 사계여름 축제 ‘메밀꽃마실’
울산광역시 1개 지역, 1개 축제	중구	45	• 울산마두희축제
인천광역시 1개 지역, 1개 축제	중구	46	• 한복 복합문화 페스티벌 ‘2022 상상유니브 PLAY IN 아리따움’

전라도 7개 지역, 11개 축제	곡성군	47	• 심청어린이대축제
		48	• 곡성세계장미축제
	함평군	49	• 2022 대한민국 국향대전
	고창군	50	• 고창모양성제
		51	• 복운축제
	남원시	52	• 춘향제
		53	• 제30회 흥부제
	익산시	54	• 숨리마실축제
		55	• 익산문화재야행
	임실군	56	• 임실N치즈축제
충청도 3개 지역, 5개 축제	전주시	57	• 전주문화재야행
	아산시	58	•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59	• 현충사 달빛야행
	청주시	60	• 청주읍성 큰잔치
		61	• 청주문화재야행
	충주시	62	• 2022 충주문화재야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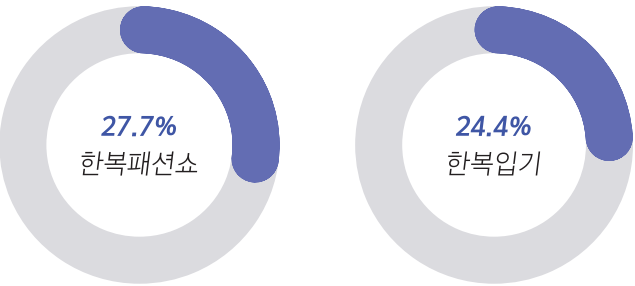
한복문화 행사가 포함된 축제의 지역별 비율



축제 때 선보인 한복 관련 행사로는 ‘한복패션쇼(27.7%)’, ‘한복입기(24.4%)’, ‘한복입고 전통놀이 하기(16.0%)’, ‘한복 만들기·그리기 체험(10.1%)’, ‘한복공연(6.7%)’, ‘한복 맵시 대회(5.0%)’, ‘한복 전시회(2.5%)’* 등이 있었는데, 이 중 ‘한복패션쇼’와 ‘한복입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목적이 분명한 주제 전시로, 판매 또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진열은 제외했다.

지역 축제 한복 관련 행사

행사 구분	빈도	비율
한복패션쇼	33	27.7%
한복입기	29	24.4%
한복 입고 전통놀이 하기	19	16.0%
한복 만들기·그리기 체험	12	10.1%
한복공연	8	6.7%
한복 맵시 대회	6	5.0%
한복 전시회	3	2.5%
기타	9	7.6%
총계	119	100.0%



06 한복 펼침, 전국 한복 관련 전시회

언론에서 언급한 한복 전시회는 총 52건이다. 이 중 전통한복 전시가 38건(7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 명장들의 한복 전시와 조선시대 출토 복식을 재현한 전시, 그리고 한복의 세계화와 현대화에 앞장섰던 고(故) 이리자 선생을 기리는 <우리옷 디자이너 이리자 기증 특별전>, 한국을 오가는 외국인들에게 전통한복을 소개한 인천공항박물관의 <한복-꽃이 핀 비단 옷이라네> 전시 등이 있었다. 신한복 관련 전시로는 한복근무복과 한복교복, 한류스타들의 한복 의상, 대학의 하이브리드 패션 전시회 등이 기사로 다뤄졌다. 전통 복식 관련 전시가 주류였으나, 전시를 보여주는 방식에서는 새로운 시도도 있었다. 김포아트빌리지의 <AR사극한복展(K-costume exhibition)>에서는 한복에 AR 기법을 적용해, 한복의 문양이 움직이거나 한복을 입은 사극 배우가 나타나게 했고,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한복을 선보이는 <한복, 마인크래프트와 만나다> 전시를 열었다. 또, 실물로는 볼 수 없는 고려의 복식을 그림으로 만나는 KCDF 갤러리의 <푸른 구름의 나라> 전시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인천공항박물관, <한복-꽃이 핀 비단 옷이라네>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우리옷 디자이너 이리자 기증 특별전>

KCDF 갤러리, <푸른 구름의 나라>

07 인물로 보는 2022년

2022년 언론이 한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기사화한 인물은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였다. 서교수는 한복뿐만 아니라 독도와 고구려 역사 왜곡 문제, 일본 위안부 만행 등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소신을 밝히며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촉발된 한복 원조 논란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SNS 한복 챌린지’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다음으로는 ‘김연아’가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연아는 한복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한복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뉴욕 한복판에서 동영상으로 한복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여, 한복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K-문화와 관련해서는 ‘BTS’, ‘블랙핑크’가 연관 검색어로 자주 등장했고, 한복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들에게 인지도를 높인 디자이너 황이슬, 김리을, 김단하도 언론에 이름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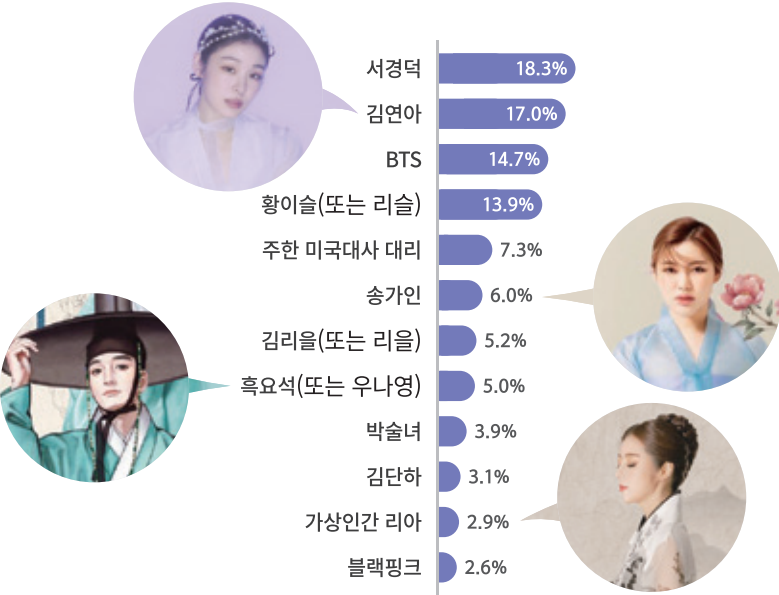
뜻밖에 인물도 검색됐다. 바로 주한 미국대사 대리인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다. 그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과 함께 “한국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김치, K팝, K드라마...한복은 말할 것도 없죠.”라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



서경덕 교수의 SNS 한복 챌린지 운동(출처: 인스타그램 캡처)

언론에 한복과 연관 검색어로 등장한 인물과 비율

연번	인명	언급 수	비율	비고
1	서경덕	70	18.3%	한복보호 인식 촉구
2	김연아	65	17.0%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한복 광고, 한복 해외 판로 개척 지원
3	BTS	56	14.7%	K-문화, 한복 무대의상
4	황이슬(또는 리슬)	53	13.9%	젊은 한복 디자이너
5	주한 미국대사 대리	28	7.3%	한복 인증 사진
6	송가인	23	6.0%	2022년 한복 홍보대사
7	김리을(또는 리을)	20	5.2%	젊은 한복 디자이너
8	흑요석(또는 우나영)	19	5.0%	한복 동화 일러스터
9	박솔녀	15	3.9%	한복 전문가, 한복 원형 변화에 대한 우려
10	김단하	12	3.1%	젊은 한복 디자이너
11	가상인간 리아	11	2.9%	가상현실 속에서의 한복 홍보
12	블랙핑크	10	2.6%	K-문화, 한복 무대 의상
합계		382	100.0%	-



2. 국외 언론이 바라본 한복

2022년, 해외에서는 한복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웹 사이트에 ‘Hanbok’을 키워드로 신문과 잡지 칼럼, 그리고 TV 보도 기사를 조사했고, 총 102개의 기사가 수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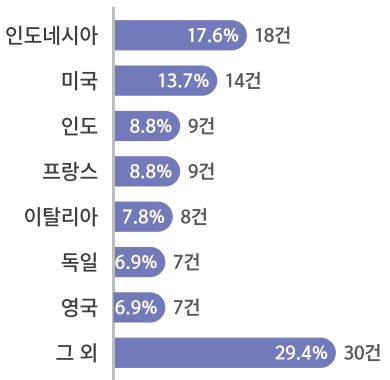
01 ‘한복’에 주목한 국가들

‘한복’을 기사화한 나라는 총 26개국이었다. 이중 인도네시아가 18건(17.6%)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미국(14건, 13.7%)과 인도, 프랑스(각 9건, 8.8%)가 그 뒤를 이었다.

한복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높은 관심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우선, BTS와 블랙핑크 같은 한류 스타들의 한복 무대의상이 젊은 층에 주목받은 영향이 컸다. 그리고 이런 K-문화 열풍에 힘입어 한국 관광과 한복체험을 소개하는 보도도 많았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의 유명 여배우가 한국 재미 교포와 결혼하면서, 혼례복으로 입은 ‘한복’에 관한 기사도 실렸다. 한복을 소개하는 공식적인 행사 역시 큰 몫을 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12월 9일(금)에 열린 ‘아세안의 밤’ 행사를 계기로 9일부터 17일까지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했는데, 인도네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한국문화원이 위치한 자카르타는 2022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와 함께 만든 해외 최초 케이(K)-브랜드 해외홍보관인 ‘코리아 360(KOREA 360)’이 설치된 곳으로, 화장품, 한류 콘텐츠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자원으로써 ‘한복’을 선보였다. 이에 관한 인도네시아의 언론 보도는 아래와 같다.

- 한복 코리아 360 행사가 2022년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자카르타 롯데쇼핑 애비뉴 ‘KOREA 360’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은 한복의 역사와 다양한 특징을 알

2022년 국가별 한복 기사 비율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KCCI*는 방문객들에게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한복 관련 체험을 제공한다(acara bertajuk hanbok korea 360 berlangsung pada tanggal 16 dan 17 desember 2022 di KOREA 360, Lotte Shopping Aveniu, Jakarta. Melalui acara ini, para penjunjung dapat mengetahui tentang sejarah dan beragam hal tentang Hanbok. Tidak hanya mengetahui dan mengenal, KCCI memberikan pengalaman langsung(hands-on experience) kepada para pengunjung uang tentunya berhubungan degan Hanbok asli dari Korea). Semua tentang Hanbok ada di acara Korea 360, 『ANTARA』, 2022.12.16.

* 대한상공회의소: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상공인들의 단체로 1884년 설립된 ‘한성상업회의소’에서부터 출발했다. 상공업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상공업 진흥을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며, 정부 정책 자문과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한다.



인도네시아 <한복문화주간>, 12월 9~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K-브랜드 해외홍보관 ‘코리아 360’

02 한복, 세계인들의 문화 콘텐츠

2022년 세계인들은 한복의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 ‘Hanbok(한복)’을 키워드로 검색한 각국의 언론 기사들을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면 8개(한복문화 향유, 연예계 한복 의상, 패션쇼와 전시, 한복을 둘러싼 논란, 전통복식/역사, 한복 홍보, 의류산업, 기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각국의 언론인들은 ‘한복문화 향유(35.3%)’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한복이 세계인들에게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한복문화 향유’의 형태로는 ‘축제와 행사’, 그리고 ‘관광’ 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험한 한복문화의 즐거움을 다룬 기사가 13건씩으로 최다였다. 그 외에도 유명인의 ‘혼례’ 의상으로서의 한복, ‘한류팬덤’으로 촉발된 한복 입기 유행 등의 보도가 확인됐다.



‘한복문화 향유’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기사는 연예인들의 한복 의상에 관한 것이었다. BTS, 블랙핑크, VIVIZ 등 K팝 가수들의 무대의상이 한국의 전통 복식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복의 매력을 이야기하는 언론 보도가 17.7%를 차지했다.

‘Hanhok’을 키워드로 검색한 세계 언론 기사의 성격분류

연번	구분	빈도	비율	
1	한복문화 향유(축제와 행사)	13	12.75%	35.3%
	한복문화 향유(관광)	13	12.75%	
	한복문화 향유(혼례)	6	5.88%	
	한복 문화 향유(한류팬덤)	2	1.96%	
	한복 문화 향유(기타)	2	1.96%	
2	연예계 한복 의상	18	17.7%	17.7%
3	패션쇼와 전시	14	13.7%	13.7%
4	한복을 둘러싼 논란(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11	10.78%	11.8%
	한복을 둘러싼 논란(디즈니)	1	0.98%	
5	전통복식/역사	9	8.8%	8.8%
6	한복 홍보	5	4.9%	4.9%
7	의류산업	2	2.0%	2.0%
8	기타	6	5.9%	5.9%
합계		102	100.0%	

3. 종이에 새겨진 한복

대한출판문화협회가 12월에 발표한『2022 한국출판연감』(2022 Korean Publishers Yearbook)에 따르면 2022년도에 출간된 도서의 수는 41,107권이다. 시대는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이책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1 국내 도서

국내 한복 관련 도서는 연구의 공신력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사했다. ※ 『도서관법』 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의거 국내 모든 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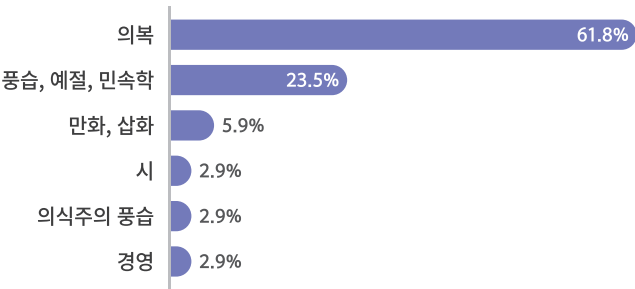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에 입수된, 2022년 국내에서 발간된 한복 관련 도서(비매품 포함)는 총 35권이였다. 이 중 일반도서가 17권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전자책 8권, 도록 7권, 보고서 4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책 7권은 『코티의 구석구석 한국이야기』의 7개국 외국어판(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이였다.

도서의 성격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 정리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호 592번 ‘의복’인 경우가 61.8%로 과반이었고, 2위는 23.5%를 기록한 ‘풍습, 예절, 민속학’이였다. 그 외는 1~2권으로 발간 수량이 많지 않았다. 한복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문화사로 풀어낸 교양 도서, 한복 산업계 진출을 꿈꾸는 예비 한복인을 위한 지침서, 한복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정보서, 한복 소재에 집중한 전문 서적 등 한복 문화 확산과 산업 촉진을 위한 도서류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O30 백과사전’류는 물론 ‘140 경학’, ‘370 교육학’, ‘800 문학’, ‘630 공예’, ‘650 회화, 도화, 디자인’, ‘660 사진 예술’, ‘900 역사’, ‘910 아시아’ 등 다방면에서 한복을 의미있게 다룬 도서 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출간 ‘한복’ 관련 도서의 성격분류

한국십진분류		빈도	비율
의복	592	21	61.8%
풍습, 예절, 민속학	380	8	23.5%
만화, 삽화	657	2	5.9%
시	811	1	2.9%
의식주의 풍습	381	1	2.9%
경영	325	1	2.9%
미분류	-	1	-
합계		36	100.0%

2022년 출간 ‘한복’ 관련 도서의 성격분류별 비율



02 국외 도서

한복을 주제로 발간된 해외 도서는 총 9권이었다. 9권 중 8권이 영어로 적혀 있었고, 출판지는 7권이 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집이 4권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1권은 컬러링북이었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의상임을 알 수 있는, 즉 한복의 원류와 변화과정을 다룬 역사서, 한복을 장식하는 다양한 무늬의 의미를 소개하는 문양집, 한복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 바르게 입는 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 등 외국인들이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도서류가 무엇인지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발간 사업에도 관심을 뒤야 할 때다.

※ 2022년 국내외 발간 도서 목록은 부록 참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한글 단어(2022년 12월 기준)

1976~2020년 수록			2021년 수록		
단어	영문	품사	단어	영문	품사
고추장	gochujang	명사	K-드라마	K-drama	명사
기생	gisaeng	명사	K-복합어	K-, comb	명사
김치	kimchi	명사	PC방	PC bang	명사
된장	doenjang	명사	갈비	galbi	명사
리	ri	명사	김밥	kimbap	명사
막걸리	makkoli	명사	누나	noona	명사
면	myon	명사	당수도	Tang Soo Do	명사
비빔밥	bibimbap	명사	대박	daebak	명사/감탄사/형용사
소주	soju	명사	동치미	dongchimi	명사
시조	sijo	명사	만화	manhwa	명사
양반	yangban	명사	먹방	mukbang	명사
언문	onmun	명사	반찬	banchan	명사
온돌	ondol	명사	불고기	bulgogi	명사
원	won	명사	삼겹살	samgyeopsal	명사
재벌	chaebol	명사	스킨십	skinship	명사
주체	Juche	명사	애교	aegyo	명사/형용사
코노	Kono	명사	언니	unni	명사
태권도	taekwondo	명사	오빠	oppa	명사
학원	hagwon	명사	잡채	japchae	명사
한글	Hangul	명사	치맥	chimaek	명사
합기도	hapkido	명사	콩글리시	konglish	명사
			트로트	trot	명사
			파이팅	fighting	감탄사
			한류	hallyu	명사
			한류	Korean wave	명사
			한복	hanbok	명사

2022년 게재 학술지 논문

연번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호사항과 수록면
1	김은경(숙명여자대학교) 채금석(숙명여자대학교)	고려시대 여성의복의 미적특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Vol.46 No.2 [2022], 272~291(20쪽)
2	남가람(세종대학교패션디자인학과) 성옥진(세종대학교) 김숙진(세종대학교)	신사임당 초충도팔곡병 민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메타버스 플랫폼의 '제페토' 아이템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 학회지	한국패션디자인 학회	Vol.22 No.3 [2022], 31~53(23쪽)
3	선준호(한양대학교) 이규혜(한양대학교)	캐주얼 한복 브랜드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도된 이미지와 지각된 이미지의 일치성-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Vol.46 No.5 [2022], 772~788(17쪽)
4	황지영(강릉원주대학교) 권진(강릉원주대학교)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 전통복식을 응용한 현대 여성복 개발에 관한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4 [2022], 75~91(17쪽)
5	구도영(동북아역사재단)	15세기 중국에서 유행한 조선의 마미군 패션, 그 문화적 변용에 대하여	史林	수선사학회	Vol.- No.80 [2022], 169~204(36쪽)
6	권유미	한복 문화를 활용한 3D 프린팅 패션 소품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연구 -뒤꽂이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한국디자인트 렌드학회	Vol.27 No.4 [2022], 305~314(10쪽)
7	금다운(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금종숙(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선시대 출두유물에 나타난 악수(握手)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1 [2022], 55~78(24쪽)
8	김다민(중앙대학교)	문화정체성 관점에서 혼수한복 디자인의 변화양상 연구	비교민속학	비교민속학회	Vol.- No.76 [2022], 390~429(40쪽)
9	김민지(문양연구재단)	한복의 사전적 정의 검토	服飾	한국복식학회	Vol.72 No.6 [2022], 139~155(17쪽)
10	김민지(전북대학교 생활과학과) 김순영(전북대학교)	수단-목적 사슬이론에 따른 체험용 대여한복업체의 가치구조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Vol.46 No.2 [2022], 331~348(18쪽)
11	김보연(이화여자대학교)	동아시아 전통모시의 제작 공정 비교	한국 복식	단국대학교 석 주선기념박물관	Vol.- No.47 [2022], 55~85(31쪽)
12	김소현(배화여자대학교)	조선 후기의 사직제례 복식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4 [2022], 53~73(21쪽)
13	김순아(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비자의 관여와 감각추구성향이 한복선호도와 한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Vol.46 No.2 [2022], 349~366(18쪽)
14	김용문(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강릉자수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3 [2022], 167~179(13쪽)
15	김지원(단국대학교)	17세기 초 조선 왕비 대삼(大衫)·하피(霞帔) 연구	服飾	한국복식학회	Vol.72 No.4 [2022], 90~107(18쪽)
16	김혜란, 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조선 후기 학창의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3 [2022], 5~22(18쪽)
17	김혜란, 홍나영 (이화여자대학교)	중국 학창(鶴幘)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4 [2022], 5~20(16쪽)
18	김희령(경인여자대학교)	색동을 활용한 신한복 제품의 디자인 개발-CLO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Vol.46 No.6 [2022], 945~962(18쪽)

연번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호사항과 수록면
19	문서영(동국대학교) 김연아(동국대학교)	영화 <해어화>에 나타난 기생 한복배색 이미지를 활용한 디지털 뷰티일러스트레이션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2 [2022], 79~94(16쪽)
20	민소희(가천대학교 의상학과) 서성은(가천대학교)	나전과 한지 공예기법을 활용한 신한복 공연의상 개발	한국패션디자인 학회지	한국패션디자인 학회	Vol.22 No.4 [2022], 103~120(18쪽)
21	박가영(송의여자대학교)	친군영(親軍營)과 청나라 양식의 군복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4 [2022], 37~52(16쪽)
22	박동민(비씨티원) 장현주(한양여자대학교) 이해준(강남대학교 미래복지융복합연구소)	메타버스 기반 전통한복(Korea Dress) NFT 컬렉션 활성화 방안 연구	아시아태평양 융합연구교류 논문지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 연구학회	Vol.8 No.12 [2022], 257~266(10쪽)
23	박송연(경상국립대학교) 이은진(경상국립대학교)	한국 전통 장옷의 요소를 응용한 가변적 코트 개발	服飾	한국복식학회	Vol.72 No.6 [2022], 83~103(21쪽)
24	박은정(한국해양대학교) 정상훈(목원대학교) 서종환(동아대학교)	한복 유형별로 느껴지는 감성의 측정과 비교	감성과학	한국감성과학회	Vol.25 No.4 [2022], 33~44(12쪽)
25	박은주(성신여자대학교) 이영주(성신여자대학교)	2010년대 한국복식에 표현된 디자인요소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복식문화학회	Vol.30 No.2 [2022], 208~225(18쪽)
26	박은주(성신여자대학교) 이영주(성신여자대학교)	디자인 요소 분석을 통한 현대여자한복 디자인 개발	服飾文化研究	복식문화학회	Vol.30 No.3 [2022], 348~365(18쪽)
27	박은주(성신여자대학교)	현대 여자 한복에 나타난 전통 색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	服飾文化研究	복식문화학회	Vol.30 No.5 [2022], 631~655(25쪽)
28	손진아(송의여자대학교) 정나영(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쿨 재팬(Cool Japan) 전략 고찰을 통한 한국 전통복식 글로벌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1 [2022], 131~141(11쪽)
29	송미경(서울여자대학교)	의정부 신곡동 무연고 묘 출토복식의 특징	한국 복식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 박물관	Vol.- No.48 [2022], 57~82(26쪽)
30	신하람(성신여자대학교) 염미선(성신여자대학교)	메타버스 아바타 신한복 패션디자인 개발 -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중심으로 -	한국패션디자인 학회지	한국패션디자인 학회	Vol.22 No.3 [2022], 161~179(19쪽)
31	심준영(전주대학교)	클라우드 펀딩에 나타난 리워드 한복의 현황과 특성 연구	패션 비즈니스	한국패션 비즈니스학회	Vol.26 No.3 [2022], 155~167(13쪽)
32	안명숙(광주대학교) 허승연(광주대학교) 차수정(목포대학교)	신한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추천 치마디자인 개발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1 [2022], 21~32(12쪽)
33	오선희(이화여자대학교)	《가례의대식포진질(嘉禮衣櫛式鋪陳 秩)》에 나타난 조선 전기 왕비 가례 복식 연구	服飾	한국복식학회	Vol.72 No.4 [2022], 164~180(17쪽)
34	오유경(경북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과) 송정아(경북대학교)	전통문양을 활용한 금박패치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Vol.24 No.1 [2022], 95~107(13쪽)

연번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호사항과 수록면
35	유지영(이화여자대학교) 홍나영(이화여자대학교)	7~9세기 동아시아 직물에 표현된 함조문(衞鳥紋) 연구	服飾	한국복식학회	Vol.72 No.3 [2022], 104~117(14쪽)
36	윤소정(서울대학교) 장주연(홍콩이공대학) 이하경(충남대학교)	패션한복시대의 한복 전문교육 현황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류학회	Vol.46 No.4 [2022], 687~703(17쪽)
37	이수혜(부산대학교) 이정란(부산대학교)	반려동물 수의(壽衣) 시장현황과 반려인의 수의 선호도 조사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3 [2022], 55~67(13쪽)
38	이재영(평택대학교)	조선시대 궁중정재복식을 아카이브로 한 한류연계 패션상품 개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	Vol.22 No.5 [2022], 261~275(15쪽)
39	이정은(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장민정(성신여자대학교)	온라인 게임에 나타난 한복 디자인의 표현적 특성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1 [2022], 99~110(12쪽)
40	이제남(경상국립대학교) 이은진(경상국립대학교) 한재휘(경상국립대학교)	규방공예 요소를 활용한 경남 행복교육지구 체험 프로그램 및 키트(kit) 개발	한국 복식	단국대학교 석 주선기념박물관	Vol.- No.48 [2022], 83~102(20쪽)
41	이주미(이화여자대학교)	『관혼례강의』에 나타난 조선 후기 왕자 관례식 고증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2 [2022], 63~77(15쪽)
42	이주영(동명대학교)	금관가야 여자 머리 장신구의 유형과 착용모습 일러스트 제안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2 [2022], 5~20(16쪽)
43	이지아(성균관대학교)	한복을 응용한 여자 고교생의 교복 개발과 채택을 위한 탐색적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3 [2022], 131~146(16쪽)
44	이지은(성균관대학교) 이호정(성균관대학교)	2000년대 이후 TV 사극에 나타난 여자 가례복식에 관한 연구	服飾	한국복식학회	Vol.72 No.5 [2022], 1~16(16쪽)
45	이하경(충남대학교) 윤소정(서울대학교)	한복브랜드 창업가 및 종사자 특성에 따른 한복 교육, 공공지원 수요 연구	한국의류산업 학회지	한국의류산업 학회	Vol.24 No.2 [2022],
46	임린(광주여자대학교)	신한복 패러다임에 적합한 박물관 복식 전시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2 [2022], 45~61(17쪽)
47	임린(전남대학교)	원삼의 근대적 절충양상과 의미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4 [2022], 109~129(21쪽)
48	임선화(공주대학교) 이효정(공주대학교)	3D 가상착의를 이용한 생활한복 모티브 교복 디자인 개발 및 평가	한국생활과 학회지	한국생활과학회	Vol.31 No.5 [2022], 645~659(15쪽)
49	장정윤(단국대학교) 박윤미(단국대학교) 최연우(단국대학교)	신경유(申景裕 : 1581~1633년) 조복(朝服)의 후수(後綬) 연구	한국 복식	단국대학교 석 주선기념박물관	Vol.- No.47 [2022], 87~112(26쪽)
50	장정윤(단국대학교) 최연우(단국대학교)	조선전기 조회의례(朝會儀禮) 중 관원 복식 연구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1 [2022], 33~54(22쪽)
51	장현주(제주대학교) 고순희(제주대학교)	제주도 전통 수의 중 검은 호상에 대한 실증적 고찰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3 [2022], 69~87(19쪽)
52	조선희(경성대학교)	근대 조선 기생복식 문화에 관한 연구	일본근대학연구	한국일본근대 학회	Vol.- No.75 [2022], 207~232(26쪽)

연번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기관	권호사항과 수록면
53	차서연(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이은주(안동대학교)	조선시대 야복(野服)에 대한 고찰	한국 복식	단국대학교 석 주선기념박물관	Vol.- No.48 [2022], 5~30(26쪽)
54	최연우(단국대학교)	조선전기 왕세자 원유관복의 제정과 시행(始行)	韓服文化	한복문화학회	Vol.25 No.3 [2022], 107~129(23쪽)
55	최윤희(안동대학교) 이은주(안동대학교)	조선후기 궁중 무고舞鼓 여령복식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	한국국학진흥원	No.49 [2022], 295~343(49쪽)
56	최정(원광대학교)	18세기 초 상류층 여아복식 재현 콘텐츠 연구- 여의(女衣)와 치마를 중심으로	服飾文化研究	복식문화학회	Vol.30 No.2 [2022], 281~296(16쪽)
57	한민재(한양대학교) 이연희(한양대학교)	한국적 패션 디자인 분석을 통한 해체주의 패션 디자인- 3D 가상착의를 기반으로	服飾文化研究	복식문화학회	Vol.30 No.1 [2022], 66~87(22쪽)
58	홍완식(건국대학교)	한복진흥법 제정안의 검토와 과제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학회	Vol.- No.40 [2022], 175~212(38쪽)

2022년 발표 학위논문

연번	구분	저자	논문명	수여대학	전공
1	박사	강서영	조선 후기 여성 예복에 표현된 금장식 문양의 형성 배경과 전개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2	박사	김경희	면과 색채의 절제미로 표현한 현대 조각보 작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3	박사	김다민	문화정체성 관점에서 문화접변에 따른 혼수한복 디자인의 변화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4	박사	김주희	문화이론에 따른 근현대 한복 연구: 콜로니얼 모더니티와 포스트 콜로니얼리티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의류학과 의상디자인 토탈코디네이션 전공
5	박사	박영애	근현대 영아기 전통복식 연구: 표준치수 제안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GLOCAL) 의상디자인
6	박사	박은주	웨딩잡지의 한국복식 이미지 내용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발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7	박사	장진강	조선시대·청대 궁중 여성 복식 문양의 조형요소 비교 연구: 관혼상제 복식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디자인학과
8	석사	Ogata Emii	조선 화포(花布) 문양을 활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9	석사	곽가빈	문화적 지속가능성의 디지털 K-패션디자인 연구: 철학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시니어휴먼에콜로지협동과정
10	석사	권영숙	조선시대 베갯모 문양을 활용한 여성복 디자인 연구	계명대학교	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연번	구분	저자	논문명	수여대학	전공
11	석사	김은정	조선중기 이후 자수의 제작과 문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재학과 민속학전공
12	석사	김이숙	조선전기 『악학궤범』의 여기(女妓) 흑장삼(黑長衫) 복원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13	석사	휘팡위	한중 영상작품 중의 전통복식과 고증문제: 한국의 조선시대와 중국의 명조시대 복식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한중문화콘텐츠학과
14	석사	류경국	조선시대 국왕의 즉위 시 면복(冕服)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전통복식전공
15	석사	민소희	신한복 공연의상 디자인 개발: 나전과 한지 공예의 활용	가천대학교	의상학과 의상학 전공
16	석사	박소현	한복의 모듈러 시스템적 특성을 활용한 제로 웨이트 패션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17	석사	박혜미	조선 시대 남자 포의 무를 활용한 원피스 디자인 연구	경북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전공
18	석사	오지영	K-Pop 아이돌의 패션·뷰티 스타일링에 관한 연구: 신한복 패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미술·디자인학과 뷰티 디자인전공
19	석사	유지영	조선시대 직물의 함조문(衞鳥紋)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산업학과
20	석사	이종림	기산 김준근의 턴로력당에 보이는 근대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21	석사	이주영	팝업 스토어를 활용한 신(新)한복 홍보전략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의류패션학
22	석사	이희정	조선후기 궁중 정재(呈才) 여령(女伶)의 황초삼(黃衫衫) 연구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23	석사	임희영	한복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시각적 질감 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24	석사	주희선	신한복 이미지와 선호도에 관한 연구: K-pop 스타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의류활경학과 인체공학의류 패턴설계 연구실

2022년 전국 한복 전시 목록

지역		연번	전시명	개최 주체	전시장소
강원 특별 자치도	원주시	1	• 입신(立身)하고 양명(揚名)하다	토지문화재단	원주중앙청소년문화의집
	원주시	2	• 이응해 장군 한복 및 인형한복 전시	문화재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우리옷 우리색연구회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춘천시	3	• BTS 지민 한복정장 전시	마이아트옥션	라비에벨 리조트
경상 남도	남해군	4	• 류정순 명장의 조선궁중복식전	남해군	유배박물관
경상 북도	구미시	5	• 이봉이 우리 옷 100선·나전칠기·매듭과 노리개	경상북도·한국한복진흥원	상모사곡동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관
	안동시	6	• 경북 최고장인 부산 공예 명장 초대 교류 명품전	경북최고장인협회	경북도청 동락관
	영주시	7	• 한식, 한복, 한옥, 한지, 음악, 한글 콘텐츠 전시	영주시	선비세상 문화관
경기도	광주시	8	• 베트남의 날 기념 한·베트남 합동 전시회	광주시	남한산성 아트홀
	김포시	9	• 김포한옥마을 AR 드라마 사극 한복전시	(재)김포문화재단	김포아트빌리지
	고양시	10	• 한복 피규어 전시(한복문화주간)	문화재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고양 스타필드
	수원시	11	• 꼬까옷(배성주 한복 전시회)	수원시 선경도서관	수원시 선경도서관
	용인시	12	• 우리옷 디자이너 이리자 기증 특별전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용인시	13	• 화성 구포리 수성최씨 숙묘 출토복식 특별전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단국대석주선기념박물관
	의왕시	14	• 우리 옷, 그 안을 보다	‘우리 옷, 이어가다’모임	레드부츠갤러리
	파주시	15	•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조선여인의 장신구 이야기 노리개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벽봉한국장신구박물관
광주 광역시	남구	16	• 의복미화(懿服美畫·아름다운 옷과 그림)	임린 작가	갤러리S
	동구	17	• Blooming Sensibility	서지훈 작가	금호갤러리
대구 광역시	칠곡군	18	• 한복, 전통의 옷, 기억의 옷, 추억의 옷 (임현정 선생의 한복 전시회)	대구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구예술대학교 교육관 석암미술관
	수성구	19	• 갯, 아시아 민속 복식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대전 광역시	중구	20	• 대전 2022, 대한민국 명장·장인전	대전시광역시	대전예술가의 집
	대덕구	21	• 뉴미디어 하이브리드 패션 콘텐츠 융합전시회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한남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부산 광역시	동구	22	• 꽃으로 다가온 한복	문화재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한국복 식문화원 참여	부산패션비즈센터
	동구	23	• 방령에 멋을 더하다	문화재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산한복산업협동조합·한국복 식문화원 참여	부산패션비즈센터

지역		연번	전시명	개최 주체	전시장소
서울 특별시	중구	24	• L7 명동아가옷 열두달	롯데호텔	L7 명동
	종로구	25	• 푸른 구름의 나라(고려복식 고종 일러스트)	최정(원광대 교수)	KCDF 갤러리
	종로구	26	• 품격을 더하다, 당의唐衣 복식전	소곤소곤당신과의대화 연구회	KCDF 갤러리
	종로구	27	•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은평구	28	• 전통한복전시회	이순화 작가	르네상스 갤러리
	용산구	29	• 한복 갤러리	용산공예관	메타버스 용산공예관
	용산구	30	• 의(衣)미(美)있는 한복	용산공예관	용산공예관
	강남구	31	• 아름다운 기증, 소중한 모음 IV	경운박물관	경운박물관
	서대문구	32	• 조선시대 帶(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담인복식미술관
	서대문구	33	• 침선 針線 Chimseon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담인복식미술관
	용산구	34	• 흥완군 복식의 여정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성북구	35	• 한복, 마인크래프트와 만나다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마인크래프트 플랫폼
	중구	36	• 한복근무복·한복교복 전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284
	강남구	37	• 한복웨이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플랫폼 엘
	중구	38	• 한복문화주간 한복전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하이커그라운드
인천 광역시	중구	39	• 한복·꽃이 핀 비단 옷이라네	국립중앙박물관	인천공항박물관
전라 남도	곡성군	40	• 한복 인형 전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곡성군	아트빌리지 기차갤러리
	곡성군	41	• 한복 시대를 느끼다(한복문화 지역거점 공모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곡성군	42	• 장미 유리 온실장미꽃 디자인 한복 전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순천시	43	• 오래된 기다림	순천문화재단	김혜순 한복공방
전라 북도	익산시	44	• 국립익산박물관품나눔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익산시	국립익산박물관
	전주시	45	• 전주공예품전시관한복인형	이미숙 작가	전주공예품전시관
	전주시	46	• 모던한복	효성티앤씨	전주사회혁신센터
충청 북도	옥천군	47	• 한복유니폼 전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옥천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옥천군	48	• 의관을 갖추니, 예가 시작되다	옥천군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음성군	49	• 충북도 공예명인전	문화예술체험촌	문화예술체험촌
	증평군	50	• 이은실작가 전통자수 전시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예산군	51	• 한복 명승유적 디자인 전시	예산군, 충남문화유산콘텐츠협 동조합	예산향교

2022년 출간된 국내 ‘한복’ 관련 도서 목록

연번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내용	한국십진분류 기호	
1	도록	2021 한복근무복 도록: 한복 입고 일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관광숙박업 대상 한복근무복 화보	592	의복
2	도록	2021 한복근무복 도입 사례 집: 한복 입고 일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관광숙박업 대상 한복근무복 사례 모음집	592	의복
3	도록	2022 한복교육 디자인 개발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2022 한복, 교복이 되다 공모전의 수상작 화보	592	의복
4	도록	2022 한복근무복 도록: 한복 입고 일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대상 한복근무복 화보	592	의복
5	도록	2022 한복근무복 도입 사례집: 한복 입고 일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대상 한복근무복 사례 모음집	592	의복
6	도록	2022 한복디자인 프로젝트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공모전 수상작 도록	592	의복
7	도록	한복상점 도록 Hanbok Expo 2022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편]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한복업체들이 참여해 새로운 한 복디자인을 선보이고 트렌드를 제시하는 한복 엑스포 도록	592	의복
8	보고서	(2022년도) NCS기반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발 결과보고서: 섬유 분야: 한복기능장, 한복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편]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자격출제실	한복기능장, 한복기능사 시험 평가 개발 결과서	-	-
9	보고서	2022 한복교육보급사업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문화기획학교	한국공예·디자인문 화진흥원(KcdF)	한복교육 사업 평가서	592	의복
10	보고서	전통문화산업의 저변확대 방안 연구: 한복, 한식, 한지를 중심으로	이정희, 박종웅, 김유석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380	풍습, 예절, 민속학
11	일반 도서	Vnvnii의 생활한복 캐릭터 일러스트	이다빈	황금시간	생활한복 따라 그리기 일러스트	657	만화, 삽화
12	일반 도서	나비처럼 무지개처럼: 오늘의 시인들 한복을 노래하다	한국한복진흥원 역음	곰곰나루	한국한복진흥원에서 특별히 기획해 엮은 시선집	811	시
13	일반 도서	마노의 인형 한복 만들기: 누구나 쉽게 따라 만드는 한복 & 소품 디자인	신원선, 박성 지음	경향BPI(경향비피)	예쁘면서도 만들기 쉬운 인형 한복 도안집	592	의복
14	일반 도서	베이비돌 한복 만들기: 전통 한복과 패션한복, 소품까지 인형옷 무작정 따라 만들기	백한솔	BM황금부엉이:청 단	사이즈가 작은 베이비돌 한복으로 배우는 한복 만들기 책	592	의복
15	일반 도서	아름다운 전통한복의 복식과 차림새: 넉넉함과 여유를 담아내는 세계속의 우리 옷	임현정	일이사	—	592	의복

연번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내용	한국십진분류 기호	
16	일반 도서	일러스트 따라잡기. 한복편	아자	단한권의책	한복을 좀 더 재미있고 현대적인 콘셉트로 재해석해서 따라 그려보도록 기획된 일러스트 북	657	만화, 삽화
17	일반 도서	장인의 손끝, 기술을 잇다 난모와 털옷	안인실·이민정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속련기술 진흥원	난모 및 털옷의 종류와 특징, 역사, 기술, 그리고 전승자와의 인터뷰 수록 책	592	의복
18	일반 도서	조선패션본색: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한복의 힙과 멋	채금석	지식의편집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개부터 전통 신발까지 한복에 담긴 힙과 멋의 본질에 대한 책	592	의복
19	일반 도서	코로나19와 함께 한복, 코스프레: 스마트폰과 삼각대로 도전한 코스튬 플 레이어의 나 홀로 촬영기	한요진	부크크	한복 코스프레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	592	의복
20	일반 도서	한국복식문화사: 고대부터 광복 이후의 한복과 의생활 변화	김순영, 엄정하, 이민정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인의 옷과 장신구 문화의 오랜 역사를 풀어 낸 개괄서	381	의식주의 풍습
21	일반 도서	한복만들기 구혜자의 침선노트 1, 침선과 기본복	구혜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보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교재시리즈 1) 시어머니에게 전수 받은 한복 짓는 법	592	의복
22	일반 도서	한복만들기: 구혜자의 침선노트 2, 어린이옷과 쓰개	구혜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보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교재시리즈 2) 시어머니에게 전수 받은 한복 짓는 법	592	의복
23	일반 도서	한복만들기: 구혜자의 침선노트 3, 혼례복	구혜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보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교재시리즈 3) 시어머니에게 전수 받은 한복 짓는 법	592	의복
24	일반 도서	한복 만들기: 구혜자의 침선노트 4, 의례복과 수의	구혜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문보재)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교재시리즈 4) 시어머니에게 전수 받은 한복 짓는 법	592	의복
25	일반 도서	한복입는 CEO: 일상에 행복을 입히는 브랜드 리슬의 성장 철학	황이슬	가디언	어려움을 극복하고 ‘리슬’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을 요약한 책	325	경영
26	일반 도서	흑요석의 한복 포즈집. 남자 편	우나영(흑요석)	한즈미디어	흑요석 작가가 직접 연출한 한복 일러스트 사진 자료집	592	의복
27	일반 도서	흑요석의 한복 포즈집. 여자 편	우나영(흑요석)	한즈미디어	흑요석 작가가 직접 연출한 한복 일러스트 사진 자료집	592	의복
28	전자책	코티의 구석구석 한국이야기-선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러시아어	오즈하우스	(주)소울북스	한국 이야기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380	풍습, 예절, 민속학
29	전자책	코티의 구석구석 한국이야기-선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베트남어	오즈하우스	(주)소울북스	한국 이야기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380	풍습, 예절, 민속학

연번	구분	도서명	저자	발행처	내용	한국십진분류 기호	
30	전자책	코티의 구석구석 한국이야기-선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영어	오즈하우스	(주)소울박스	한국 이야기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380	풍습, 예절, 민속학
31	전자책	코티의 구석구석 한국이야기-선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일본어	오즈하우스	(주)소울박스	한국 이야기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380	풍습, 예절, 민속학
32	전자책	코티의 구석구석 한국이야기-선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중국어	오즈하우스	(주)소울박스	한국 이야기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380	풍습, 예절, 민속학
33	전자책	코티의 구석구석 한국이야기-선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캄보디아어	오즈하우스	(주)소울박스	한국 이야기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380	풍습, 예절, 민속학
34	전자책	코티의 구석구석 한국이야기-선이 아름다운 우리 옷, 한복-태국어	오즈하우스	(주)소울박스	한국 이야기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책	380	풍습, 예절, 민속학
35	전자책	한복이 좋아서 인형이 예뻐서	조영남	(주)성안당	인형 한복 만들기 안내서	592	의복

2022년 출간된 국외 ‘한복’ 관련 도서 목록

연번	도서명(원본)	도서명(번역)	저자	출판사	언어	출판지
1	Batik Hanbok. Promoting a Hybrid Fashion Phenomenon on Instagram	바틱 한복. 인스타그램에서 하이브리드 패션 현상 홍보하기	Tamara Wiedersum	GRIN Verlag	영어	미국
2	Hanbok Korean Costume: Korean Women in Traditional Hanbok Coloring Book: Exquisite coloring book featuring a variety of Hanbok designs	한복 한국 의상: 전통한복을 입은 한국 여성들 컬러링북: 다양한 한복 디자인을 담은 절묘한 컬러링북	JuKyung Lee	Independently published	영어	한국
3	Hanbok Photo Book: Korean Culture Colorful Pages For All Ages Relaxation And Stress Relief	한복 사진집: 모든 연령층의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채로운 한국문화 페이지	Aman Atkinson	Independently published	영어	한국
4	Hanbok Photo Book: Colorful Korean Costume Illustrations For All Ages To Relieve Stress And Get Creative	한복 사진집: 모든 연령대가 스트레스를 풀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한국 의상 일러스트레이션	Aman Atkinson	Independently published	영어	한국
5	Hanbok Photo Book: Stunning Costume Colorful Photograph Album For All Ages To Unleash The Creativity Energy	한복 사진집: 모든 연령대가 창의적 에너지를 발산하는 놀랍고 다채로운 사진 앨범	Aman Atkinson	Independently published	영어	한국
6	Hanbok Photo Book: Amazing Traditional Costume Colorful Photos For All Ages To Relax And Unwind	한복 사진첩: 모든 연령대가 편안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형형색색의 놀라운 전통의상 사진	Aman Atkinson	Independently published	영어	한국
7	Hanbok Photo Book: Traditional Costume Pictures For All Ages To Have Fun And Relax	한복 사진집: 모든 연령대가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전통의상 사진	Aman Atkinson	Independently published	영어	한국
8	Hanbok: Timeless Fashion Tradition(Korea Essentials)	한복: 시대를 초월한 패션 전통 (한국 필수품)	Samuel Songhoon Lee	Seoul Selection	영어	한국
9	Miss Princess Hanbok	한복 공주	Alam Anuar	Open Bridge Publications Sdn. Bhd	말레이어	말레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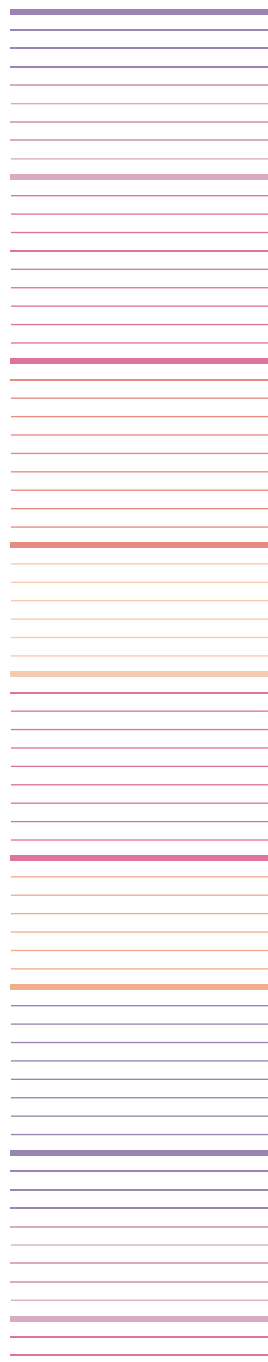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실행 해달별문화유산연구소
연구집필 김현아 해달별문화유산연구소 대표
김정아 한남대학교 교수
김아람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
연구보조 남별님 해달별문화유산연구소 전문연구원
오선화 해달별문화유산연구소 전문연구원
전소윤 해달별문화유산연구소 전문연구원
편집디자인 유비플러스
발행일 2023년 12월
발행인 장동광
발행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0306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02-398-7900

©2023 KCDF All Right Reserved.

이 책자의 저작권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있습니다. 수록된 모든 내용, 혹은 일부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적 사용 및 복제·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이 책자의 원문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공개돼 있으므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홈페이지(www.kcdf.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773022 484004 03
ISSN 3022-4845